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16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월 28일(음력 1월 3일) 수요일(주간)

한국 불자 3958만명
'2008··종교현황' 통계

포교 일선에서 어린이 · 청소년 포교를 비롯해 지역별 · 연령별 불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 속에 우리나라 불자수가 3958만여 명이라는 통계조사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이 같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지난 2002년에 이어 6년 만에 조사를 벌여 1월 20일 발간한 <2008 한국의 종교현황>에서 밝혀졌다.

문화부 조사결과 종교인은 8259만여 명(2005년 통계청 집계 전체인구 4704만여 명)이며, 이 중 불교가 3958만여 명, 개신교 1194만여 명, 유교 1018만여 명, 천주교 487만여 명, 원불교 148만여 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통계청이 집계한 전체인구수가 4700여 만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납득하기 힘든 통계다. 문광부 관계자는 "불자수가 총인구수에 근접하는 까닭은 각 종교단체가 제출한 것을 토대로 집계해 정확한 통계수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자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은 신도 한명이 여러 사찰에 등록하고 군소종단이 난립한 현상 등이 두루 작용해 부풀리기가 극대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신도 등록 및 관리 ·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언 기자**


"염불이 참선 참선이 염불"
선지식을 찾아서 ▶14 원산 스님


"불교전서 번역 진력할터"
한국불서 대작불사하는 ▶7 찰스 뮐러 교수

상생 해법을 논하다

▶4 도법 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담

익산 미륵사 창건 기록 발견

석탑서 사리기 등 나와…선화공주 이야기는 없어

"선화 공주님은 남 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맛동(서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遣去如)." 한 구절 '서동요' 때문에 고향 신라에서 쫓겨나 서동(백제 제30대 무왕)의 아내가 돼야했던 선화 공주.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으로도 불렸던 선화 공주와 서동의 사랑이 의심받는 사건이 터졌다.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에서 창건시기와 석탑 조성 내력 등을 적은 금제사리봉안기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의 "백제 무왕과 왕후(선화 공주)가 용화산 못가에서 미륵삼존을 친견한 후 창건했다"는 기록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에서 출토된 금제사리봉안기(위)와 금제사리호(아래)의 발견당시 모습.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이하 연구소)는 1월 19일 익산 미륵사지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미륵사지석탑에서 보수정비를 위한 해체조사 중 발견한 사리장엄물을 공개했다.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에 버금가는 국보급 금제사리구 출토와 그 속에서 익산 미륵사의 창건시기를 밝힌 사리기가 나왔다는 중요성을 감안해 설명회에는 이건무 문화재청장이 직접 참석했다. 지금까지 백제 사리구로는 충남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2007년 10월 출토)가 유일했다.

사리기는 익산 미륵사가 설화처럼 639년, 백제 제30대 무왕(재위 600~641년)때 창건된 것은 맞지만 창건한 왕후가 (신라 진평왕이 아니라) 백제 최고 관직인 좌평(佐平)의 딸로 적었다.

금제사리봉안기를 해석한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금제사리봉안기는 백제 관련 국내 기록 중 왕비 이야기를 적은 유일한 기록"이라며 "익산 미륵사는 철저하게 왕후가 주체가 된 발원문"이라 말했다.

김 교수는 공개됐던 해석을 일부 수정해 "원문 해석 중 앞면의 '우리 백제 왕후께서는(我百濟王后)'은 '나 백제왕후는'으로, 뒷면의 '또 원하옵나니, 왕후의 심신은(又願王后卽身心)'은 '또 원하옵나니, 왕후 내(나) 자신은(又願王后卽身) 마음이(心)'로 끊어 읽어 주어를 왕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상현 교수의 해석대로면 금제사리봉안기는 사택씨 왕후가 발원한 것이 명확해진다.

그렇다면 선화 공주가 익산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삼국유사>는 거짓일까? 학계는 물론 네티즌들도 설왕설래하고 있다. 매년 서동축제를 여는 서동의 도시 익산부터 난리가 났다. △백제 무왕에게 왕비가 여럿 이었을 추정 △선화 공주가 죽은 뒤 사택적덕의 딸이 왕후가 됐을 가능성 △심지어 백제 멸망 후 익산 미륵사 가람 보호를 위해 서동과 선화 공주의 설화를 만들어냈다는 설 등이 분분하다. 많은 가설 가운데 분명한 것은 선화 공주가 익산 미륵사를 창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상현 교수는 "선화 공주 부분은 허구일 수 있지만 무왕 대인 639년 미륵사가 창건됐다는 점, 왕후가 절의 창건을 주도했다는 점 등 나머지 역사적 부분은 금제사리봉안기 기록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국유사>는 역사와 설화가 혼재된 사료의 하나"라며 "설화와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에도 많은 설화가 전해진다. 이번 익산 미륵사지석탑의 금제사리구 발견을 두고 명문에 끄달려 서동요의 진위를 따질지, 백제 금동대향로의 아름다움에 버금가는 금제사리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지는 개개인의 몫이다. 달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7면에서 계속

"사리, 문화재 아닌 聖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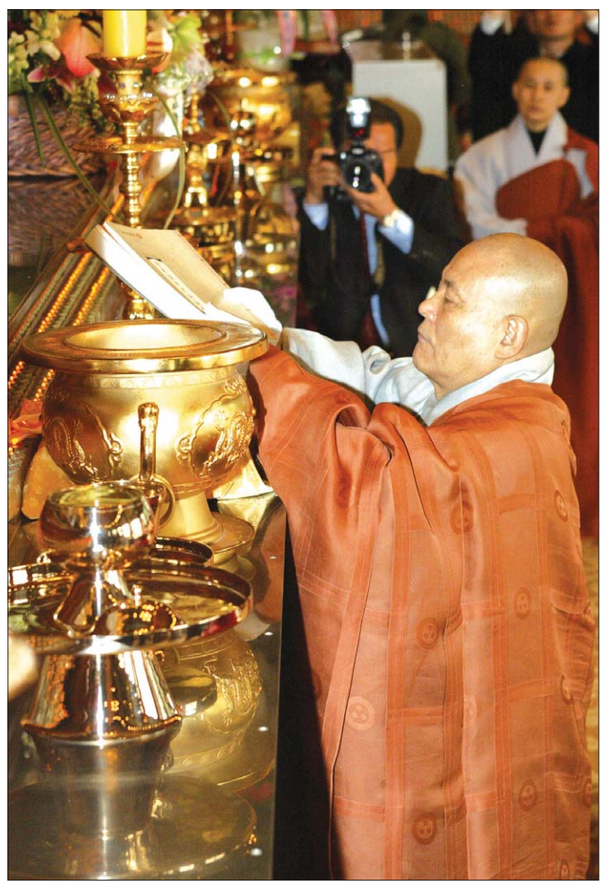
조계종, 미륵사지 사리구 출토관련 문화재청에 항의

익산 미륵사지석탑에서 출토된 금제사리구와 관련해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에 항의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불교문화재 관리와 정책수립과정에 불교계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미륵사지석탑 해체와 사리장엄구 발견 과정에 불교계가 무시됐다는 내용으로 1월 22일 발송됐다.

문화부장 수경 스님은 "사리장엄구를 문화재로만 접근해 이운시 불교적 의식이 무시된 것은 잘못"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조계종은 문화재청의 불교계를 배제한 불교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이미 수차례 지적해 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조계종 표준 한글 · 한문본 <금강경> 봉정법회'에서 <금강경>을 부처님 전에 봉정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표준 금강경' 봉정

독송본·주석본 2종 발간, 종단 차원 보급 주력

조계종 표준 <금강경>이 2년 여의 불사를 회향하며 편찬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1월 20일 조계사에서 '조계종 표준 한문 · 한글본 <금강경>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밀운 스님(원로회의 부의장), 통광 스님(조계종 역경위원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밀운 스님은 '비단 위에 또 꽃을 뿌리는 마음이로다'라는 제하의 종정 법어를 대독했다.

스님은 "중언부언의 수많은 이본 이역이 때로는 눈에 들어간 금가루가 됐고 평범한 일반대중들에게는 도리어 현애상(懸崖想, 해보기도 전에 어렵다고 생각함)을 일으키게 했다"며 "2000만 종도들이 한글본 · 한문본 <금강경>의 조계종 표준본을 지남으로 삼아 정진하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지관 스님은 치사에서 "'조계종 표준 <금강경>'은 지금까지 발간된 <금강경> 가운데 가장 완벽한 주석본"이라고 말했다.

청화 스님은 간행사에서 "말과 글이 같아야 생각이 통하며, 생각이 통해야 종지가 드러나는 법"이라며 "종단 정체성 확립과 조계 종풍을 드날리기 위해 종단적 검증을 거친 소의경전을 간행했다"고 설명했다.

종단 표준 <금강경> 발간에는 연관 스님(前 화엄학림 학장)과 각묵 스님(화엄학림 강사), 무애 스님(송광사 강사)과 송찬우 교수(중앙승가대), 김호성 교수(동국대), 김호귀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등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

조계종은 총무원 · 교육원 · 포교원장 명의의 공문을 종단 각 사찰에 발송해 '조계종 표준본 <금강경>'을 배포 · 보급하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관련기사 2면

법구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하면 기쁨은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
〈법구경〉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강영화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첫서리 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창에 치세요
주소(D) 뽕잎차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뽕잎차 주문 TEL 055) 931-9590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hanmail.net

조계종 종무원이 개××?

"야, 너는 위원장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말을 하냐. 위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위원장 허락도 없이 말해도 되냐. 개×× 야!"

이런 욕설과 막말이 터져나온 곳은 폭력과 폭언이 난무한 대한민국 국회 회의장이 아니다. 다름 아닌 1월 20일 열린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무애) 회의장. 3선 중앙종회의원인 무애 스님이 '위원회에서 역경원장 월운 스님 해임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 여부를 논의하던 중 종회 사무처 재가종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사람과 하늘의 스승이 돼야 할 스님이 출가수행자의 위의에 맞지 않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힘없는 재가 종무원에게 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스님들이 노 거사님이나 보살님들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지만, 중진 스님이 기자들이 지켜보는 공식회의 석상에서 폭언을 했다는 점에서 재가 종무원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는 1월 22일 성명서를 통해 "무애 스님은 지난해 11월 열린 정기중앙종회 석상에서 종무원들에게 이번과 같이 욕설을 하여 본회의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무애 스님의 공개참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욕설 사건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조선시대의 양반이 하인에게 막말을 하는 광경이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의 갖은 탄압을 받으며 도성 출입금지의 수모까지 겪었던 스님들이 거룩한 승가의 위의를 회복한 지는 이제 100년도 채 되지 않는다. 출가와 재가대중이 온갖 굴욕을 이겨내며 지켜낸 불조의 혜명은 이제 스님들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게다가 불교계가 공직자의 종교차별과 편향에 항의해 온 상황에서 일부 스님들의 폭력과 폭언은 교단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야기할 수 있기에 어느 때 보다 하심 · 공경하는 수행가풍을 회복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법(佛法) 앞에 평등함은 물론, 저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엄한 존재임을 가르치셨다. 인도의 3000여 성(姓)으로 세분화된 계급사회에서 부처님은 만인의 평등을 호소하며 왕족의 기득권을 버린 채 맨 발에 음식을 빌어먹으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중생의 복밭(福田)이 되지 않았던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른 때'라고 했다. 사부대중은 모두 초발심으로 돌아가 서로 존경하고 화합하는 아름다운 교단의 전통을 회복하길 간절히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국립공원 면적 2~3% 해제

사찰환경 보존 빨간불

불교계 · 환경단체 '난개발 우려' 적극 대응키로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2~3%가 공원에서 해제되고 일부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사찰환경 보존에 빨간 등이 켜졌다.

환경부는 1월 15일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구역 조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월 15일 밝혔다.

국립공원 해제대상 지역은 공원지정 전부터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 식당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이미 개발된 지역, 공원 경계선 · 도로변 · 해안선에 붙어 있는 마을 등이다. 해제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가 해제 지역의 용도를 바꿔 개발할 때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사전 환경성 검토와 자연경관 심의를 통해 환경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국립공원내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현행 5개로 나뉜 용도지구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로 재편키로 했다. 이 가운데 마을지구로 단순화된 지역은 규제가 대폭 완화돼 건축물 신 · 증축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기존에 허가 사안이던 건축물 10% 이내 증축에 대해서는 신고도 생략된다. 또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 제한도 100㎡에서 200㎡까지로 완화되고 도서지역 자연환경지구의 농수산물 보관시설 규모 제한도 600㎡에서 1200㎡로 풀린다.

아울러 환경부는 노약자 등을 위한 국립공원 탐방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케이블카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최근 '로프웨이 설치 · 운영 지침'을 마련했으며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의 설치 거리도 현행 2㎞에서 5㎞로 늘리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공원별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구역조정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공원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지자체와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국립공원 규제 완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난개발이 예상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1월 20일 브리핑을 통해 "국립공원은 역사 · 환경 · 문화적으로 소중한 지역이며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종단 차원에서 불교계 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2월 10일 전후로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와 국립공원내 제1회 사찰주지회의를 잇따라 열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조계종은 수행 및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불교계 재산권 회복 등을 포함한 국립공원구역 조정 및 자연공원제도 개선 등 국립공원 정책전반에 대한 종책수립을 위한 실무대응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군불총 임원들, 총무원 예방 신년하례 김태영(군불총 회장) 합참의장, 임충빈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국군불교총신도회 임원들이 1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 신년 인사를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레바논 동명부대 법사로 첫 부임하는 권기원 법사가 총무원장 스님에게 출국 신고를 함께 했다. 박재완 기자

전통사찰 주변 보호 법적근거 마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지자체 전통사찰위 구성 시급

앞으로 각종 토지 이용시, 반드시 토지이용계획 단계에서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은 전통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찰의 수행환경 파괴와 문화재 훼손 등을 방지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전통사찰보존구역'만 등재돼 있던 기존 법령에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통사찰보존구역뿐만 아니라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외곽의 경계 500m 이내(전사법 시행령 제10조)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까지 고려해 토지이용규제지역으로 확대됐다. 전통사찰 주변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모든 전통사찰에 지정돼야 한다.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보존구역을 지정할 전통사찰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야 하는데, 서울 · 경기 · 부산 ·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종단 차원에서 정부 및 각 지자체에 전통사찰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법일 · 정우스님 종회의원보선 당선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청송 대전사 주지 법일 스님이, 16교구본사 고운사 중앙종회의원에 안동 용담사 주지 정우 스님이 나란히 무투표 당선됐다.

1월 20일 당선 확정된 법일 스님은 기림사 주지와 중앙회의 의원, 은해사 부주지 등을 역임했고, 현재 대전사 주지, 대구불교방송 운영이사를 맡고 있다.

23일 당선 확정된 정우 스님은 대원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2003년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했다. 현재 고운사 호법국장과 용담사 주지를 맡고 있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 표준 '금강경' 다른점은?

<금강경>은 402년 구마라집에 의해 처음 한역된 후 300여 년간 6종의 한역본이 나왔다.

한글로는 1924년 용성 스님의 <상역과해금강경> 이후 현재 100여 종이 넘는 한글 <금강경>들이 유통중이다.

그동안 종단 표준본이 없어 하나의 경전을 두고 종단 대중들이 서로 다른 경전을 독송하던 가운데, 1월 20일 '조계종 표준본 <금강경>'이 2년 여의 불사를 마치고 편찬 · 회향됐다.

조계종이 편찬한 <금강경>은 종단 표준본이라는 상징성 외에 △범어 · 한문 · 교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편찬실무위원회를 통한 종단차원의 편찬 △판본 대교작업을 통한 한문 교감본 편찬 △공동작업으로 한글 번역 △범본 및 이역본을 참조한 한글 번역 △여러 차례에 걸친 윤문 △수차례에 걸친 학술적 검증 △독송본과 주석본 동시 출판 등이 특징이다.

모든 종도들이 <금강경>을 쉽게 독송하고 경전에 담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간행취지에 따라 대중적인 해설을 했다.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은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로, 사상(四相)은 각각 '자아가 있다는 관념(我相)' '개아가 있다는 관념(人相)' '중생이 있다는 관념(衆生相)' '영혼이 있다는 관념(壽者相)'으로 번역했다.

조동섭 기자

승랍기산대책위, 법령개정 논의 본격화

'승랍기산 문제해결을 위한 승가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1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가자 고령화 시대에 젊은 스님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승랍을 사미계 수계일로부터 기산하는 법령 개정이 절실하다"며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 '승랍기산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보인)도 제3차 회의를 열어 청원인 등 관계자들이 의견을 청취하고 현 승랍기산 방식이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성우 ·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동국역경원장 일방해임진상규명위원회(가칭)발기인대회"

동참을 호소합니다!

2008년 12월 8일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 인사위원회에서는 불교학술원설립추진을 위한 명목으로 동국역경원장이신 월운(月雲)큰스님을 일방적으로 해임을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한 사부대중은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다.

월운큰스님은 동국역경원의 설립자이신 故 운허(耘虛)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1965년 역경위원으로 선임되어 1993년부터 동국역경원장직을 맡아 '역경보살'로 칭송되며 50여년이란 긴 세월 평생의 원력으로 인재양성과 역경사업에 온 몸을 바치신 교학의 상징적 존재이시다.

그동안 스님께서는 조계종단과 동국대학교의 열악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각종법회에서 직접 전단지를 나눠주며 역경사업동참과 후원을 권유하여 역경원후원회를 결성해 모금한 후원금만도 22여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후원과 지원에 힘입어 역경불사시작 37년만인 2001년에는 <한글대장경> 총318권을 완간하였으며, 2008년 12월까지 그간 번역의 오류를 다듬어 고치고 전산화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스님께서는 이러한 공로로 2003년 조계종포교대상, 2005년 대원상과 대한민국은관문화훈장, 2006년에는 지훈상(芝薰賞), 외솔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계종은 1962년 4월 통합종단의 출범과 함께 '역경', '포교', '도제양성'을 3대지표로 채택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위해 1964년 동국역경원을 설립 동국대학교에 자리하게 되었다. 역경원장 또한 종단의 어른을 모셔 역경사업을 관장하게 한 사실만 보더라도 조계종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동안 학교 측이 역경원장 해임이나 임명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았던 관례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금번 동국대학교 인사위원회에서는 종단과 역경원장의 의사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해임을 결정한 것은 종단과 종단원로스님께 대한 크나큰 결례이며, 종단 역경불사와 교학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교수·강사스님들의 의기를 짓밟는 폭거와 다름없다.

이번 동국대학교 처사는 2010년까지 제2의 역경불사인 전산화 불사의 회향을 남겨둔 시점에서 스님의 평생 숙원사업인 역경사업을 중도에서 하차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번 역경원장 일방 해임이 언론에 비춰진 대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기에 '동국역경원장 일방해임진상규명위원회(가칭)' 설치를 위한 발기인 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전국의 강원 교직자스님들·봉선문도스님·후학제자와 역경후원회원 그리고 평소 역경불사에 관심 있으신 사부대중의 참여와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 일시 : 불기 2553(2009)년 2월 12일(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조계사 (극락전)
• 주관 : 동국역경원장 일방해임진상규명위원회(가칭)발기인대회 주비위

“용산 참사, 정부는 참회하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는 1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한강로 참사현장에서 ‘합동위령재’를 봉행했다. 박재완 기자

용산 철거민 시위현장에서 진압 강행으로 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정부에 대해 불교계의 규탄이 잇따르고 있다.

불교인권위와 불교평화연대는 1월 21일 성명을 통해 “과거 전두환 정권을 연상케 하는 비인권정권은 공개참회하고, 국민에게도 용서를 구하라”고 규탄했다.

실천불교승가회(공동의장 효림, 성관)도 1월 21일 성명을 통해 “야만성과 독재적 발상으로 참사를 일으킨 정부 관계자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미국내 반출 문화재 반환 희망적”

문화재환수위, 미국방문 결과 기자간담회 개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7만 5000여 점 가운데 미국에만 1만 9000여 점의 문화재가 있다. 보스톤 미술관 소장 ‘금은제라마탑형사리구’와 콜럼비아대가 소장한 ‘조선왕실의궤’ 등이 대표적인 예. 민간단체로는 처음 조계종 중앙신도회 문화재환수위원회(대표 백창기 중앙신도회 명예회장 이하 환수위)가 1월 7~15일 미국을 방문해 반출문화재 반환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귀국했다.

환수위는 1월 19일 조계종 중앙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방문 성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행사에서 부두완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재 반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스톤 미술관과 버크 컬렉션 등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확인해 반환요청을 했다”며 “대부분 소장처가 우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환수위가 미국 방문을 통해 확인한 문화재는 개성 화장사 또는 양주 회암사 것으로 추정되는 금은제라마탑형사리구(보스톤 박물관 소장)를 비롯해, 회암사에 있었던 ‘석가삼존도’(버크 컬렉션), ‘조선왕실의궤’ 문헌 다수(콜럼비아대 소장), 고려청자 · 조선백자 등 핸더슨 컬렉션 물품(하버드대 아서 세클러 박물관) 등이다.

권두안 부회장(회암사유물반환추진위)은 “이번 방문을 통해 환수위는 (예불 등을 통해) 소장처에 금은제라마탑형사리구와 석가삼존도는 한국 불자들의 성물(聖物)임을 각인시켰다”며 “금은제라마탑형사리구와 입수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반환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수구 사무국장(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본부)은 “반출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유통 경로 등을 밝혀 부당하게 반출됐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사무국장은 “현재 금은제라마탑형사리구의 경우 보스톤 박물관 측은 입수경위 등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도덕적 법률적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상근 사무총장(조계종 중앙신도회)은 “해외 반출된 문화재 상당수가 불교문화재로 불교계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며 “종단을 대신해 중앙신도회가 환수위를 상설기구화해 문화재의 실질적 반환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軍, 취미로 신심 UP!

방공포병여단 호국감천사, 정우 스님 초청법회

1월 18일 공군 제1방공포병여단과 방공포병학교가 있는 대구 호국감천사(주지 여정 법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불자들과 부대 장병들로 가득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초청법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날 정우 스님은 불자인 고경환 대령(공군 제1방공포병여단장)의 영접 하에 패트리어트를 견학하고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양산에서 산골 방공포대까지 정우 스님이 방문한 까닭은 무엇일까?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좌)과 여정 법사를 비롯한 감천사 신도들은 이날 군불심 융성을 발원하고 또 발원했다.

호국 감천사는 충청 이남 방공포병과 방공포교육생 신행을 담당하기 위해 2005년 건립됐다. 방공포병 · 장교라면 한번쯤 거쳐 가는 중요한 위치임에도 대부분 군법당이 그러하듯 시작은 열악했다. 26억원을 들여 건립한 교회와 비교되는 보라매 공군법당에서 뜯어온 4000만원 판넬 건물이 감천사의 출발이었다. 하지만 감천사는 주지 여정 법사와 금강회, 관음회 등 후원회의 일치단결한 신심이 있었다.

현재 감천사는 국제포교사 2명, 포교사 4명 등 현역군인 포교사를 6명이나 보유한 ‘포교사양성소’다. 현역장교들이 군포교를 돕기에 포교력 배가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차기 금강회장인 정재권 소령(여단 헌병대장) 등 간부 3명도 2월 중 포교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통도사 성지순례를 봉행하는 등 신행활동도 열심이다. ‘너무 뵙고 싶다’고 요청하는 신심을 정우 스님은 외면할 순 없었던 것이다.

신도들의 신심을 군장병들에게까지 전염시킨 이는 젊은 여정 강건욱 법사(26)였다. 여정 법사는 장병입장에서 법회를 운영했다. 장병들이 편하게 웃고 즐길 수 있도록 법당 밴드부 BOA(Band · Buddhist of AirDefense)를 만들고, 불교관련 영화와 다큐를 활용했다. 매월 개최한 찬불가와 유행가를 함께 부르는 합창법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1회 감천한마음축제’는 지역주민과 장병 120명이 함께 어울린 한마당이었다.

이주호 상병(1여단 보급대, 22)은 “예전 장병들 사이에 불교는 인기가 없었으나, 재미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불자들이 늘었습니다. 형같은 법사님과 모두 함께 법당에서 어울리다 돌아가면 생활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장병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부내내 종교인 조사에서 신도수가 우세하게 나왔을 정도라고 한 신도는 귀띔한다.

여정 법사는 “교회나 성당같이 엄청난 규모의 설비가 없어도 군장병들이 좋아할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장병들이 불교에 호감을 갖고, 제대 후 사찰을 다시 찾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죠”라고 말한다.

최근 다음카페와 공군 인트라넷을 통해서도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감천사. 젊은 군법당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전법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 작은 군법당 호국 감천사의 신행을 보면 군포교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희망차게 보인다.

YOU! 공군과 부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한다.

군종특별교구는 공군 최초 군종병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분기 3명으로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가능하다. 자격은 신행활동 5년 이상의 대한민국 청년으로 소속사찰 · 군종교구장 추천서가 필요하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국방부, “상무부대에 법당 마련”

이상희 국방부장관, 군종교구 대담서 밝혀

이전하는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에 교회만 신축하기로 해 불교계의 반발을 산 국방부가 군종특별교구와의 대담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당 마련을 약속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은 1월 14일 국방부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을 만나 논란이 됐던 상무 종교편향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다.

일면 스님은 “국군체육부대 시설 이전계획이 특정종교만의 시설 신축을 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종교형평성을 고려해 불교과 천주교 종교시설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를 모두 고려치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불교와 천주교 종교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향후 국방부 중장기 계획에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정종교 지휘관의 ‘예배 강요’와 교회건립 인력 · 예산전용 등 고질적인 군부대내 종교편향 해결을 위한 불교계의 관심과 대책이 절실하다. 노덕현 기자

자비나눔으로 희망과 행복을

조계종 교구본사 사회국장 회의서 발표

2009년 극심한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에게 부처님의 자비로 희망행복을 전하는 한마당이 펼쳐진다. 조계종 사회부(사회부장 세영)는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국교구본사 사회국장 신년회의’를 개최해 ‘자비나눔캠페인’과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등 사회기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교구본사 사회국장 스님 16명과 군종특별교구 대표 1명이 참석 했다.

자비나눔캠페인 ‘한끼나누기운동’은 조계사, 봉은사 등 각 주요사찰에서 쌀과 기부금을 모으며, 3월 27일 ‘자비의 탁발’을 봉행해 대국민 대중운동으로 확대된다. 4월 12일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108배 기도’가 전국사찰에서 봉행된다. 동지와 새해 첫날에는 동지팥죽, 떡국 나누기 행사도 열린다.

5월 2일 부처님 오신날까지는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달기’와 ‘자비연꽃 배지 달기 운동’이 펼쳐진다. 목표액은 20억으로 2008년 출범한 불교계 최초 전문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 창구역할을 맡아 진행한다.(개당 1000원, 02-2011-1596-7)

캠페인 이후에는 전국 87개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저소득 실직가정을 위한 템플스테이’도 열린다.

날로 증가하는 외국결혼여성과 다문화가정에 발맞춰 지원센터 개설 등 사회참여방안도 논의됐다. 전국80여개소로 2009년 신규 40개소를 포함해 국고보조금 48억 4400만원과 지방비 21억 5600만원이 지급되는 2009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참여를 당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종교편향대응활동으로 4 · 19 보궐선서 종교투표소 감시 및 교구본사 배너 게재 10 · 27법난 피해자 접수 설명이 진행됐으며, 6월 17일 충남 공주 전통불교문화원 봉행을 내용으로 하는 ‘교구본사 사회국장 워크샵’도 논의됐다. 노덕현 기자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승인, 갓바위도?

표충사·통도사 협의 조건부…환경단체 반발

10년간 논쟁이 되어 온 가지산 도립공원 내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끝내 조건부 승인됐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1998년부터 밀양시와 지역 기업체들이 추진했으나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좌절됐던 사업이다.

하지만 구랍 3월 밀양시가 다시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 동년 5월 사전 환경성 검토를 협의한데 이어 경남도립공원위원회(위원장 조윤명 행정부지사)가 1월 20일 회의에서 조건부 승인 한 것이다.

도립공원위원회는 이날 ‘환경훼손 방지 조치’를 하고, ‘표충사와 통도사 등 인근 사찰, 주민 등과 충분히 협의 할 것’의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통도사, 표충사, 환경단체,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39개 단체로 꾸려진 ‘국립 · 도립 · 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는 1월 20일 곧바로 성명을 내고 조건부 승인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케이블카반대전국대책위원회는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 승인은 우리 국토의 핵심보전공간에 가해진 비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팔공산 갓바위지구 케이블카 유치 추진위원회’는 대구시 공원녹지과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1월 7일 밝힌 바 있어 승인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덕현 기자





‘길 위의 만남’ 상생 해법을 논하다

도법 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담





매서운 경제 한파에 옷깃을 여미는 겨울의 중턱. 1월 17일 서울 성북동 소재 전통찻집 수연산방에서 특별한 지도자들의 만남이 진행됐다. 5년간 탁발순례를 통해 상생 · 평화의 법음을 전파해온 도법 스님과 생활시정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담이 마련된 것. 스님에게 길이란 구법(求法)이고, 서울시장에게 길이란 현장에서의 정책이다. 이주향 교수(수원대 인문대) 사회로 3시간 동안 진행된 대화 속에서 궁극이 만나는 선재의 길을 동행해봤다. 이날 대담은 IPTV-메가TV(CH505)에서 26일 오전 9시, BBS불교방송 라디오(FM101.9)에서 오후 6시 방송됐다.

#만남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경제위기 해법에 대해 도법 스님은 “삶의 방식을 재정리할 때 불안은 사라진다. 현장을 순례하면서 ‘경제만이 희망이다’라는 논리가 현장에 적용될지 짚어보니 불안은 정점에 치달았고, 기존의 경제 논리는 삶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없다는 실례가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경제만이 살 길 이라는 환상 논리에서 벗어나야한다. 농촌에는 사회적 파동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삶과 사회 문제에 대한 가치의식을 재정립하고 경제문제를 다룰 때 바람직한 답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책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약 23%가 올해 복지 예산이다.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을 향한 ‘희망드림프로젝트’와 ‘희망플러스통장’ 사업과 노숙자 자활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코스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공존

무한 경쟁으로 황폐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화두는 ‘공존’이다.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의 경>을 통해 너와 내가 운명공동체라고 말한다.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개개인에게 삶을 주체적 의지로 살고자 하는 의욕 확립 작업이 중요하다. 현대인은 이치에 무지하다. 경제가 삶의 관점에서 해답은 아니다.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해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가 그런 면에서는 진보하고 있다. 자선 모금액이 작년에 비해 오히려 늘었는데 기업의 목돈보다 개개인의 쌈짓돈이 모여서 만든 액수다. 스님이 말씀하신 신뢰나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회의 예고다. 정책자 입장에서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되도록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스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한 가족이라는 공동운명체적인 인식과 믿음이 필요하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에 매몰된 현대인은 삶을 모색하기 힘들다. 종교인과 지식인 등 사회 지도자들의 모범이 필요하다”고 말을 이었다.

#비움

세상이 어지러운 원인은 마음속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 때문이다. 욕심을 거둬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오 시장은 “과거 서울시는 ‘소리없는 아우성’이었다.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문화 예술에 맞춘 도시 계획이다. 그 목표가 ‘비워낸 다, 통합한다, 더불어 살 수 있는 디자인을 한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에 스님은 “비움이란 비우려고 해서 비워지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진실을 볼 때 비로소 우리가 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서울시가 그런 비움의 자세로 정책적 구상을 한다니 놀랍다. 시민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연, 이웃과 함께 공동운명체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각할 때 시장님이 희망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희망

인연의 고리를 잘 풀어가는 것, 결국 사람이 희망이다.

“희망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도법 스님의 말에 오 시장은 “창의시정의 목표는 ‘시민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전부 시민고객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함께 다시 일어서는 2009’를 모토로 국난극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시장님은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면 종교에서 추구하는 ‘자기완성과 사회완성의 실천’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는 확신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삶은 더 풍부해진다. 스스로 삶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당당한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가연숙 기자

2009년은 ‘포교역량결집의 해’

포교 · 신도단체 임원대회서 종책 공유 사업교류 다짐

포교 · 신도단체들이 올 한해를 ‘포교역량결집의 해’로 선포했다. 1월 17~18일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 주최 포교신도단체임원대회 참석자들은 2009년 포교원의 주요 종책을 공유하고 산하단체간의 사업교류를 다짐했다.

이번 포교대회에는 노현 스님(법주사 주지), 옹산 스님(수덕사 주지)을 비롯한 현직 포교원 소임을 맡은 스님과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포교사단 강홍원 단장 등 포교원 산하 40여 단체 및 회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1월 17~18일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포교신도단체임원대회에 참가한 40여 포교 · 신도 단체는 올 한해를 ‘포교역량결집의 해’로 선포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 모든 포교역량의 교류와 결집으로 불국토를 향한 새로운 포교의 도약”을 선언하고 “부처님이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듯 불교신자들은 지혜를 닦아 서로를 탁마하며 이웃을 위해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교원은 지난해 포교에 앞장선 류재환 전국병원불자회장, 이기흥 체육인불자회장, 양춘동 산악인불자회장, 파라미타, 교정인불자회, 수덕사 교구 신도회에 개인 및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포교원은 ‘포교는 희망입니다! 2009 포교역량결집의 해!’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포교원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포교원은 △8월 포교결집대회 봉행 등을 통한 포교역량 결집 △<어린이 청소년 포교총람>발간과 종단차원의 어린이 포교 전담기구 구성으로 어린이청소년 포교 3개년 사업완료 △종단 차원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핵심적 신도 발굴 양성 △선수행 대중화 인력양성과 포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세웠다.

이어 단체별 포교사업 발표를 통해 각 포교신도단체가 사업계획을 교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둘째 날 ‘포교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강에서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포교결집대회의 봉행, 1080명의 불자가 100만원씩 후원하는 포교후원기금마련, 전국불자중소상공인회 결성, <어린이불교입문>에 이어 <청소년불교입문>을 발간으로 포교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대불청 제25대 정웅정 회장 취임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제25대 회장 취임식이 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됐다.

신임 정웅정 회장(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2020년 통일한국 최대 청년조직 건설 목표에 걸맞게 자력 갱생의 노력 △‘청소년 재단’ ‘자원봉사센터’ ‘통일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에 공헌 △(사)만해리더십센터를 설립해 불교정신과 청년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마련 △불교에 대한 정치적 차별과 억압에 대처를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화 스님(조계종 교육원장), 혜총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장), 원희룡 국회의원(한나라당), 최문순 국회의원(민주당 연등회장)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상언 기자

대구 동화사 ‘선’체험관 조성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에 선을 직접 체험 · 수련할 수 있는 4628㎡ 규모의 선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동화사는 1월 22일 대구 동구청(구청장 이재만)과 ‘국제관광선원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관광선원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사업비 110억원(국가지원 50억원, 대구시 지원 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의료원 ‘2009 환우들과 함께하는 설날 한마당’

법등회, 1월 17일 라파엘 윌빙센터 로비서 행사

대구의료원 불교신행단체 법등회(회장 박진희)가 1월 17일 명절 설을 앞두고 병원 입원환자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의료원 라파엘 윌빙센터 로비에서 열린 행사에는 현악4중주, 마술,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환자를 위로하고 희망을 전했다. 또 법등회는 병원 발전에 힘쓴 이동구 대구의료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대구의료원 법당에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과 현관 스님(동화사 부주지), 정법 스님(법등회 지도법사), 이홍근 신부(천주교 대구 대교구)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신행게시판

●**김천 선정사 ‘선정산매수행’**=미얀마 수행처 선방일기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저자인 정명 스님이 지도하는 선정삼매수행이 2월 13~17일 김천 성전사에서 열린다. 아나빠나사띠(호흡관찰명상)를 이용하여 색계선정에 드는 방법을 익히고 매일 저녁법문을 통해 초기불교수행법을 듣는다. 참가비는 자율보시이며 선착순 8명 접수. (054)434-9090

●**아행요가센터, 서울·대구 요가무료공개강의**=(사)아행가요가협회는 2월 7일 오후 2시 서울 아행가요가센터에서, 2월 8일 오후 2시 대구 본원에서 아행가 요가 무료 공개 강의 및 출판 시사회를 실시한다. 한편 2월 12~15일 비구스님, 2월 15~18일 비구니스님을 대상으로 대구 청량선원에서 요가 특강을 진행한다. 참가비는 7만원. (053)981-3553 www.iyengar.co.kr

●**강화 연등국제선원 · 서래선원 철야법회**=강화 연등국제선원은 매월 1째주 토요일 3천배 기도를, 2째주 토요일 서래선원에서 철야참선 용맹정진 법회를 봉행한다. 매월 4째주 월~금요일은 서래선원에서 염화미소 참선프로그램, 4째주 토요일 고경선방에서 능엄주 독송과 아비라 기도를 진행한다. (032) 937-7033

황우석 박사에 대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성명서

하나. 우리 ‘총동림동문회’는 2006년 1월 10일 서울대조사위의 발표를 부정한다.

2006년 1월 10일 서울대조사위의 정명희 교수는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황우석 박사의 1번줄기세포를 보고서와 달리 처녀생식으로 발표하고 황우석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시키는 절차를 밟는다.
이는 곧 황우석의 원천기술은 처음부터 존재치 않으며 사기꾼으로 몰아 세계 생명공학계에서 생매장을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수가 있다고 본다.
이후 정명희 교수는 그 발표가 잘못되었다고 추적60분 가제 ‘세튼은 특허를 노렸나?’ 편에 인터뷰를 하게 되지만 그 역시 방송불발로 국민의 알권리는 음지로 묻히게 된다.
2009년 1월 현재까지 황우석의 공판은 벌써 31차까지 진행이 되고 이 31차 공판에 정명희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 출두해야 하지만 정명희 교수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를 무시하여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이에 담당 판사는 32차 공판에 정명희 교수를 강제구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명희 교수는 1번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라고 조작발표한 사실이 두려워 법원 출두명령을 무시한듯 싶다.
정명희 교수는 법원에 출두하여 진실을 밝히고 국가와 국민 앞에 그 잘못을 시인하고 석고대죄해야 할것이다.

둘.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박사의 국내연구를 하루 속히 재개시켜줘야 한다.

2008년 8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건복지부에 황우석 박사의 국내연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의견에 따라 황우석 박사의 국내연구 승인을 불허하고 만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의 성향은 일부 종교의 편향적인 시각에 그 포커스가 맞아있다고 볼 수 있다.
체세포핵이식 과정 자체가 그들이 믿는 신적존재의 절대권능에 대한 도전이라는 관점으로 보고있기 때문인 것이다.
가톨릭이 국교인 스페인은 현재 막대한 연구자금을 투입하여 이 체세포핵이식을 이용한 줄기세포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연구가 신에 대한 도전이라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자체를 포기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일정의 연구성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향후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연구이고 이 줄기세포연구를 세계시장에서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정에 재판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불허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의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서둘러 황우석 박사의 국내연구를 승인하고 국익수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 검찰은 이 소모성 재판을 그만두고 황우석 박사를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하라.

2006년 6월 20일 시작된 황우석 박사의 공판은 햇수로 4년을 끌며 이제 32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처음 황우석 박사가 사라진 줄기세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검찰은 역으로 황우석 박사를 공금횡령과 사기혐의로 기소를 한다.
이미 법정에서 밝혀진 내용중에 농협과 SK의 후원금은 자발적인 단순한 후원금으로 증인 증언까지 끝났으며 공금횡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
그리고 이제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와 그 원천기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검사측은 다시 황우석 박사를 사기꾼 과학자로 몰기 위해 수만은 증인들을 불러 법정에 세우지만 그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은 한결같이 황우석 박사의 원천기술을 인정하거나, 황우석 박사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돌아가는 꼴이 되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 위원장이었던 정명희 교수만 해도 법원출두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만 봐도 다분히 그 속내를 짐작할 만한 것이다.
이에 검찰측은 더 이상의 이 황당한 재판을 그만두고 대한민국의 보배 황우석 박사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바이다.

넷. nt-1 줄기세포를 재검증하여 국내연구 승인을 촉구하는 바이다.

충북대 정의배 교수는 “RT-PCR 검사, 리얼타임-PCR 검사, 메틸레이션 검사 결과 줄기세포 NT-1은 핵이식에 의하여 수립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100% 확실하다”고 입장을 밝혔고 또 뉴욕의대의 박연준 박사는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NT-1은 처녀생식이 아닐 확률 120%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황우석박사의 시체를 딛고 모두 대한민국의 황우석 박사의 프로토콜로 연구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사기꾼으로 죽이고 있습니다”하며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KBS의 추적60분 문형렬 피디는 방송되지 못한 추적60분에서 ‘부계유전자 발현’이면 ‘줄기세포가 맞다’며 그간 취재과정에서 얻은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nt-1의 진실을 알리고 있다.
그렇다면 nt-1이 처녀생식이고 우연한 결과물이기에 황우석 박사의 원천기술을 부인하려는 자들에게 그 망상같은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국제컨소시엄으로 nt-1을 재검증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대는 nt-1의 재검증을 통해 황우석 박사의 국내연구를 조속히 승인하고 국제특허를 교부받아 국익수호에 대한 노력을 ‘총동림동문회’는 사부대중과 더불어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월 21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일동

"진여당체에 마음 두고 쉼 없는 정진 통해 禪 이뤄"

8 생활 속의 염불선수행
덕산 스님(청주 혜은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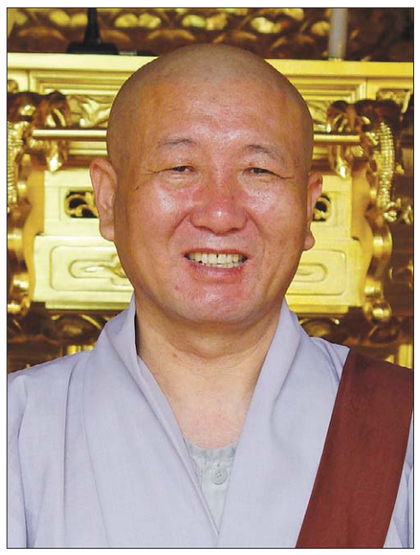
"만약 누구나 일념(一念)을 내지 않으면 전후가 끊어져 자성미타(自性彌陀)가 홀로 드러나고 자심정토(自心淨土)가 앞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은 곧 돈오(頓悟), 돈수(頓修), 돈단(頓斷), 돈증(頓證)이기에 지위가 없는 것이다."〈청허집〉

서산 대사는 〈심법요초〉에서 "참선이 곧 염불이요, 염불이 곧 참선"이라며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시는가? 생각이 다해 생각 없는 곳에 이르면, 여섯 문은 언제나 자금광(紫金光)을 발하리라"라는 게송을 읊은 바 있다.

보통 참선 수행자들은 염불을 경시하기 쉬운데, 영명연수 선사는 "참선과 염불을 함께 닦으면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라고 했다. 태고보우 스님과 서산 대사를 비롯한 역대 선지식들은 참선과 더불어 자성염불의 공덕을 강조하며, 염불을 권장하기도 했다. 물론 선사들은 서방정토와 유심정토가 둘이 아닌 자성미타(自性彌陀)를 말했다. 우리의 자성, 즉 진여당체(眞如當體)를 여의지 않는 염불이 될 때 염불이 바로 선이 되는 도리를 밝힌 것이다. 때문에 중국 허운 대사는 염불선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법한 것은 물론, '염불하는 것은 누구인가(念佛是誰?)' 라는 공안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청화 스님(1924~2003)이 생존해 계시던 때 일었던 염불선 붐이 다소 약화된 상황이지만, 요즘도 염불선 수행열기는 여전하다. 염불 관련 서적도 꾸준히 출간되고 있으며, 관련 온라인카페 활동도 활발하다. 지난 해부터 前 조계종 교육원장 원산 스님(백련정사)이 염불만일 결사에 들어가는 등 다시금 염불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수행에 대한 재가 불자들의 높아진 열망에도 불구하고 선(禪)을 직접 체험하기가 어렵다보니, 많은 불자들이 염불을 통해 선을 체험하는 염불선에 눈길을 돌린다는 분석이다.

청화 스님으로부터 염불선을 배워 실참한 체험을 바탕으로 〈염불선〉(클리어마인드 刊)을 펴내 공부법을 전하고 있는 덕산 스님(혜은사 주지)으로부터 염불선의 원리와 수행법을 들어보았다.


청주 혜은사 주지 덕산 스님.

–염불과 염불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한다' 는 뜻이지만, 만약 부처님이 어디에 따로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외도의 수행법입니다. 본래 나의 '생각이전의 자리' 가 부처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본래자리가 우주의 진여당체인 것입니다. 즉 생각이전의 자리를 관하며 염불하는 그 당체를 여의지 않고 아미타불이나 관세음 · 지장보살과 여타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는 것이 염불선입니다. 주력이나 간경 또한 마땅히 진여당체를 여의지 않는 정진이 돼야 합니다.

–정토관(淨土觀)에 따라 염불과 염불선이 그 성격을 달리하면서 자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토를 보는 입장이 '서방정토(西方淨土)' 와 '유심정토(唯心淨土)' 로 나뉘면서 파생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자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은 무엇인지요?

서방정토인 극락세계 또한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극락세계 역시 구경성불을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는 곳이지 특별한 곳은 아닙니다. '삼계가 오직 마음(三界唯心)' 이기에, 극락이 서방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이며, 이 우주가 본래 부처입니다. 우주는 생명, 즉 우리 본래의 마음입니다. 둘이 아닌 하나의 도리에서 그대로 부처 세계입니다.

–기존의 염불 및 간화선 수행에 비해 염불선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의 정토염불로는 자성을 깨닫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간화선에서 '무(無)자' 나 '이뭣고?' 화두를 들어도 의심이 잘 되지 않아 득력(得力)하는 것이 무척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염불정근으로 업을 녹이며 공부의 묘미를 느낀 후 '염불하는 이놈이 무엇인가(念佛者是誰)?' 하는 의심을 챙기면 훨씬 수월하게 득력할 수 있습니다. 염불(주력)하는 그 놈을 의심하면 조사선과 다르지 않은 대신, 기존 간화선 보다 빨리 화두 의심에 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두에 의심이 잘 들지 않는 참선 수행자들이 염불선을 닦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염불선의 핵심 요체와 구체적인 행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수행으로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대단한 발심이 아니면 참으로 힘듭니다. 죽음 직전의 막다른 골목에서 비로소 발심이 가능한데, 간절한 발심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하는 절박한 심정이 아니면 힘찬 정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힘든 고비를 넘기고 정진에 대한 확신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염불정근에 대한 새로운 원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본래 부처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오던 정토염불이 아닌, 내 안의 부처님을 마음에 두고 염불해야 합니다. '아미타불' 또는 '지장', '관음' 을 입을 움직이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염하되 우주의 주인인 '염불하는 그 놈' 에 마음을 두고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여당체에 마음을 두고 마음으로 아주 빠르게 끊어지지 않고 쉼 없는 정진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염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잠자리에 아주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눈을 지그시 감고 빠른 속도로 속으로 정진하면 스스로 삼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염불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매일여가 돼야 합니까?

오매일여(寤寐一如)란 진여당체에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밥을 먹거나 무엇을 하나 끊임없이 놓치지 않도록 해야만 득력하고 정진력이 생기며 오매일여가 가능하죠. 육신은 무시이래 편안한 것을 찾아왔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들어도 뒤로 미루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를 철저하게 물리쳐야만 해요. 하루 이틀, 아니 끊임없는 정진으로 오매일여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바른 수행의 길이 보일 겁니다.

오매일여가 처음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천정과 사방 벽에 '오매일여' 나 '용맹정진' 과 같은 글자를 붙여두고 마음을 다잡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런 용맹심으로 정진하다 보면 삼매를 얻고, 마침내 우주만유와 둘이 아닌 진여자성과 계합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육조 스님이 강조한 일상삼매(一相三昧)와 일행삼매(一行三昧)는 본래 염불수행에서 유래된 것으로 압니다.

삼매를 통해 유와 무를 떠난 자리, 나의 본래자리, 생각 이전의 자리, 선(禪)이자 부처자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 진여당체는 시 · 공간을 떠난 자리로서 역대 불 · 조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자리이며 산천초목 삼라만상의 본래자리입니다.

일상삼매란 천지 우주를 오로지 하나의 부처로 보는 이른바 실상관(實相觀)입니다. 모든 존재의 뿌리를, 모든 존재를 하나로, 진공묘유(眞空妙有)로, 아미타불의 무량광명(無量光明)으로 보는 삼매입니다. 그리고 천지우주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그런 견해를 끊어짐 없이, 앞생각 뒷생각에 잡생각이 안 끼이도록 염불하거나 화두를 들고 염념상속(念念相續)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행삼매입니다.

염불정진 할 때 평상시에 하듯 느리게 하거나, 소리 내서 한다면 이러한 삼매를 얻기 힘듭니다. 진여당체에 마음을 두고 마음속으로 아주 빠르게 끊어지지 않는 쉼 없는 정진을 통해서 삼매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가령 관세음보살은 '관음! 관음!' 이라고 (아미타불은 '아미타', 지장보살은 '지장' 등으로) 줄여서 마음속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염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스스로 번뇌가 끊어짐을 경험하게 되며, 바로 그 순간 '수행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보면, 스스로 법미(法味)를 맛볼 수 있게 돼 수행력을 얻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염불하는 자성을 깨닫게 됩니다.

–본래의 진여당체가 드러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진여당체가 드러나면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반야가 열리게 됩니다. 경전과 선어록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지혜가 열려야 보살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나의 참모습을 보았더라도 곧바로 늘 당체와 하나가 되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500생 동안 보살행을 닦았듯이, 내 본래자리를 확인한 뒤에는 의심이 끊어진 자리에서 익혀온 습을 녹이는 보임(保任)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염불선은 바쁜 재가자에게 적합한 수행법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진하면 좋을까요.

염불은 근본 진여당체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맑은 파장입니다. 특히 삼매경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무거운 업도 맑힐 수 있는 파장입니다. 그러나 삼매에 들지 않더라도 염불자체가 맑은 파장이기 때문에 계속하면 업이 점점 맑혀져서 결국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본래 진여당체가 드러나면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만약 염불선을 바르게 한다면 업을 맑히는 속도는 매우 빠르고 결국 우주와 하나가 되는 열반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불에 익숙해진 염불행자는 조금도 자기의 본래 진여당체를 의심하지 말고 부단한 정진을 통해서 선(禪)을 이뤄야 합니다. 일반 재가자 또한 가정에서 염불선을 바르게 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업을 맑히고 가정을 맑히며 세상을 맑히고 우주를 맑히는 일이 될 것이며, 나아가서 우주와 하나가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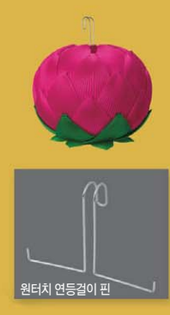
'염불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의심 챙기면 수월하게 득력
나의 본래 진여당체 드러나면 실상 바라보는 지혜 열려


모든 불교신행의 기초인 염불. 염불하는 자성을 깨달으면 참선과 다름 없는 수행법이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SMD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40cm,50cm,
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卍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이웃 종교 RELIGION

‘인터콥’ 여행제한국 ‘공격적 선교’

개신교 봉사단체 다케스탄 입국 두고 ‘논란’

개신교 봉사단체 ‘인터콥’이 정부가 여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국가로 봉사활동 및 단기선교 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가 모스크바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목사와 신자로 구성된 인터콥 일행 44명이 다케스탄으로 들어갔으며, 이를 안 우리 외무부에서 즉각 위험지역을 벗어나라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케스탄 공화국은 작년 10월 이슬람 반군의 공격으로 러시아 경찰 10여 명이 죽거나 다치는 등 지난 수년간 테러와 폭력이 반발해 여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연합뉴스는 “인터콥 관계자는 정부의 경고 공문을 받고 이들이 18일 현지를 떠나 현재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고 조만간 귀국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개신교계 인터넷 뉴스사이트 ‘뉴스앤조이’는 17일 목회자와 신도 44명의 다게스탄 공화국 입국에 관해 ‘인터콥, 공격적 선교 또 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과거 샘물교회 봉사단 사건을 결부시키는 듯한 발언인 ‘공격적 선교’라는 어휘 선택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공격적 선교’인지 ‘선교와 관련한 편견’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ID ‘조로아스터’는 “다른 이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으면서 공격적 선교가 아니라는 말인가?”라며 인터콥의 러시아 방문을 비판했고, ID ‘yb’는 “1992년부터 매년 여름, 겨울마다 무사히 잘 다녔던 다케스탄 공화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과 옹호의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이나은 기자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등이 교파를 초월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1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약 2000여 기독교인이 모여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가졌다.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이란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해 해마다 1월 18~25일 가톨릭 로마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회(WCC)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WCC가 정한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의 해’로, ‘일치기도주간’에는 한국 기독교계가 준비한 공동 기도문이 전 세계에서 사용된다. 공동 기도문은 기독교 구약 성경의 삼대 예언서 가운데 한 권인 <에스겔서>의 ‘네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라는 말씀을 주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국가 간 분쟁과 분열의 극복, 경제위기의 타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창립 400주년 예수수도회

‘예수수도회’가 창립 400주년을 맞아 1월 30일 대전 가톨릭 대흥동성당에서 기념미사를 연다.

이날 기념미사에는 예수수도회 소속 수녀 200여 명과 신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예수수도회는 1609년 프랑스 생 오메르 지방에서 영국 출신 메리워드(1585~1645)가 창설했다. 로마 등 유럽 곳곳에 최초로 현대식 교육과정 학교를 세웠으며 어린이와 젊은 여성들을 사회인으로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 현재도 각종 교육시설과 기관에서 활동하며 장애인 등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한 자선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한국 예수수도회는 1964년 다섯 명의 한국수녀와 두 명의 독일 수녀, 타라시아 관구장 등으로 시작됐다. 1964년 8월 수녀원 완공과 함께 여섯 명의 지원자가 입회했으며, 1966년 11명의 수녀가 처음으로 착복식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이나은 기자

마음공부회 설립 원불교 본격활동

원불교는 교단의 화두였던 ‘마음공부의 사회화’를 위해 구랍 17일 ‘(사)마음공부회’ 법인을 설립해 활동을 본격화했다.

‘마음공부’는 원불교를 특징짓는 중요한 수행법으로 교화훈련부서에서는 법인 설립을 위해 마음공부의 개념과 정체성, 그리고 실천 방법에 대한 내용을 몇 차례에 걸친 연구를 통해 정리해왔다.

마음공부회는 앞으로 △마음공부 지도자 양성 △학교 수련회 유치 및 동아리 개설 △마음공부 교재 개발 △마음공부 센터 마련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마음공부는 대내외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곳곳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반 교도들을 비롯해 청소년, 가정 및 교육현장과 일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시도해왔다. 특히 이 프로그램들은 도덕성 회복 및 발달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받으면서 현재 사회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나은 기자

“아이들과 같이 만드니 보람있어요”

미래에셋봉사단 승가원서 떡국잔치

2007년 펀드 열풍을 주도하며 펀드업계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미래에셋(회장 박현주)은 지난해 수난시대를 겪었다. 순식간에 시중자금 4조원 이상을 끌어 모으며 펀드투자 문화를 확산시킨 장본인이었지만 증시 폭락으로 펀드 수익률의 급격한 하락을 피하지 못해, 투자자들의 비난과 잇따른 소송에 시달려 왔다. 이런 가운데 평소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고, 불자로 알려진 박현주 회장의 ‘미래에셋봉사단’이 고객의 신뢰회복과 희망을 다지기 위해 1월 17일 승가원 장애아동시설(관장 동옥)을 방문해 설날맞이 ‘떡국잔치’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서 미래에셋 임직원 30여 명은 가족들과 설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뇌병변 · 지적장애아동들과 함께 명절분위기를 만끽했다.

봉사단원들은 시설을 둘러 본 후 시설 어린이들과 짝을 짓고 각자 맡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만든 요리는 떡국, 갈비찜, 주먹밥, 산적 등. 어린이들은 “아빠, 오빠, 엄마~”라고 자신의 짝을 부르며 열심히 꼬치를 끼우고, 갈비찜 양념을 만들고, 주먹밥을 만드는 등 재미있게 요리했다.

동옥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요리를 만드며 보고, 느끼고 ‘불이 뜨겁구나’라고 알게 하는 등 지각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취지를 밝히며 “주먹밥만 들기는 뇌병변장애아동들에게는 좋은 운동이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인지, 지각발달에 도움 되는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 자원봉사단은 1월 17일 승가원 아동복지시설(관장 동옥)에 방문해 시설어린이들과 음식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원봉사를 주도한 미래에셋봉사단장 이계원 상무(사회공헌실)는 “승가원과 작년 결연을 맺고 처음으로 참여한 활동인데 굉장히 보람있고 좋았다”며 “애정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 활동적이고 밝은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도 자주 방문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지은 어린이와 짝을 이룬 정남선 팀장(사회공헌실)은 “처음에는 걱정이 됐는데 아이들이 너무 밝아서 즐겁고 좋았다”며 “미래에셋의 사회목적사업진행에 이번 경험 등이 토대가 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산하 58개 봉사단이 계속 돌아가면서 꾸준히 봉사하며 사회에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국내 첫 실버영화관 개관

서울노인복지센터 주관으로 하루 3번 상영

국내 최초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영화관’이 문을 열었다.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이에 비례한 노인들의 문화욕구에 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가 1월 21일 개관식을 가졌다.



서울시와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는 국내 최초 노인전용 영화관 ‘실버영화관’을 종로에 열었다.

서울시 주최, SK 케미칼 후원,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이 영화관은 종로구 낙원동의 허리우드 클래식 시네마(구 허리우드극장)에서 300석 규모로 마련됐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 30분, 2시 30분 상영한다.

이날 개관식에는 일문 스님, 라진구 서울시 부시장, 이인섭 SK케미컬 대표이사, 김충용 종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일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제1회 서울노인영화제를 개최하며 어르신 전용극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 있었다”며 “어르신들의 추억이 젖어있는 종로에 개관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라진구 부시장은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을 즐겁고 신나게 만들기 위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버영화관은 57세 이상 어르신들이 2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노인과 관련된 영화나 추억의 영화 등을 상영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11년째 쌀 나누기 ‘훈훈’

좀도리모금쌀 나누기

1월 21일 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김헌백)는 서울 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 ‘좀도리 운동’을 통해 모은 쌀 400포대를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공동대표 대오 스님 등 4인)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대오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승경 대표(새마을금고연합회)등 1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대오 스님은 “매해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하게 모금활동을 펼쳐 쌀을 지원해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감사하다”며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사회의 품을 느끼며 희망을 갖고 살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사랑의 좀도리모금쌀 나누기’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가 11년째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이날 전달된 쌀은 서구노인복지관, 거창군 삶의 쉼터 등 재단 산하시설 6곳에 제공된다.

이나은 기자

행복나눔 청소년 스키캠프 열려

먹거리나누기운동협서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공동대표 대오 스님 등 4인)는 SK텔레콤의 후원으로 1월 15~16일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행복나눔 청소년 스키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빈곤가정과 농촌지역의 소외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숙한 인격형성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주기위해 마련됐다.

SK텔레콤수도권마케팅본부(본부장 김형근)는 “수도권의 빈곤가정과 문화혜택에서 소외돼 있는 지방의 빈곤 소외 아동 및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 및 레포츠 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부터 매년 1월 4년째 행복나눔 스키캠프를 지원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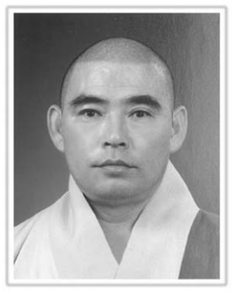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임산부 무통분만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HTTP://WWW.JIJANGSA24.ORG
지 장 사 현오 합장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숙식가능

"문헌사 · 백제 서체 연구에 큰 획"

미륵사지 사리장엄 출토… 백제문화 연구 새 지평 열릴 것

1면에서 계속



익산 미륵사지석탑 보수공사 중 발견된 금제사리호(오른쪽)와 금제사리봉안기.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서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에 버금가는 국보급 금제사리구가 출토됐다. 지금까지는 백제 사리구로는 충남 부여 왕흥사지 사리장엄구(2007년 10월 출토)가 유일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 이하 연구소)가 1월 19일 설명회를 개최한 익산 미륵사지 현장에는 취재진은 물론 학계,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몰리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금제사리호와 금제사리봉안기, 은제관식 등 500여 점에 달하는 유물들은 주로 석탑 1층 심주 상면 중앙 사리공에서 14일 발견됐다.

작은 병에 보주형 뚜껑이 덮힌 금제사리호(높이 13㎝, 어깨 폭 7.7㎝)는 사리장엄의 핵심으로 사리공 중앙에 모셔져 있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금제사리호를 X선 내부 투시한 결과 내외합의 이중구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제사리봉안기(가로 15.5㎝, 세로 10.5㎝)는 주죌로 글씨가 선명히 드러나 있다. 김상현 교수(동국대) 해석 결과, 백제 왕후가 재물을 희사해 익산 미륵사를 창건하고 기해년(己亥年, 639년)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내용이었다.

김상현 교수(동국대)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은 "발견된 금제사리봉안기에는 미륵사의 창건목적과 시주(施主), 석탑의 건립연대 등이 정확히 밝혀져 있다"면서 "문헌사 연구의 부족함을 보완할 금석문 자료인 동시에 백제시대 서체(書體) 연구에도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유물"이라고 말했다.

발견된 사리장엄은 다른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종류가 일괄로 출토됐다. 특히 정교하고 세련된 가공수법은 백제금속공예의 우수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국보급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국보급 유물로 평가된다.

이건무 청장은 "이번 사리장엄 발견으로 미륵사 창건에 관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기록의 정확성이 입증됐고 백제석탑의 사리봉안 기법과 의례를 새로이 밝힐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번 조사는 무녕왕릉 발굴과 능산리 금동대향로 조사 이래 백제지역 최대의 고고학적 성과로 판단된다"며 "백제문화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수습된 유물에 대해 보존처리 후 심층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관심 있는 연구자와 일반인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한국불교전서 번역에 진력할 터"

한국불서 영역 대작불사 하는 찰스 뮐러 교수



"무(無)자 화두를 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운전 중이었는데 무엇인가가 느껴졌습니다. 즉시 차를 세워 잔디를 내려다 봤습니다. 잔디는 너무나 선명한 녹색이었고…. 잔디와 내가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무문관>을 읽는데 술술 읽히며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불교 전적을 한글과 영어로 옮기는 대작불사에 참여중인 찰스 뮐러 교수(56 · 일본 동경대 · 사진)는 자신의 선체험을 설명했다. 뮐러 교수는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위원장 지관, 이하 간행위) '원효 팀'에서 영역화 작업 중인 학자. 원효 팀 뿐 아니라 간행위 영역작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찰스 뮐러 교수의 수행담은 불교학자도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듯 하다.

뮐러 교수의 집안은 종교가 없었다. 물리학자인 부친 밑에서 자란 그는 동양사상과 종교에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됐다. 18세에 인도 요가, 명상을 배우러 명상센터를 다니다가 의과대학을 관두고 10여 년 동안 동양사상을 쫓아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수행했다. 만행(?)을 하던 뮐러 교수는 27세에 미국 스토니브룩 주립대에서 성철 스님 제자이자 재미 불교학자인 박성배 교수를 만났다. 그로부터 원효사상 등을 배우며 한국불교에 심취했다. 찰스 뮐러 교수는 "한국불교는 통불교"라고 말했다. "원효와 기화는 완벽한 열린 인식(Open-minded)의 소유자"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국불교에 대한 그의 열정은 조선 초기의 기화(己和) 선사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만 봐도 짐작된다.

찰스 뮐러 교수는 20여 년을 한결 같이 매일 20분 이상 참선 수행을 한다. 경전을 보다 한문이 막힐 때면 책을 덮고 참선을 해왔다. 뮐러 교수는 "간행위의 번역사업도 수행의 한 과정으로 생각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번역 작업 중 막힐 때나 팀원들끼리 의견이 분분할 때면 서로 토론을 통해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간행위가 도입한 다자간 시스템 번역의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뮐러 교수의 간행위 작업 중 '원효 편' 작업은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영역 전문가가 희소한 까닭에 다른 팀의 번역에도 참여해야 한다. 그는 "후학을 위한 한문-영어 사전편찬 작업 등으로 빡빡한 스케줄이지만 모두 수행인 까닭에 힘들지 않다"고 말했다. 뮐러 교수는 "한마음(一心)으로 원융회통 했던 원효 대사의 저서를 비롯해 한국불교전서 간행에 미력하나마 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간행위는 1월 17~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차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본지 1월 14일자 보도 참조)

이나은 기자

금제사리봉안기 해석본

가만히 생각하건데, 法王(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의) 근기(根機)에 따라 감응(感應)하시고, (중생들의) 바람에 맞추어 몸을 드러내심은 물속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왕궁(王宮)에 태어나셔서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면서 8곡(斛)의 사리(舍利)를 남겨 3000 대천세계를 이익되게 하셨다. (그러니) 마침내 오색(五色)으로 빛나는 사리(舍利)를 7번 요잡(오른쪽으로 돌면서 경의를 표함)하면 그 신통변화는 불가사의 할 것이다.

나 백제 왕후는 좌평(佐平) 沙乇(宅)積德의 딸로 지극히 오랜 세월[曠劫]에 선인(善因)을 심어 금생에 뛰어난 과보[勝報]를 받아 만민(萬民)을 어루만져 기르고 불교[三寶]의 동량(棟梁)이 됐기에 능히 정재(淨財)를 희사해 가람(伽藍)을 세우고, 기해년(己亥年) 정월 29일에 사리(舍利)를 받들어 맞이했다.

원하옵나니, 세세토록 공양하고 영원토록 다함이 없어서 이 선근(善根)을 자량(資糧)으로 하여 대왕폐하(大王陛下)의 수명은 산악과 같이 견고하고 치세[寶曆]는 천지와 함께 영구하여, 위로는 정법(正法)을 넓히고 아래로는 창생(蒼生)을 교화하게 하소서.

또 원하옵나니, 나 왕후(王后)의 신심(身心)이 수경(水鏡)과 같아 법계(法界)를 비추어 항상 밝히며, 금강 같은 몸은 허공과 나란히 불멸(不滅)해 칠세(七世)의 구원(久遠)까지도 함께 복리(福利)를 입게 하고, 모든 중생들 함께 불도 이루게 하소서.

번역: 김상현 교수(동국대)

'명상, 이뭣고?' 불교학硏 워크숍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2월 14~15일 마곡사에서 '명상, 이뭣고?'를 주제로 겨울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는 위빠사나와 간화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위빠사나는 김재성 선임연구원(조계종 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성오 스님(홍원사 주지), 일묵 스님(수행공동체 제따와나), 김열권 법사(위빠사나 지도자), 안병남 박사(인도 델리대)가, 간화선은 미산 스님(중앙승가대)을 비롯해 월암 스님(벽송선원장), 무각 스님(공생선원장), 박영재 교수(서강대), 혜봉 원장(밝은세상)이 발표한다. 14일 9시 조계사 앞 버스 출발. 회비 회원 3만원, 비회원 4만원. 010-5501-5589(이종수 총무간사)

조동섭 기자

문화유산에 대한 감정적 접근은 이제 그만!

유네스코 한국위 허권 정책본부장



"문화유산을 낭만적으로 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외교 · 정치력을 겨루는 시대입니다. 영화 '적벽대전'처럼 각국이 문화유산을 콘텐츠화하는 등 고도의 계산속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었다. 하지만 관심이 감정적 접근에 치우쳤을 뿐 문화재에 대한 진지함은 여전히 결여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의 세계적 흐름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관련 국내 정책 전문가인 허권 정책본부장(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사진)은 1월 17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제128회 우리문화사랑방에서 '세계문화유산 보존의 국제적 흐름'을 주제로 특강했다.

허 본부장은 "1990년대 이후 아랍과 서방의 대립으로 문화재 파괴가 잇따라, 문화재를 공존 · 상생의 시각에서 접근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문화유산 감상의 단계를 넘어 문화외교의 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은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1972년)에 따라 지정된다. 신청부터 지정까지는 3~5년이 소요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세계문화(및 자연)유산을 비롯해 세계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인간과 생물권(Man and the Biosphere: MAB) 등 크게 네 가지다. 한국에는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을 비롯해 8점(7개 문화유산과 1개 자연유산)이 지정됐다.

문화유산 지정의 조건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로 △진정성 △유산보존관리 능력 △지역사회 참여 △모니터링 수행능력 △비교연구 등을 심사한다. 허 본부장은 "대개 2~3개 선정기준에 집중한다. 특히 진정성은 (문화재와 달리) 원형이 아닌 완전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허권 본부장은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적인 세계문화유산 등재 붐이 일었다"며 "서유럽 중심의 문화선진국들의 등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이 100개 이상의 후보리스트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유산을 통한 열린 역사 문화교육도 강조됐다. 허 본부장은 "학예사가 일방적으로 역사유산을 교육하는 방식의 단순한 역사적 관점을 넘어 문화유산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권 본부장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 인프라의 양적 증대를 추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내 문화정책이었다"며 "이제는 예술가, 학자 등 전문가 중심이 아닌 시민사회 중심의 다문화정책으로 탈바꿈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제 6교구본사

마 곡 사

충남 전법포교의 중심 마곡사!
중생교화와 전법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정진하겠습니다.

마곡사 사부대중 일동

주소 : 충남 공주군 사곡면 운암리 507 / 전화 : 041)841-6221

일주문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미얀마 방문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1월 16~23일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미얀마를 방문해 이라와디 주재 대사를 만나 학교건립계획을 확정했다.



법등 스님 경불련 상임대표로

조계종 호계원장 법등 스님은 1월 15일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2008 정기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설맞이 쌀 전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화 스님은 1월 20일 복지관에서 300여 어르신에게 무료대중공양하고, 110여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쌀 2150㎏을 전달했다.



대전서구노인복지센터 설 위문

대전 서구노인복지관노인복지센터 관장 장곡 스님은 독거어르신 및 재가어르신 88가구에 직접 방문해 위문품과 '설맞이' 명절특식을 선물했다.



보림 스님 안산사암련 신임회장에

보문선원 주지 보림 스님(조계종 호법부 조사국장)은 1월 11일 경기 안산불교사암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성북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 봉사

성북장애인복지관장 현관 스님은 3~11월 매주 화 오전 10시 뇌병변 · 지체아동을 위한 놀이활동 '친구야~나랑 놀자'를 진행한다. (02)915-9200



한국불교법사대학 신입생 모집

한국불교법사대학장 지일 스님은 2월 25일까지 200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02)720-1836



법사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 목정배 교수는 2월 28일까지 법사원불교대학 200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02)2254-1671



교불련 최용춘 회장 조계종 예방

전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최용춘 교수는 1월 21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기축년 교육포교 의지를 다졌다.

이전 불교전문 계간지 <불교평론>과 격월 시전문지 <유심>은 1월 20일 강남구 신사동 512-9번지 MG타워빌딩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9-5781, FAX (02)739-5782

"외국인에 차별 없는 열린 시각 갖기를…"

(사)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보선 스님

"한국은 100만이 넘는 외국인들과 공존해 사는 다문화사회가 됐습니다. 주변의 외국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선진국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구랍 4일 출범한 (사)한국다문화센터의 공동대표로 보선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 대흥사 회주)이 1월 14일 선출됐다. 정치와 종교를 초월한 다문화가정 지원 단체에 불교계 인사가 대표를 맡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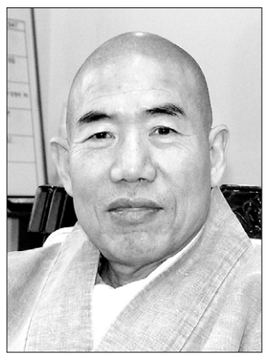
보선 스님은 "한국의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 불교국가에서 왔다"며 "불자들이 문화 · 종교 ·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만큼 불교계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선 스님의 재한외국인에 대한 관심은 한국다문화센터 출범 이전부터 각별했다. 스님은 하와이 무량사에 머물 당시 한국과는 다른 미국인들의 열린 시각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은 한국에 가길 원치 않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처럼 자유롭고 편한 나라에 사는데 왜 굳이 외국인 차별이 심한 한국에 가야하냐는 겁니다."

이에 반성을 느낀 스님은 사찰 차원에서 이주여성들을 모아 한글 교육도 하고, 설날 등 명절이면 민속놀이를 함께 즐기는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오랜 활동 결과 외국인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 다문화센터를 지원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스님은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해왔지만 다소 지엽적이었다"며 "'포용과 관용의 열린 공동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한국다문화센터는 이를 전문네트워크화해 통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운영하는 센터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다문화센터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



한국다문화센터는 특히 올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2세대들을 위해 실시하는 대학생-다문화 자녀 1:1 멘토링 서비스 프로그램과 다문화 TV프로그램 제작(IPTV 시험방송) 참여에 주력할 방향이다.

보선 스님은 "미국은 혼혈인과 외국인들이 눈치를 보지 않으며 살 수 있는 다문화 사회를 조성했기 때문에 오바마 같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들에게 외국인들을 향한 차별없는 열린 시각을 갖기를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내적 성장 기반 마련에 힘"

교구 출범 4주년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기축년을 맞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가 미래 군포교 발전을 위한 초석다지기에 나섰다.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은 1월 20일 용산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교구 출범 4주년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군종교구 핵심사업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일면 스님은 "지난 2005년 7월 25일 초대 군종교구장으로서 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다"고 소회를 밝힌 뒤 "지난 3년동안 '군포교 역량강화 및 조직과 제도 활성화'에 노력했다. 남은 임기는 '포교성과의 사회화'와 '내적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종특별교구는 출범 초기 3만명 수계에서 2008년 8만7715명을 수계하는 등 군장병 불자화에 가시적 성과를 내왔다. 6억원에서 출발한 재정도 2009년에는 22억원으로 확대 편성돼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군종교구는 △군승정체성 확립 △군 불자관리 강화 △홍보 및 간행물 관리 △종무행정 체계화 △군사찰 건립 지원 △교육사업 지원 등 7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5000명 이상 수용가능한 육군훈련소 법당증축을 위해 4월말 발대식을 거행할 예정"이라며 "조계종 총무원, 교구본사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군법사 동참금, 기업체 종단 후원금, 만인동참운동 CMS후원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육 · 해 · 공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교육관도 2월 말에서 3월초 기공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은 이어 "수계 강조방침에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불자장병 수계가 증가했다. 여기에 지속적인 군 내 불교문화 정착을 위해 사관학교 포교와 초급장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나서겠다"며 불자지휘관 관리방안도 밝혔다.

많은 계획에도 군종특별교구는 원불교의 군포교 진출 · 경쟁과 안정적 재정기반, 군승요원 수급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타종단 및 비구니스님 참여가 대안으로 떠오른데 대해 긍정적 의견을 개진한 군종교구.

한국불교의 미래는 군포교에 달려 있다. 노덕현 기자

"기부문화캠페인 펼치겠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운문사 대중공양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월 17일 비구니 선원 · 강원이 있는 청도 운문사(회주 명성)에서 기축년 대중공양을 봉행했다.

이영철 사무총장은 운문사 대중공양 의미에 대해 "과거에는 정책제안 위주였지만 불자대중과 함께 기부문화캠페인 등 직접 와닿는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수선원 혜은 스님과 재가연대 식구들이 덕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교단자정센터, 불교아카데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식구들은 운문사 문수선원 혜은 스님에게 소화제 등 공양물 · 보시금을 전달하고, 사리암에 올라 불교외호를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종무원 개원식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종무원(원장 호산)은 1월 19일 전주시 인후동 종무원청사에서 종무원장 취임 및 특별교구 개원식을 개최했다. 승정원장 남파, 행정부원장 월해, 종회부의장대은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제전북지사장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신년하례법회 봉행



불교조계종삼화불교(총무원장 혜인)는 1월 16일 서울 해인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 날 혜인 스님은 "2009년은 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만큼 종단의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잔성 기자

조계종, 레바논 동명부대에 격려금 전달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은 1월 22일 사회부장실에서 레바논 동명부대 영우 권기원 법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4차 파병까지 군승 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기원 법사는 무사귀환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부천남부서 경승법당서 신년하례법회



부천남부서는 1월 21일 서내 경승법당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경승실장 성인 스님을 비롯해 서장 최경식 총경과 법우회 김성수 회장 등 불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영남 법륜교수불자회 동계 수련회



영남 법륜교수불자회(회장 김성규 · 영남대의대)는 1월 17~18일 전북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에서 수련회를 개최했다. 23명이 동참한 행사에서 도문 스님은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을 선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동제전북지사장

부처님의 "황금색 치아진신사리" 친견대법회

부처님의 《황금색 치아진신사리》 친견은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좋은 인연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각 사찰의 《정초방생법회》와 《윤5월 삼사순례》에 부처님의 《황금색 치아진신사리》를 친견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후 3시 이후에는 건너편 천태산의 《천진보탑》에 나타나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좌불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친견법회는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다 음 -

■ 친견기간 : 2009년 2월 7일(음력 정월 13일)부터 7월 21일(음 윤5월 29일)
■ 친견장소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542번지 부처님마을금국사
■ 문의전화 : 055-338-7282. 070-7760-1411

◆ 증명대종사 : 전해인사 주지 도 성 큰스님
◆ 봉행위원장 : 신도회회장 김 종 구
◆ 기획위원장 : 청년회회장 박 주 욱
◆ 홍보위원장 : 반야회회장 정자재행
◆ 운 영 위 원 : 인등회, 지장회, 청년회, 반야회의 임원

■ 교 통 편 : 네비게이션 입력 "도요마을회관"
1.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삼랑진IC이용 도요진입
2.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서김해에서 삼랑진 쪽으로 오면서 삼랑진 교량을 건너지 않고 생철리에서 도요 진입

※ 김해 - 삼랑진 간 4차선교량 2008년 12월 30일 개통.

1월 좋은날 부처님마을 금 국 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일은 예고없이 찾아옵니다. 작고 큰일들을 미연에 예방하세요. 우암사에서 명심스님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명심스님이 직접 인생운명을 상담 감정하여 드리며,
모든것이 잘 안되는 운을 좋은 운으로 바꿔주는 조상님의 천도재를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과 땅사이에 나타나는 갖가지 현상 즉 해와 달, 별의 움직임, 바람과 구름의 폭풍우, 천둥과 지진, 화산폭발 등의 자연현상이 모두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라 믿었으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리켜 기(氣)라고 불렀습니다. 불의의 재난을 미리 방지하며 운기를 새롭게 마음먹은대로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氣)의 힘!!!!

주역(周易)과 영(靈)의 힘을 모아 논리적으로 풀어주는 명심스님. 인생운명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자신에게 미치는 운세의 영향을 영(靈)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스님에게 감정하여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재물은 언제 오는가?
2.건강은 왜 안 좋은가?
3.부부갈등은 왜 있는가?
4.출세운은 있는가,없는가?
5.승진시기는 언제일까?
6.무슨 직업이 맞는가?
7.결혼시기,배필은 어디에 있는가?
8.가출한 사람은 언제 귀가 하겠는가?
9.매매는 언제 되는가?
10.나는 왜 이별을 해야 하는가?
11.나는 왜 가정에 환난이 많을까?
12.하소연 할 곳이 왜 없는가?
13.나는 왜 구설수가 많을까?
14.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버는가?
15.나는 왜 자식이 없는가?
16.나는 왜 자식복이 없는 것일까?
17.이름은 왜 잘 지어야 하는가?
18.묘터와 수맥은왜 중요한가?
19.음택이장양택감정 답산
20.모든일이 잘되지 않는 분을 위한 종합감정..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수년간 수도하여 주역의 영의 힘을 받아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운명을 판단하다보니 너무나 신기한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암사내에 운명감정실을 내어 여러분의 걱정 제반사를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축년 운수..... 이미 운명을 바꿀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고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664번지 우암사 TEL 053)792-3392, 053)794-1008 / FAX 053)794-1002



겨울 햇살, 묵언수행

하얀 꿈 백양사.

도량엔 눈이 소복하다.
청설모는 목탁소리 물고 징검다리 건너고,
하얀 사천왕문 지붕위에는 노송의 그림자가 앉아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낙숫물은 찰나의 기억 속으로 떨어지고,
먼 길 온 스님은 부처님 만나러 법당으로 간다. 백양사다.

백양사의 이름은 하얀(白) 양(羊)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옛날 양 한 마리가 환양 스님의 법문을 듣고 스님의 꿈에 나타나 고백을 한다.
악업(惡業)의 과보(果報)로 양이 되었는데
스님의 설법을 듣고 환생하여 극락세계로 가게 됐다고.
이튿날 절 아래에 흰 양 한 마리가 죽어 있었고
스님은 절 이름을 백양사로 고쳤다고 한다.
청운당 죽담장 앞에 눈사람 하나가 서있다.
설법을 들을 모양이다. 합장하고 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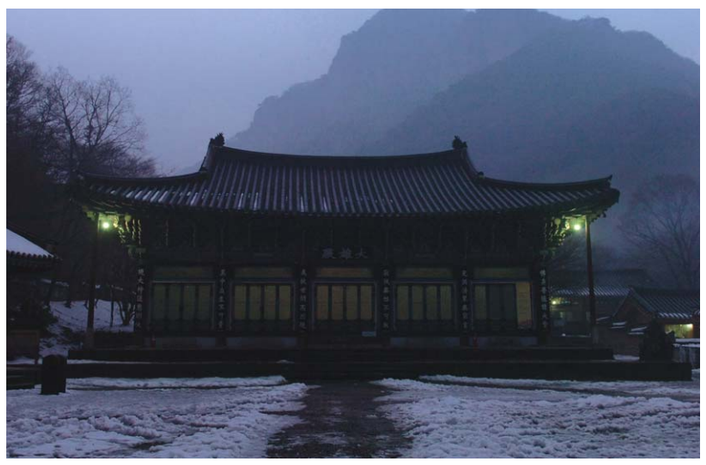
선원 기둥에 걸린 목탁이 겨울 햇살에 몸을 말리고,
묵언 중인 차우(개)는 스님의 발자국을 밟으며 돌담길을 걷는다.

날이 기운다.
백암산 그림자가 도량으로 내려와 석등에 불을 켜고,
종각에서는 법고가 울린다.
전각마다 독경소리가 문살에 번지고 어제의 내일은 어느새 사라져 간다.
겨울 달빛이 시방(十方)을 감싸고 피안(彼岸)을 그리며 잠든 중생은 꿈을 꾼다.
녹아버린 눈사람이 꿈속에서 고백을 한다.
극락으로 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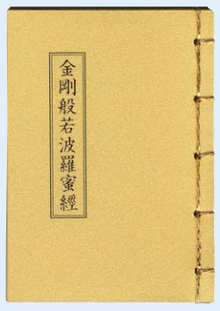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하얀 사천왕문 지붕위에… 처마끝에 매달린
낙숫물은 기억속으로 떨어지고
설법을 들은 양
죽담장 앞에 있는 눈사람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 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3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국토를 찾아서

울산 해남사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이고 싶어요"

"이곳에서 공양 드시는 분과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분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부처님 자비 사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찾아와 주고 맛있게 드셔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자타의 집'은 통도사 울산 포교당 해남사(주지 만초)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로, 벌써 16년째 울산 북정동 어르신들의 곁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매일 오전 9시면 어김없이 '수자타의 집'



'수자타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는 봉사자들.

에 100여 명 단위로 장을 작된다. 매일 아침 신선한 식재료로 점심공양을 준비하면 11시부터 배식이 시작돼 오후 1시까지 공양시간을 갖는다. 사실 공양 시간은 1시간 늦은 12시 부터였다고. 역시 '수자타의 집' 문밖에는 오전 8시부터 할아버지들이 점점 모이고 있었다. 북정동 최고의 사랑방인 셈이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카레라이스다. 16년을 한결같이 '수자타의 집'과 함께해온 김순옥 보살은 "주로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니까 건강을 생각하게 된다. 카레는 치매예방에 좋으니까 어르신들께 공양드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매일 12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5~6명의 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이날은 해남사 부설 동국유치원 어머니 모임인 '동국회'에서 봉사했다. 집에서 가족들의 아침밥도 짓고 왔을 보살님들은 찬물에 빨갛게 언 손으로 남자어른 주먹만큼 큰 감자 껍질을 벗기고, 당근을 손질하고, 밥을 짓느라 바쁘지만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방학을 맞아 어머니를 따라온 김형진 학생(학성고1)은 "어릴 땐 종종 봉사활동을 하러 왔는데 학교 다니느라 잘 찾질 못했지만 앞으로 자주 찾아와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매일 다른 팀의 봉사자들이 찾기 때문에 운영 ·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진다. 김순옥 보살은 매일 오전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일지'와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 운영일지' 2권에 그날의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뿐만 아니라 보살의 작은 수첩에 하루 일과가 시

봐온 가계부도 있다. 이렇게 철저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 덕분에 오늘의 '수자타의 집'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16년의 긴 세월만큼 감동의 순간도 많았다. 김순옥 보살은 "어느 날인가 청년이 찾아와 용돈을 아껴 모은 돈이라며 1만 7000원을 손에 꼭 쥐어주고 갔다. 그 돈으로 태화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사와 어르신들이 참 맛있게 잡수셨다"고 회상했다. 또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할아버지 한분이 까만색 포장지에 '박 아무개'라고 당신의 이름을 쓴 선물을 수줍게 건넸는데 열어보니 양말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만초 스님은 "사실 '수자타의 집'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은 해남사와 봉사자들"이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드리고 싶다"고 했다.

카레를 만들던 김순옥 보살에게 법명을 물었더니 세월이 오래 지나 잊었다고 부끄러워했다. 취재를 마칠 때쯤 그 분의 법명을 알 것도 같다. 부처님께 우유죽을 공양 올렸던 '수자타'는 아니었을까? 박지원 기자

"어린이들 부처님 마음으로 자라도록 힘써야"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련 회장에 심산 스님 추대

(사)동련은 새해 첫 정기총회를 열고, 산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신임회장으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을 추대했다.

2009년 1월 17일 오후 5시 홍법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이사장 인사말, 성원보고 및 안건상정, 감사보고, 2008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결산심의, 2009년도 사업계획보고 및 예산 심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추천과 승인의 건, 위촉장 수여 및 회기 전달,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는 (사)동련 이사장 지현 스님(관음사 주지)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해 심산 스님의 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이사장 지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막 불사를 마친 새 대웅보전에서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처님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홍법사가 이름 그대로 세계에 널리 불법을 홍포하는 전법도량으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월 17일 열린 (사)동련의 첫 정기총회 후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

(사)동련 동화구연회장 덕진 스님(울산 정토사 주지)은 "심산 스님과 함께한 홍법사 불자들의 원력으로 도량 불사를 원만 회향한 만큼 다시 한번 어린이포교에 큰 원을 세워 부처님 법대로 사는 불국토를 함께 만들자"며 격려했다.

한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사)동련의 산하단체로 1986년 창립해 어린이포교를 위한 각종 불교행사 기획 및 지원, 전국어린이법회 지원 및 지구조직 관리, 어린이지도자 양성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인터뷰-심산 스님

"어린이에게 불교 미래 있어요"



"어린이불교가 일어나야 한국불교가 바로 서며, 불교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제7대 회장으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스님은 임기동안 "조직개편을 통해 (사)동련 법인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각 지부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의 영역을 더 넓혀줘 결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법회 중심보다는 어린이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흥미 위주로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역대 회장을 거쳐 간 어른스님들께서 세우신 취지와 열정이 길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지원 기자

소외 이웃에 자비 손길

마창불교련·금강자비회 나눔 한마당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원정)와 (사)금강자비회(이사장 이재남)는 1월 15일 오후 창원시청 강당에서 '제19회 이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마산창원불교연합회와 (사)금강자비회가 1월 15일 개최한 '제19회 이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

이번 행사에는 마창불교연합회와 금강자비회 관계자를 비롯해 박완수 창원시장, 안홍준 · 권영길 국회의원, 이순항 경남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지역 저소득 한 부모 가정 40세대, 무의탁노인 및 장애인 13세대, 저소득가정 고교생 15명, 경남시각장애인회 보장구 지원, 국립마산병원 환후 후원금, 자비 나눔 무료급식 후원금 등으로 총 4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재남 이사장은 "기축년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 자비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뜻 깊은 자리에 동참해준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늘 격려하고 후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에 희망을 잃지 말라"며 "행복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닌 마음이 넉넉하면 그게 바로 행복이니 누구나 다 어렵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자"고 설했다.

한편 매년 초 열리는 '이웃사랑 자비 나눔 한마당'은 마산창원지역 각 사찰 · 신행단체에서 동참해 지난 1990년부터 지금까지 약 4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박지원 기자

불교계 현안 협력 약속

부불련 한나라당 의원 신년간담회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1월 12일 오후 서면 롯데호텔에서 한나라 부산시당 소속 의원들과 신년하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 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한나라 부산시당 김정훈 위원장, 안경률 사무총장, 허원제 · 유재중 의원 등 사부대중 30여 명이 참석해 부산 불교계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올해부터 부산불교연합회는 석가탄신일 연등축제와 팔관회에 각각 3억원, 2억원 등 처음으로 총 5억원의 정부 예산을 받게 됐다.

이에 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은 "한나라 부산시당의 노력 덕분에 문광부로부터 석가탄신일 3억원, 팔관회 2억원 등 총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돼 감사하다"며 "이들 불교행사들이 국가적 축제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훈 위원장은 "축제 예산 건 외에도 각 사찰관련 규제법으로 무허가건축물로 분류돼 현재 강제이행금을 내는 사찰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사찰은 공익을 위한 건축물인 만큼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불교예술인련 부산지부 출범

봉사 · 포교 진력

불교문화 예술인들의 포교 · 봉사 모임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연합회 부산지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사)한국불교문화예술인연합회 부산지부는 1월 20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영도 불광사(주지 혜광)에서 신년하례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신임부산지부장 혜광 스님 및 임원단, 시의회의원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 지부장 및 공동회장 추대, 임원진 위촉 및 임명장 수여, 지부장 기념사, 회장단 인사, 2009년 사업계획 보고,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지부 첫 임원진으로는 불광사 주지 혜광 스님이 부산지부장으로 추대됐고, 이하 지문위원장 및 공동 회장, 감사, 수석부회장 등 임원진 총 14명이 위촉됐다.

부산지부장 혜광 스님은 "나라와 이웃이 편안해야 풍년이 든다는 선조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의 마음을 내어 자비와 수행을 실천하고, 불법으로 우리 사회 속에 긍정과 수행의 힘을 전하자"고 말했다.

2009년 중점추진사업으로 △불우이웃, 청소년 가장, 장애우 돕기 △범세계적인 불교문화 예술인 간교류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포교활동 강화 △템플스테이를 통한 참불교 이해증진 및 자아성취 지원 등 4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박지원 기자

대한불교 법화종 전국사암 주지 및 대표임원 여러분

삼보에 지심귀명례 하옵니다.
밝아오는 기축년에는 종도스님 여러분께서 모두 법체 청안 하시옵고 불사 원만 성취 하시길 발원 합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위원회는 종도스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보내주신 정의로운 의견을 모두 모아서 총무원장 혜륜(김용대)이 그간 저질러온 부정부패 중 사안이 위중한 금불사(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2008고제 7924호)건 . 은적사.대방사(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2008고제 8021호)건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여 당해 경찰서인 성북경찰서에서 초등수사가 2009년 01월 마무리 되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어 수사 중에 있으며 혜륜 김용대가 정화위원회 스님들을 상대로 창원지검에 고발하였던 명예훼손건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화신문에 정화위원회을 비방하고 명예훼손한 대책위원장 보광스님(중앙종회 부의원장)을 2008년12월09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서울중앙지검 2009형제3%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총무원장(김용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2008카합 3177호)을 하였고 정화위원회 스님들은 징계처분무효소송(서울중앙지법 2008가합 97398호)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혜륜 김용대가 내 임기내에 납골당 건립은 없다고 큰소리치며 교헌사를 상대로 납골당분양금지가처분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사건(2008카합534호)은 기각되었으며 그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2009년01월09일 선고받아 종단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 올 것입니다. 교헌사측에서는 총무원청사 외 종단자산 또 종찰을 이미 모두 파악한 상태로 조만간에 그 손해액을 돌려 받기위한 압류조치를 할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총무원장 김용대에 관한 사건이 여러곳의 법원과 검찰에서 심리 또는 조사 중이었는데 사건 모두를 서울중앙법원 및 지검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심리 및 조사가 진행될것이라 합니다.

종도 여러분 !
지난 무자년은 대한불교 법화종 종사에 씻지 못할 치욕과 아픔의 해로 기억 될 것입니다 이미 불교TV뉴스와 불교신문 보도로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12월 16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대한불교법화종을 제명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불교 법화종이 창종되고 초대종정 김갑열(혜일)이 주석하던 우리 법화종의 본산이라 알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93번지의 무량사가 2008년 12월에 다른 종단 스님에게 16억원에 매각 되었습니다. 무량사에는 대한불교 법화종도의 염원이 담긴 무게 3000관의 대종이 있습니다. 이 종에는 전국교구에서 불사에 동참했던 스님들의 법호와 불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량사에는 수많은 공덕비가 있는데 그 공덕비에는 역대 스님들의 흔적과 대한불교 법화종 종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대 종정 김갑열(혜일)의 손자인 최성호가 제출한 법화종 종권확인 제소사건 (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2008가합107714호)과 . 안정사 주지지위확인의소(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2008가합112341호)를 보면서 더 이상 종단의 앞날을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종단이 이 보다 더 치욕적일 수 없는 현 상황에 더 기다릴 수 있으며 더 바랄게 있는지요?

전국의 종도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찌하다 대한불교 법화종이 이지경까지 왔을까요?
종단의 어른이라 하는 종정이나 원로의원 또 총무원장 김용대 및 그 집행부 그리고 중앙종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종사에 이런 치욕과 종도들에게 아픔을 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리사욕에 눈먼 스님들이 모여서 자신의 안일과 치부에 허덕이느라 종사와 종도들을 욕 먹이고 수만금을 줘도 얻지 못할 종도들의 마음을 헤집어 버린 작금의 집행부를 아직도 더 두고 보자 하는 이 들에게 고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종단이 바로서고 종무행정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대한불교 법화종의 미래는 없습니다. 모두 합심하여 지금부터라도 모두 모여서 구종의 방법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종도들이 마음을 모아 그 행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정화위원회 사무실 :
전화 053)643-4771 / 팩스 053)643-4772 로 문의 바랍니다.

2009년 1월 23일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buddhanews.com

이웃에 자비 손길 내밀어

광주 신행단체들



자비신행회 회원들이 독거노인 주택에 연탄을 나르고 있다.

설날을 맞아 광주지역 신행단체와 사찰들이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뻗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1월 16일 자원나눔봉사단(단장 정용운) 회원 20여 명과 함께 광주 산수동 거주 독거노인 5명에게 연탄 1000장을 전달했다.

이날 연탄 200장을 지원받은 이수연(생활보호대상자 · 81) 할아버지는 "추운날씨에 꼭 필요한 연탄을 지원해준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자비신행회는 2008년에도 600만원 상당의 난방유를 30가구에 지원하는 등 후원자들의 정성을 모아 4년째 자비나눔을 실천해 왔다.

같은 날 광주 연화사(주지 명신)는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중 하나인 대인시장에서 연로한 노점상인 200여 명에게 떡국을 대접했다. 명신 스님은 "매월 지속적으로 점심 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19일 경내에서 '2009 설맞이 사랑의 쌀 · 떡국떡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 상무1동(동장 최현호)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200여 세대에 1500Kg의 쌀과 200세대분 떡국 떡을 전달했다. 이어 22일에는 설연휴 귀향길 교통정리 및 방범활동에 수고할 전 · 의경 200여 명을 초청해 노고를 치하했다.

무각사 관계자는 "무각사 자비봉사단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따뜻한 마음들이 함께 모이면 세상은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지역 봉사프로그램을 주도해 온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 지혜나눔실천회(회장 최일광, 선지행 · 여)는 19일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떡국 봉사를 펼쳤다.

2005년 12월 창립한 지혜나눔실천회는 창립이후 5년 동안 200여 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 독거노인 20여 가구에 도시락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자원봉사자 김백경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을 도우니 행복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 대표 문화재 한자리에

국립전주박물관 리모델링 마치고 미술실 공개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왕궁리 금동여래입상(좌), 사감운룡문배병(우), 최석환 포도병풍(아래).

최근 익산 미륵사지석탑에서 500여 점의 금제사리구 등이 출토되면서 찬란했던 백제 문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영원)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금동불입상(국보 제123호) 등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재를 선보여 불교문화 포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1월 20일 상설전시실 미술실을 개편해 공개했다. 새로운 디자인과 전시기법을 활용해 한글세대를 위한 우리말 설명문 등으로 꾸며 재개관한 미술실은 전북의 미술을 대표하는 4개의 주제별 전시실에 150여 문화재들로 채워졌다.

'전북의 불교미술' 전시실에는 삼국~고려 시대 전북 지역에서 출토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금동불입상(국보 제123호)을 비롯해 익산 미륵사지 · 전주 화엄사 등 사찰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 등이 전시됐다.

'전북의 도자기' 전시실은 고려시대 대표적 청자 생산지였던 부안 청자와 조선초 고창 분청사기 등을 통해 전북 도자예술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에서 출토된 '청자모란무늬매병'과 부안 지역의 '청자고리무늬의자' 등과 군산 앞바다에서 나온 해저인양 청자도 전시됐다.

'조선왕실과 서화' 전시실에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본향 전주의 의미를 되짚어 보자는 취지에서 전시된 <태조어진>을 비롯해 조선 종실 대표화가인 이징(1581~?)의 '화개현의 별장 그림(보물 제1046호) 등을 전시했다.

'예향, 전북의 서화' 전시실에는 조선 후기~근현대 전주지역 서화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대표적인 조선 여류 문인의 한사람인 설씨부인(1429~1509)의 '보시를 권하는 글'(보물 제728호) 등을 전시해 예향 전북의 멋을 감상하도록 했다.

김영원 관장은 "이번 전시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관람객이 전북 미술의 멋과 아름다움을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전라남도청 불자회 장송기 간사

"최선 다 해 사는 것이 바로 포교"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국도 1번 도로를 따라 광주에서 목포가는 길목. 무안군 남악리에 소재한 전라남도청을 찾았다. 전남도청 불자회 간사를 맡은 장송기(법명 도정 · 사진)씨를 만났다.

현재 전남도청 불자회는 홍석태 회장(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해 최복자 부회장, 장송기, 문정금씨 등 120여 회원으로 구성됐다.

척박한 호남불교 환경 속에서도 전남도청 불자회는 목포불교대학에서 매월 정기법회를 진행해왔다. 전남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진행하는 F1 성공기원법회, 신년하례법회 등 불교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시 · 군청 불자회와 연계해 불교행사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불자회가 결성되지 않은 시 · 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전남도청 불자회는 도내 공무원불자회의 맏형격이다. 특히 행정기관 간에 위계질서가 있는 곳이라 도청불자회의 역할 또한 크다. 불교의 불모지라 하는 호남에서 장송기 간사의 말처럼 공무원 불자들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해 봄직하다.

장 간사의 직함은 공무원 불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사무국장을 맡은 그는 일주일이 부족할 정도로 공무수행과 신행생활에 앞장서 왔다.

장송기 간사는 불교에 늦게 입문했다. 중학교부터 청년까지는 새벽기도회에도 참석하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기도 했다. 그랬던 그는 어떻게 불자가 됐을까?

아내 윤경숙 포교사가 불교대학을 다니며 불교공부를 하자 장 간사 역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했다.

장송기 간사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인과응보의 당연한 진리를 보며, 점차 불교에 매력을 느끼게 됐다"는 장송기 간사는 말했다. 인생에서 원인과 결과가 철저하게 적용되는 진리. 이것이 그의 불교적 신념이 됐다. 장 간사의 초발심은 불교대학 진학까지 이어졌다. 포교사 시험도 통과해 포교일선에서 수행과 공부를 진행 중이다.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고, 집사람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두달간 중환자 대기실에서 생활했습니다. 아침이면 눈 뜨기가 겁이 났고요.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를 지탱하고 극복할 힘을 준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었다. 평소 하심(下心)하며 포교활동을 한다는 장 간사에게 포교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포교 아니겠습니까? 생활에서 자연스레 불교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것 같은 그의 말이지만 '공짜는 없다'는 그의 인과적인 가치관과 생활을 보면 도리어 모든 불자들이 실천해야 될 금언(金言)처럼 들린다.

"많은 공무원 불자들이 공무원불자회에 참여해 시 · 군 불자회가 창립되기를 바랍니다."

장송기 간사는 공무원불자회 중심의 호남불교 도약을 기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불자 "화합으로 위기 극복"

군산사암련 · 신도련 신년하례법회

차가운 겨울 바람보다 매서운 경기한파에 모두가 움츠리는 때, 불교계가 화합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군산지역 불자들은 1월 20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기축년 신년하례 및 군산발전 기원 조찬 법회'를 봉행했다.

군산 사암연합회가 주최하고 (사)군산 신도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법회는 재곤 스님(관음사), 재훈 스님(동국사), 지환 스님(흥천사)을 비롯한 지역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강봉균 국회의원, 문동신 군산시장, 김용화 전북도의원, 양용호 군산시 의장 등 정관계 인사, 불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재곤 스님은 법어에서 "가정의 행복의 곧 국가의 행복"이라며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때지만 불자들이 모범을 보여 일치단결하는 화합대중의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참석한 각급 기관장들은 "군산발전이 전북발전이고 성공적인 새만금개발이 나라의 발전"이라며 "기축년 새해 부처님의 가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안근 신도회장은 "이번 법회를 계기로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서로 배려하는 바람직한 불자상을 정립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 며 "신행활동과 포교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묵묵히 포교의 길 갈 터"

광주전남포교사단 다짐



광주 · 전남포교사단은 1월 18일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새 각오를 다지기 위해 광주전남포교사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 · 전남포교사단(단장 백남용)은 1월 18일 광주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에서 계성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과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강홍원 단장(조계종 중앙포교사단)과 광주전남지역 포교사와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기 2553년 신년법회 및 포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도일 스님(송광사 율원장)은 법문에서 "부처님 법은 실천한 만큼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이룬다"며 "계율을 지키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포교하는 마음이며, 성불로 가는 길"이라고 설했다.

법문에 앞서 백남용 광주전남포교사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축년에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교훈처럼, 불법홍포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며 묵묵히 포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불 법당 조성

태고종 법륜사

무등산에 1000불 법당이 조성된다. 태고종 광주 법륜사(주지 월인)는 1월 19일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전통불교영산회 스님들의 신중작법과 권공, 축원 등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지암 스님(중앙원로의원),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등 200여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여했다.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도심포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포교역량을 집중해 지역포교에 일익하는 도량이 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SHC 삼환양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양초전문 기업 삼환양초는 꾸준한 신상품 개발 및 최고의 상품만을 공급하여 드립니다.

• 신상품 : 실내용양초 - 밀압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의문]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조계종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태고종 수계산림 행자모집
교무부 등서 접수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2월 13일까지 '제34기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행자를 모집한다.

자격기준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자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구비한 자 △각 사찰에서 6개월 이상 행자생활을 이수한 자 △수행과 교화에 지장이 없는 건강과 용모를 갖춘 자 등이다. 수계를 희망하는 행자는 태고종 홈페이지(www.taego.kr)에서 행자등록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총무원 교무부 또는 각 시도교구 종무원에 접수하면 된다. 등록비는 5만원이며 등록행자들은 기초교리, 예경(조석예불) 등의 면접시험을 보게 된다.

한편, 태고종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태고종에서 실시하는 득도계단에서 수계득도 후 △동방불교대학 △중앙승가전문강원 △태고총림 선암사 전통강원 △태고종 비구니 전문강원 등을 졸업해야 한다. (02)739-3450

김진성 기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초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가 산스크리트어 및 티베트어에 능통하고, 인도대승불교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교수 1명을 초빙한다.

이번 교수초빙은 '불교 고전어 · 고전문헌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 연구'를 주제로 연간 8억여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위한 것이다. 지원자격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한국사업 초빙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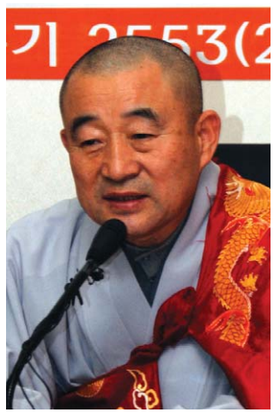
지원서, 박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연구실적물(2006년 1월 1일 이후) 등을 각 1부씩 구비해 1월 28~30일 이메일(gcbs@ggu.ac.kr)이나 우편(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041)731-3582

김진성 기자

"관음주송으로 경제위기 극복 발원"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주요 종무계획 발표

"불교가 자비를 바탕으로 국민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교로 자리매김해 신명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1월 19일 서울 관문사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종단 주요종무계획을 발표했다.



천태종은 우선 2011년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는 상월원각 대조사 기념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초고가 나와 있는 상월원각 대조사의 행장 · 어록 등을 정리한 소설 출판을 마무리 하고, 대조사의 탄생 전법 수행처 등에 대한 성역화 작업에 착수한다.

특히 천태종은 대조사가 강조했던 관음독송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2009년 말부터 '100만독 관음주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산 스님은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한 지역당 매일 5시간씩 100일 동안 관음주송하고, 30개 지역에서 릴레이로 독송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라며 "관음주송은 마음의 경계를 새롭게 열고, 생활에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됨은 물론 천태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새터민 정착 지원 사업, 성지순례 등의 남북 문화 교류 사업도 꾸준히 진행한다. 정산 스님은 "현재 남북 관계 경색으로 불교 교류도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과의 제3국 비공식 접촉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틀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태종은 또한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복지후원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원 · 복지관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템플스테이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한다.

또한 108후원회를 결성해 고액후원단을 확보하고, 지난해 제휴를 맺었던 기업은행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산 스님은 "천태종 복지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조계종, 진각종 복지사업에 비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동안 많은 경험이 쌓인 만큼 앞으로는 복지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태종은 이외에도 △총본산 구인사 성역화 불사(조사전과 광명당 연계불사 연말 준공 예정) △전 종도의 포교사화(재가불자 하 · 동안거 시 포교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전개 및 소백산 지킴이 사단법인화 △인재교육불사 등을 2009년 종단 주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불교종합공간 전승원 개관할 것"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주요종책 발표

"수행정진과 전법교화를 통한 상생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1월 20일 서울 총인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종단 종무계획을 발표했다.



진각종은 먼저 올해 예정된 진각문화전승원 건립 및 총인원 성역화 불사에 맞춰 전승원 컨텐츠를 확보하고, 불교문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주요 불교국가와 교류를 강화해 불교문화 관련 전시 컨텐츠를 확보하는 등 포교 및 불교문화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불교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회정 정사는 "올해 개관하게 될 진각문화전승원은 총인원 변화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총인원 지역은 도심지역 템플스테이 등을 위한 교육관, 어린이 포교당, 불교신행단체 사무실 등을 모두 아우르는 불교종합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각종은 또 '이웃과 사회를 위한 더 큰 회향'을 기치로 복지사업에도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불교계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사업모델 '진각홈케어' 사업을 확장하고, 지역 밀착형 복지지원 시스템 '진각복지 119'를 지속 전개한다. 특히 진각복지센터 건립에 맞춰 개원 예정인 노인전문 복지시설 '진각혜민서'는 열린 노인 문화 창출을 위한 진각종의 핵심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회정 정사는 "진언행자의 실천 속에서 동사섭(同事攝)의 정신을 구현해 사회적 갈등 및 양극화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올해 200명 이상의 복지 인력을 채용해 취업난 극복에 일조하고, 호남과 강원도 지역 복지원 설립 등을 통해 전국적 복지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진각종은 △신교도 신행 결집운동(밀교대중법회 및 어린이 포교를 위한 '자성동이 캠프' 개최 등) △적극적 교화활동을 위한 교육체계 모색과 정립(진각대학 20년사 출간, 대학원 교육체계 완성 등) △학술과 복지의 불교적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위덕대 및 종립 중 · 고등학교 지원 강화) △남북교류 도약의 전기 마련 등을 핵심 정책으로 설정해 종단 업무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정 정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4월 예정된 제28대 통리원장 선출과 관련해 "임기 중 진각문화전승관을 설립하게 돼 보람을 느끼지만, 종단 내분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제28대 통리원장 출마여부는 인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다문화가정 학생 학습 도와요"
인천 황룡사 대학생 다문화자녀 1:1 멘토링 워크숍



천태종 인천 황룡사에서 1월 17~18일, 22~23일 진행된 '대학생 다문화자녀 1:1 멘토링 자원봉사 워크숍'

천태종 인천 황룡사(주지 무원)는 1월 17~18일과 22~23일 '대학생 다문화자녀 1:1 멘토링 자원봉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한국다문화센터(대표 보선)가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이 많아 선별과정을 거쳐 150여 명의 학생과 70여 명의 학생을 선정해 두 차례로 진행됐다.

17일 열린 행사에서 한국다문화센터 자문위원장 무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조금 늦긴 했지만 다문화가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젊은 사람들이 봉사와 희생정신을 갖춰야만 국가의 새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황룡사에서 새터민 템플스테이를 자주 개최하며 먼저 상대방의 대화를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문화적으로 어떻게 공감대를 조성해나가야 할지 봉사자들이 연구 해야한다" 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다문화 브리핑 및 질의 응답 시간인 '현장의 소리'에서는 전하식 사무관(경기도 가족여성정책과 가족정책담당), 김희진 실장(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 참여해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과 지원정책, 다양한 봉사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 봉사자들은 팀을 나눠 토론을 벌인 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을 어떤 식으로 도울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생 다문화자녀 1:1 멘토링 자원봉사자는 3월 1일부터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등 문화적 응을 돕게 된다.

김진성 기자

능화 스님 대구 '새해 춤 축제' 참가



능화 스님이 대구 '새해 춤 축제'에서 범패를 선보이고 있다.

태고종 문화부장 능화 스님(인천시무형문화재 10-가호 범패와 작법무)이 1월 19~22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09 NEW YEAR DANCE FESTIVAL'에 참가해 일반시민들에게 범패와 작법무를 선보였다.

한국무용계의 거목들과 중진, 중요무형문화재 등 25명이 참가한 이번 공연에서 능화 스님은 22일 진행된 '한국의 명작무'에 출연해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법고춤과 천수바라춤을 선보였다.

김진성 기자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방한용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조각무명 특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최고의 선물

3-1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검정



사계절단화
풍산동 99%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15,000원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일상 속에서 禪 구현해야

오늘의 禪語 ㊾ 평상심시도 〈끝〉

'선'은 초현실 초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
평상심은 번뇌 없고 집착 없는 깨달은 자의 마음

중국 당 말에 이르러 또 한 명의 유명한 선승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 선사. 육조혜능(六祖慧能, 638~713)의 손제자로 중국 전통선인 조사선을 확립시킨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선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평상적인 마음이 곧 진리이다(平常心是道)."

'선'이란 초(超)현실, 초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평상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선'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평상심(平常心)'이라고 하면 문학에서 말하는 '일상적인 마음' 또는 '평상적인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선에서 말하는 '평상심'이란 불안이나 근심 걱정 등 번뇌 망상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외풍에 좌우되지 않는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욕망과 분노, 괴로움 등 '번뇌가 없는 마음'입니다. '무심한 마음' '청정한 마음' '조작이 없는 마음' '텅 빈 공한 마음'이 평상심입니다.

'평상적' '일상적'이라는 말은 문학에서도 자주 씁니다. 특히 수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대충 다음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사는 모습이 날이면 날마다 똑같다(똑 같은 패턴이 반복됨).

둘째, 공연히 이 일 저 일로 번잡했는데 이제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왔다(원위치로 되돌아옴).

언어는 같지만 의미는 정 반대입니다. 이 가운데 마조선사가 말하고 있는 '평상심'이란 두 번째 해석에 가깝습니다. 제자리 또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뜻인데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은 '본래심' '본디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마조 선사는 <전등록>(선의 역사서)에서 평상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상심이란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마음, 시비가 없는 마음, 분별이 없는 마음이다. 평상심이란 버리고 취하는 마음(차별심), 편견과 고정된 관념, 범부와 성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마음이다. 그것이 본래의 마음이다."(<전등록> 제28권, 馬祖章)

이상에서 본다면 마조 선사가 말하는 평상심이란 '조작심이 없는 마음' '너와 나를 차별' 또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처와 보살의 마음이며,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달마의 안심법문(安心法門)도 평상심입니다.

어느 날 혜가가 스승 달마를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지금 저는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그러니 제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달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그래? 그렇다면 그대가 말하는 그 불안한 마음을 내게 가지고 오게.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리라."

혜가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무형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불안한 마음은 순전히 스스로 만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스승님, 아무리 제 마음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 내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안케 해 주었다."

참으로 기발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화를 단순히 재치 있는 이야깃거리쯤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안심법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의 그 불안한 마음은 영영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지(機智)의 이 대화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180도로 돌려서 스스로를 성찰하게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평상심(平常心)'이라고 하면, 하루하루를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모습, 또는 아무런 발전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선에서 '평상심'이란 번뇌가 없는 '평상무사(平常無事)한 마음' '집착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바로 선승의 마음이고 깨달은 자의 마음입니다.

'평상심이 곧 진리(平常心是道)'라는 말은 원래는 남전선사가 처음 썼던 말입니다. 하지만 마조선사가 워낙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그의 언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사유방식은 <대학(大學)>에서 말하는 '격물치지(格物致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사물을 바탕으로 앎을 지극히 한다'는 뜻으로 모든 철학적인 지식을 현실과 사물 속에서 고증하는 것입니다. 임상실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확인합니다.

'평상심이 진리'라는 말 역시 '격물치지'의 사고에서 나온 말로서 일상적 삶 속에서 선을 구현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2009 공경캠페인

"나를 사랑해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백천만겁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불법 만나 환희
밉던 남편 죽음 문턱서 돌아오니 부처님 같아


임명자 시인.

부처님 법을 만난 일을 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어렵게 인연을 맺었다. 결혼 후 가족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만나야 했었다. 30대 초반에 만난 부처님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나의 고정관념 속엔 '우상'이라는 두 글자로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갈등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년 후, 부처님을 진정 사랑하게 만들어준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됐다. 부처님 법을 만나고 보니, 마치 망망대해에서 조각배를 만난 것처럼 설레었고,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환희로웠다.

진리를 차차 알아가니 온통 참회할 일 뿐이었다. 홀 시어머님을 모시는 일이나 외아들인 남편을 만난 것도 다 나의 업이라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다. 그래도 열심히 부처님께 다가가려는 나를, 가족들은 엄청난 반대로 몰아붙였다. 찰나찰나가 살얼음을 딛고 서 있는 형국이었다. 부처님을 뵙고 오는 날이면 나는 당장에 무애한 부처가 돼 있어야 했다. 삼독심(三毒心;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삶은 날마다 아파트 난간에서 죽음을 연습했다.

부처님께 엎드려 절 할 때마다 눈물로 호소했다. 나의 업장 '백겁동안 쌓은 죄업 한 생각에 없어져서 마른풀이 불에 타듯 남김없이 자라지네'가 돼지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천수경>의 이 법어는 내 마음속의 진언이 돼 익어갔다.

무엇이 그렇게 얽히고 설켜드는지 자빠져도 코가 깨어졌다. 집안일도 남편과의 사이도 엉망이 돼갔다. 남편의 과도한 음주로 오는 불화를 견뎌낼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정신까지 황폐화돼 정신과를 찾게 됐다. 한번도 마음 편히 부처님을 뵈러 갈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가난해져갔다. 마음의 분노는 날로 치달아 눈동자는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부처님은 그렇게 혹독하게 나를 단련시키고 계신듯 했다. '견디지 못할 시련은 부처님께서 주시지를 않는다'라는 법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럴 즈음 내 삶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됐다. 종로의 어느 사찰에서 노인무료 급식을 하는 곳에 남편의 눈치를 보며 어렵게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다. 100~300여 명까지 오시는 분들의 먹거리를 만들고 설거지를 하며 부처님을 다시 뵙게 됐다.

그 인연으로 만난 법상 스님(덕양선원장)은 나의 마음을 가난으로부터 건져내어 풍요롭게 만들어주셨다. 방하착(放下着; 내려놓기) 수행으로 마음의 주인이 진정 '나'이며,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우주의 창조자임을 확인시켜 주셨다.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는 수행을 계속했다.

'모든 것이 한 마음 안에 있음을 그 고통의 시간엔 왜 몰랐을까?' 하고 생각해보지만, 바로 이때라야만 되는 인연이었음을 지금은 안다.

방하착 수행으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질 무렵, 천수대비주 진언수행을 시작했다. 진언수행은 바깥은 시끄러워도 내면은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함을 맛보게 했다. 대비주 수행으로 점점 분별심이 적어져 가는지, 누굴 만나도 반갑고 행복했다. 집안도 안정돼 갔다. 기도할 때도 '업장 소멸'이란 지상 최대의 발원은 언제 자취를 감췄는지, 놀랍게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중생을 위해 일하게 해 주십시오'하는 발원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업의 행진은 아직도 내게서 멀어지기가 싫었는지, 그렇게도 원망하고 미워했던 남편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다. 암이라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 몸속 세 곳에나 번져 있었다. 진단 결과를 받고 온 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밖엔 없었다. 그동안 참회는 다 거짓이었나 싶게 눈물로 참회를 했다. 순간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30여 년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 원망했던 남편을 향한 마음은 온 데 간 데 없고 온통 내가 잘못한 일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아냐,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야! 그동안 내가 잘한 것이 이렇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하며 더욱 서러워지는 것이었다. 아무리 찾아 봐도 남편에게 미안한 일 밖엔 남아 있는 것이라곤 없었다. 기도를 마치고 남편에게 다가가 진실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다. 그동안 내가 이기적이고 어리석어서 당신을 미워했노라고. '나를 사랑해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라며 합장했다.

'백겁적집죄 일념돈탕진(百劫積集罪 一念頓蕩盡)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如火焚枯草 滅盡無有餘)'가 과연 될 수나 있는 것인가 하며 괴롭던 그 많은 날들은 이제 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던 삼독심의 실체가 이렇게 쉽게 허물어지다니, 이건 마치 꿈속의 일인 것 같았다. 그 후 암을 제거하기 위해 몇 달 사이에 대수술을 4번이나 하게 됐고, 수술이 잘못돼 중환자실을 오가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남편이 부처임을 진정으로 깨우치게 된 계기가 됐다.

이제야 나의 기도가 무르익는 것인가 보다. 남편의 일을 겪은 후 죽음은 슬퍼 할 일이 아닌 그저 삶의 연장임을 알게 됐다. 담담해진 마음을 들여다보니 그 많던 분별심에서도 놓여났다. 덕양선원 온라인 카페(cafe.daum.net/zeol)를 운영하면서 마음에 어려운 짐을 가진 분들에게 아픈 남편을 보듬어 안듯 그와 하나가 돼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나눌 줄도 알게 됐다.

어떤 사람을 만나건 어떤 일이 닥치건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그때그때 다가오는 대로 맞아 해결하려 노력한다. 마음이 그대로 고요하다. 백만 독 독송을 목표로 향해 가는 대비주 수행은 나를 이렇게 넓고 크게 키워주는 수행이 되고 있다. 끊임없이 정진해 자리이타와 동체대비를 행하면 내 마음에도 연꽃이 필 것이라 믿는다.

나를 힘들게 하는 역행보살님, 당신은 진정 부처님이십니다.

임명자 시인
(법명 지심행, 덕양선원 카페 운영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9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1월 20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월 9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298-15번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포교 열심히 하는것도 수행이야”

원산 스님(백련정사 주지)

백련정사에 들어서면 육백 년 된 은행나무와 모감주나무가 객을 먼저 반긴다. 세월의 때가 그다지 묻지 않은 기와며 단청이 새롭게 단장한 사찰임을 말해주고 있으나, 백련정사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나무와 사물에는 예스러움이 담겨있다. 대나무로 엮어 만든 죽림굴 무문관의 출입문, 말라버린 연잎을 보듬어 안은 채 얼어버린 연못, 묵언이라는 현판을 이끌고 가는 거북이 조각 등 눈길 닿는 곳마다 아련한 정취가 느껴진다.

원산 스님의 방에 들어서니, 승복을 입은 한 아버지가 장성한 아들을 출가시키려고 스님과 마주하고 있었다. 대처승인 아버지는 아들만큼은 올바른 길을 가는 수행자로 만들고 싶다면서 원산 스님의 상좌로 받아줄 것을 간청하였다. 첫 눈에 영민한 기운이 느껴지는 청년도 출가의 뜻을 굳혔다면서 ‘학식과 수행이 높은 원산 스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아름다우면서도 왠지 슬픈 영화를 본 듯 내 코끝이 자꾸 맹맹해지는 것은 왜일까? 원산 스님은 출가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일렀다. 잠시 원산 스님의 출가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세상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원산 스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때 한 동네에 살던 동생뻘 되는 사람이 통도사 자장암에 출가해 있었다. 절집 생활이 어떤지 궁금하여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새벽이 되니 종소리, 목탁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절집 생활이 이런 거라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나 하는 생각에 자장암을 나왔다. 동생뻘 되는 스님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극락암이 있는데 그 곳에 큰스님이 계시니 찾아뵈라”고 했다. 결단을 내리고 새벽 4시에 극락암으로 올라갔다. 삼소굴(三笑窟)에서 경봉 큰스님을 친견했다. 경봉 스님께서 어떻게 왔느냐고 묻길래 대뜸 “절에서 공부하고 싶어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경봉 스님은 찬찬히 훑어보시더니 “너는 과거생부터 불가에 인연이 깊다” 라고 말씀하셨다.

“경봉 스님의 그 한 마디 말씀에 세속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지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절에 온 것이 너무너무 잘했다는 마음뿐이지. 대장부로서 이보다 더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싶어요”

원산 스님은 “은사 스님은 기골이 장대하신 장부이시고 참선과 경학에도 막힘이 없었으며 붓글씨 또한 빼어나 도필(道筆)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고 회상하였다.

은사이신 경봉 스님의 “참선만 하라”는 말씀에 5년 동안 가부좌를 틀고 선방에서 수행했다. 그런데도 공부에 큰 진전이 없었다. 참선한다면서 진전도 없고 경학에도 밝지 못하니, 이러다가는 무식쟁이 소리듣기 꼭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마침 직지사 관응 스님께서 여름철 한 달 동안 <선문염송>을 강의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염송 강의가 끝나자 수강생중 10여 명은 따로 남아 관응 스님을 모시고 경학을 본격적으로 연찬하기로 뜻을 모으고 3년 결사에 들어갔다. 3년간의 집중적인 경학연찬을 마치고 관응 스님의 강맥을 이어받았으니 그때가 40대였다. 원산 스님은 더 공부하려면 남을 가르쳐야한다는 생각에 직지사 강원에서 강주를 맡았다. 그 후 통도사에서도 강주 소임을 맡아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백련정사에 들어온 횟수가 서른 해 하고도 4년을 더 보탠 햇수이다. 토굴에서 정진하겠다는 생각으로 다 허물어져가는 집 한 채에 전화도 전기도 없는 백련정사에 들어왔다. 불편함을 덜려고 시작한 불사였지만 하다 보니 도로도 내고 전기도 들어오고 법당도 새로이 짓는 등 큰 불사가 되었다. 구하기도 어렵다는 금강송으로 기둥을 세우고 단청도 최고 수준으로 마무리 하였다. 불사를 하면서 오래 전에 수행했던 토굴터를 발견했다.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토굴터를 수리하여 죽림굴이라 이름 붙였다. 죽림굴을 지어 자신을 그곳에 가두고서는 빗장을 걸어버렸다. 무문관 3년 결사를 한 것이다. 원산 스님의 무문관 수행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차다. 면벽 3년을 마치고 나온다는 그날, 천여 명의 대중들이 백련정사에 운집하였지만 스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문 없는 문을 열고 나와 말 없는 말로 법을 설한 것이다. 말없는 말로 설한 법문이었기에 천여 명의 대중들은 각자 근기대로 받아갔으리라.

원산 스님은 무문관에서 3년 동안 무서우리만큼 치열하게 수행하였건만, 칠십을 바라보는 연세인데도 2007년 하안거는 극락암에서, 동안거는 칠불암에서 결제하며 젊은 수좌들과 똑같이 수행하였다.

2008년 시월 보름에 원산 스님께서 ‘만인동참 만일염불회’를 입재하였다는 소식에 조금은 의아해하였다. 경봉 스님 문하에서 참선을, 직지사 관응 스님 아래서 경학을 전수하여 선교쌍수(禪敎雙修)를 이룬 원산 스님께서 염불선을 하신다니 놀랄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화두 참선 수행은 어쩌고 염불선으로 돌아섰는지 내심 궁금하였다. 그동안 공부한 것을 버리고 염불선을 취하는 것인지 여쭈었다.

“전의 공부를 버리고 염불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 공부에 염불을 더하는 것이지요. 다 알고 보면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없어요. 참선도 해보고, 경학도 해보고 다 해보았는데, 염불을 해보지 않았으니 한 번 해 보고 싶었지요. 그런데 참선과 염불은 다르지 않습니다. 서산 대사는 ‘염불이 참선이요 참선이 곧 염불’이라 했어요. 그리고 영명연수 선사는 ‘참선을 하면서 염불을 하는 것은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본래 날쌔고 빠른데 날개까지 달았으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 참선과 염불을 겸해서 하면 성불이 빠르다는 말이 되겠지요.”

원산 스님은 무언가를 나누고 분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염불이 곧 참선이요, 참선이 곧 염불’임을 강조하였으며, 불교의 요체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인데 수행과 포교가 둘이 될 수 없다면서 포교를 열심히 하는 것 또한 수행이라 했다. 그리고 ‘선과 교와 율은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삼위일체’란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율은 부처님의 행동입니다. 선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함이고 교를 배우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며, 율을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을 닮기 위함인데 어찌 이것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백련정사의 내력을 보면 염불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은 통도사 성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옛 백련암 누각에는 백련정사 만일승회기(白蓮精舍 萬日勝會期)라는 장문의 글이 새겨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동진 때 혜원 법사가 여산 동림사에서 백련결사를 결성해 123명이 깨달음을 얻었고, 신라



> ‘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찾기 위함이고
> ‘교’ 배우는 것은 부처님 말씀 듣기 위함이며
> ‘율’ 실천은 부처님 행동 닮기 위함이다

백련정사는 공민왕 때 창건하여 한때는 염불당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근래에는 운봉, 성철, 향곡, 구산 스님 등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선승들이 정진한 선원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원산 스님이 주석하고 부터는 천일기도를 회향한 아름다운 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 했다. 원산 스님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백련정사를 영축산 통도사총림의 염불원으로 신청하였으며, ‘만인동참 만일 염불회’를 창설했다.

만일염불회는 ‘1만 명이 한자리에서 1만 일간 염불선을 통해 깨달음과 안락을 얻고 정토에 왕생함을 발원하는 기도로 불교의 전통 수행법’이다. 천일을 열 번 더하여야 만일이 되니 회향이 언제인지 손가락으로 꼽아보기도 힘들다. 2028년, 원산 스님이 93살 때 회향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동안의 염불이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시간의 물레바퀴 속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인간의 강인한 원력이 스며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만일(萬日)이라는 그 긴 시간보다 만일동안 부처님을 염하겠다는 인간의 의지가 더 숭고하게 느껴진다.

원산 스님은 ‘만일염불회’ 회향을 위해서도 오래 살아야 한다고 눙쳤다. 경봉 스님께서 92살에 입적하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12권 출간
각권 15,000원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값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하늘의 기운, 신의 숨결, 조상의 지혜
부적! 이제 대용품으로는 안된다
槐괴 黃황 紙지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제품 괴황지는 홰나무(일명 귀신나무)의 꽃과 열매(콩같은것)을 당년 7월7석(전삼일, 후삼일에) 소승이 직접 채취(강원도 영월)하여 그늘에 잘 말린후, 동지날(전삼일, 후삼일)에 즙을 내어 그물로 9번 순수 한지에 물을들여 건조시키는 까다로운 물건입니다.
작업시에 발생하는 역한 냄새와 건조시키는 과정때문에 일반인들의 가정에서는 제작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대용품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치자물들인 창호지로 그 용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승은 옛 선사님의 비법 그대로 순수 닥나무로 수작업한 전주한지를 엄선, 정화히 9번 물들여 건조하였음을 부처님의 제자로서 합장하며,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제작되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시어 미리 주문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주문처: 전북 장수군 계북면 농소리 589번지 몽련암
관봉합장 (063)353-1232 / 010-6229-0108
농협: 507079-51-012924(예금주:이창주)
E-mail: m3531232@hanmail.ne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주지스님께 권합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아래 태아영가를 정성과 사랑으로 품에 안고 극락왕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장보살님(소불)을 법당에 모셔두고 낙태영가 천도대신 지장보살님을 한 佛씩 모시도록 권장하시면 쉽게 동참하시여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불크기 약7치 제조 국산 / 디자인 등록 출원
문의전화
051)336-9922 / H.P 011-567-2626
부산 북구 법정사 주지 합장
계좌번호 : 농 협 177467-51-075633 법정사
새마을 1615-09-045513-6 법정사

“염불이 참선, 참선이 염불”



셨고 관응 스님께서 94살에 입적하신 것에 비추어 볼 때 가능성 있는 발원이다. 안심입명(安心立命)을 구하는 것이 불교인데, 염불삼매에 들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몸까지 편안해지니 더없이 좋은 수행법임을 강조했다.

아미타부처님의 본성은 무한한 빛이요 무한한 생명이다. 그 무한한 빛이 온갖 세상을 남김없이 두루 비추기 때문에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이라는 배에 타는 자는 누구든지 해탈할 수 있다. 또한 아미타 부처님은 무한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원력 세계에 이르는 자는 죽음을 넘어선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

흔히들 ‘나무아미타불’은 서방정토에 가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원산 스님은 극락이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현실에서 극락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 했다.

작년 시월 보름에 입재하여 날마다 염불회에 동참하고 있다는 원산 스님은 “염불을 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좋다”고 하였다. 참선할 때 느끼는 편안함이나 고요함과 같다는 말씀이 아닌가 싶다. 스님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원력을 세우면 끝가지 해내고야 말기에 ‘만일염불회’에 거는 사람들의 기대 또한 크다.

원산 스님은 통도사 바로 코앞에 초산유원지를 개발하겠다는 양산시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2000년부터 시작된 초산유원지 개발반대 운동에서 모든 사람들이 중도 포기했을 때 스님은 혼자서 셀 수도 없는 공문과 진정서를 보내고 전국의 관계자들을 찾아다녔다. 그런 보람이 있어 7년 만에 통도사와의 협의 없이는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는 양산시의 입장을 공문으로 받았다. 어떠한 타협도 없이 ‘영축산을 지키다 죽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투쟁한 스님의 의지 앞에 양산시도 손을 든 것이다. 스님은 이것을 두고 그래도 밥값은 한 것이라면서 흐뭇해 하셨다. 스님의 번뜩이는 선지가 느껴지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자기 몸뚱이만 자기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주와 내가 한 몸이라 생각하면 자연도 아끼고 모든 것을 아끼게 됩니다. 우주가 내 집인데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되겠어요? 우주가 내 집인데 몇 평 아파트인지 따지는 것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야기는 다시 염불선으로 되돌아왔다. 흔히들 화두참선은 자력신앙이요, 염불선은 타력신앙이라 한다. 이에 대해 스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다.

“만약 강을 건넌다고 할 때 자력신앙이란 스스로 헤엄쳐서 건너는 것이라면 타력신앙이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아요. 어느 것이 쉬운가? 강을 건너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력이던 타력이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강을 쉽게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원산 스님은 자력이던 타력이던 저 강을 건너 피안의 세계로 가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참선과 염불 중 어느 것이 더 수승하다는 그런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다.

“염불은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자성을 관조하기 때문에 자력신앙이면서 타력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염불은 하기도 쉬울뿐더러 쉽게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생교화 방편으로 활용한다면 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염불 수행이 기능적인 면에서는 선의 명상과 같으나 선보다는 훨씬 쉬운 수행법인지라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이 삼매를 이루는 데는 더욱 효과적인 수행임을 원산 스님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선이 불교계를 풍미할 때에도 염불 수행은 주된 수행법으로서 이어져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 같다.

원산 스님의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세상 시름을 잊게 된다. 무애가를 부르면서 나무아미타불로 중생을 구제하였다는 원효 대사의 염불 또한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다. 어디선가 불어 온 한줄기 바람이 대숲을 흔들고 지나간다. 말라버린 연잎을 보듬어 안은 채 동면에 들어 간 연못을 한 바퀴 돌고서 산을 내려왔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원산 스님은 1964년 출가하여 1969년 통도사에서 경봉 스님을 은사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통도사, 범어사, 동화사 전문 강원 수학. 극락선원, 송광사, 봉암사 등에서 17년여 수선 안거. 직지사 황악학림 졸업. 직지사 관응 대강백으로부터 전강. 직지사, 통도사 강주 역임. 조계종 초대 교육원장 역임. 통도사 백련정사 무문관 3년 결사 정진. 2008년 ‘만일 염불회’ 창설. 현 통도사 백련정사 주석.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28〉 천태종 상월 대조사

상월원각(上月圓覺, 1911~1974) 스님은 중국 천태대사의 지관(止觀)정신과 고려 대각국사의 천태사상을 중흥한 대조사다. 소백산 골짜기에 조그마한 초옥을 짓고 주경야선(晝耕夜禪)으로 정진하다가, 병들어 죽게 된 사람들을 수백 명 고치다보니 정법을 자칭하는 타 종단에서 사마외도(邪魔外道)라며 업신여김을 받았다. 마침내 정부에서까지 없애려 하던 것을 불교 중흥의 원력을 세운지 20년만에 ‘대한불교 천태종’으로 인증되니, 스님의 수행경력으로 보면 거의 4반세기가 훨씬 넘어서 이루어진 쾌사이다.

필자가 구인사를 찾은 것은 1968년 법인 허가가 난 그 이듬해였으나, 4년 후 여름 안거 기간에 가서보니 수천명의 신도들이 좌우 건물에 빽빽이 들어 앉아 ‘관세음보살’을 염창하여 마치 천상세계에서 음악소리가 울려퍼지는 것 같았다. 특히 저녁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철야정진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앉아 정진하였고, 비가 오는 날에도 우비를 쓰고 앉아 기도하였다.



“실상은 무상, 묘법은 무생, 연화는 무염” 강조

상월 조사는 머리도 빡빡 깍지 않고 옷도 두루마기식으로 간단히 만들어 입고, 일을 하실 때는 체면과 이면을 가리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저 속에 무슨 도가 있겠나 생각되지만 막상 철야정진을 같이 해 본 사람이라면 ‘저렇게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사나?’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15세에 불교에 귀의하여 열반에 드실 때 까지 큰 탈 없이 잘 지내셨다.

중생이 병이 들면 함께 병이 들고, 중생이 고통에 쌓여 있으면 함께 고통을 겪으셨다. 만년에 이르러서는 구인사의 중흥불사와 종도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다소 지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언제나 법문은 한 가지, 여러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실상(實相)은 무상(無相)이고, 묘법(妙法)은 무생(無生)이며, 연화(蓮花)는 무염(無染)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보리요, 무애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전체구현이다. 일심이 상청정(常淸淨)하면 처처에 연화개(蓮花開)니라.”

이것은 스님께서 30년 동안 체험하신 수행의 결산이다.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깨닫고,

“신비하여라 부사의의 해탈이여. 일체중생이 똑같이 가지고 있구나. 단지 무명에 가리어 이를 볼 수 없도다.”

하였는데, 그 부사의해탈 경계는 모양이 없으므로 무상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온갖 법이 나타나고 있으니 묘법이요. 그것은 생사거래에 관계가 없으므로 무생이다. 마치 진흙 속에 태어나 있으면서도 그에 물들지 않는 것 같이 처염상정(處染常淨)하므로 무염(無染)이다. 누구나 이 도리만 깨달으면 진속(眞俗) 양경에 걸림이 없게 되므로 무애해탈이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힘에 의해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행의 결과로써 자기 몸에서 나타는 것이므로 자체구현이다.

이 얼마나 간단 명료한 진리인가. 천태종에서는 따로 봉지를 트고 하우스를 벗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스스로 노력하여 자연 재해를 이기는 것이 마치 풀 나무가 눈서리 가운데서도 까딱 없이 잘 자라듯 자기 공부를 자기가 실천하므로 힘을 얻어 자신을 개척하되, 남은 힘을 이웃과 사회에 돌리면 그것이 곧 복지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곳곳에 연꽃이 되어 전국 방방 곳곳에 도량을 세운 곳이 수백 곳이고, 집집마다 자기 법당에서 가족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기아 돕기, 의료봉사, 무지퇴치운동과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북한 이재민 돕기, 6·25동란으로 거의 파괴되어 매몰된 구 사지(寺址)를 발굴 복구하는 중창불사사업은 어떤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 수백만 신도의 신심과 원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상월 조사의 정신은 여러 사람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으나, 특히 종단의 의결기관을 주관하고 있던 박형철 회장님과 제2대 종정을 지내신 남대충 스님, 여러 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전운덕 스님과 윤덕산에게 계승되어 크게 결실을 보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스님의 열반게송을 읊어본다.

“모든 부처님들도 출세한 일이 없고
또한 열반에 든 일도 없다.
죽고 나는 것이 본래 공적하여
찾다가 기우는 것이
마치 하늘에 떴다 지는 달과 같다.”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70>
(修習止觀坐禪法要)

제9장 치병(治病) ④

병의 근원은 밖으로 치구하는 반연심

次有師言 臍下一村名憂陀那 此云丹田 若能止心守此不散 經久卽多有所治 有師言 常止心足下 莫間行住寢臥 卽能治病 所以者何 人以四大不調 故多諸疾患 此由心識上緣 故令四大不調 若安心在下 四大自然調適 衆病除矣

지 수행을 통해서 병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배꼽에서 한 치 아래를 '우타나'라고 하는데, 이는 단전을 말한다.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달고 나오는 것을 탯줄이라고 하고 탯줄이 끊어진 곳을 배꼽이라고 한다.

단전이란 내단(內丹)을 수련하는 곳이다. 의서인 황정외경경(黃庭外景經)에서는 "단전 가운데 정기가 은미하다"라고 하였다.

일설에는 단전이 세 군데라고 한다. 배꼽아래를 하단전이라고 하고, 심장아래 있는 것을 중단전이라고 하고, 양쪽 어깨사이에 있는 것을 상단전이라고 한다.

지금 밝히고 있는 것 셋 가운데 배꼽아래 있는 하단전이다.

수행자가 하단전에 마음을 집중하여 흩어지지 않도록 하여 오랜 시간 지나면 병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 단전은 바로 기해혈(氣海穴)인데, 이 혈은 만병을 소멸할 수 있다. 만일 여기에 마음을 집중한다면 호흡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때문에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이다.

수행인이 알아야 할 것은 단전만 지켜도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배꼽에 의식을 집중해도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두고 옛날 큰스님은 말씀하기를 "마음을 배꼽에 집중한 뒤에 눈을 감고 입과 치아를 합하고 혀끝은 윗잇몸을 떠받쳐 기운이 조화롭게 해야만 한다. 만일 마음이 밖으로 달리면 거두어 되돌리고, 생각을 해도 배꼽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그 모습을 자세히 살피고 의식을 집중하면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다"라고 하였다.

외도에게도 이 같은 수련법이 있기는 하지만 단지 그들은 이 경지를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집착을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또 어떤 스님은 "항상 마음을 발바닥에 집중을 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모든 병환은 사대가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사대가 조화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위로 들뜨기 때문인데, 만일 마음이 아래로 내려가면 음식이 소화되고 오장육부가 순조롭게 돌아가면서 사대 역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옛날에 나이 구십이 넘은 어떤 늙은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장수하는 비결을 물었더니 "나에게는 특별한 비결은 없고 매일 잠이 들기 전에 발을 씻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단지 발만 씻어도 병이 낫는데 마음을 발바닥에 집중한다면 이는 가장 훌륭한 치료법이 될 것이다.

집착심 끊고 마음을 놓아버려야 병도 안 생겨
제법은 공적, 병의 모습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발바닥이란 의서에서 말하는 용천혈(湧川穴)을 말한다. 이 치료법은 병을 치료하는데 많은 이익이 있으므로 수행인은 항상 이 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有師言 但知諸法空無所有 不取病相 寂然止住 多有所治 所以者何 由心憶想鼓作四大 故有病生 息心和悅 衆病卽差 故淨名經云 何爲病本 所謂攀緣 云何斷攀緣 謂心無所得 如是種種說 用止治病之相非一 故知善修止法 能治衆病

어떤 스님은 말하기를 "제법은 공적하여 실제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병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고요하게 정지하면 병이 낫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였다. 우리의 마음은 지수화풍 사대를 고무시키기 때문에 병이 일어나므로 마음을 쉬어 사대를 화기롭고 기쁘게 한다면 모든 병환이 바로 낫게 된다.

정명경(유마경)에서는 말하기를 "무엇이 병의 근원인가. 이른바 밖으로 분별하고 치구하는 반연심이다. 어떻게 반연심을 끊어야 하는가. 마음에 얻었다는 소득심이 없어야만 한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갖가지 말씀을 살펴보면 지 수행으로서 병을 다스리는 모습은 한결같지가 않다. 그러므로 지 수행을 훌륭하게 하면 많은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수행인이 도학을 강론하고 불법을 선양하는데 있어서 세간의학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생사를 해탈하고 불과를 증득하려면 반드시 허깨비로 있는 사대를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만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

만일 이 몸이 없다면 도를 닦을 수 없다. 이를 두고 거짓을 빌려서 진실을 닦는 것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반드시 사대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가령 사대가운데 일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해도 백 한 가지 병이 일어나는데 사대 모두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옛사람은 말하기를 "마음이 편안해야 도가 융성해진다"라고 하였는데, 만일 몸에 병이 있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면 도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는가.

수행인이라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나마 알아야만 하고 그것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어떤 스님은 말하기를 "단지 모든 법은 공적하여 실제로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존재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허깨비라는 것을 명료하게 알아야만 한다. 일체 제법은 법마다 실제하는 모습이라고는 없다. 때문에 이와 같이 고요하게 마음을 머물고 안주하여 병의 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병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

이 몸은 실제가 아닌 허망한 허깨비의 모습인데 무엇 때문에 집착을 하겠는가. 단지 고요하고 담담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정가운데 안주해야만 할 것이다.

영가(永嘉)스님은 말하기를 "사대를 놓아버리고 적멸한 성품가운데서 임의로 마시고 먹는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 의미에 해당된다.

무엇이 병의 근원인가. 그것은 이른바 밖으로 치구하는 반연심이다. 반연심이란 집착 때문에 있게 된다. 반연심 때문에 소득심이 있고 소득심이 있으면 병이 있게 된다. 수행인이 소득심이 없는 무심의 경지를 구하려면 반드시 반연심을 끊어야 하며 반연심을 끊으려면 집착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반연심을 끊어야 하는가. 이는 마음의 소득심을 없애면 된다.

혜가(慧可)대사께서는 달마대사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찾아보았으나 끝내 얻지를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반연심이 끊어진 경우이다.

또 능엄경에서는 "내 외 중간 그 어느 곳에도 마음으로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반연심을 끊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속담에서 말하는 "가죽이 존재하지 않는데 털이 어디에 붙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것이 지 수행으로서 병을 다스리는 근본 방법이다. 따라서 지 수행을 훌륭하게 한다면 모든 병을 다스릴 수 있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사제법문(四諦法門)

③ 멸제(滅諦)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범부들은 세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현세에 존재하는 '아(我)'를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혹의 견해 때문에 모든 악업을 짓게 되고, 그 때문에 괴로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고과를 제멸하고 싶다면 악업을 짓지 말아야만 하며, 업을 짓지 않으려면 망상을 끊어야 하고, 망상을 끊으려면 세계의 진실한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세계의 실상은 본래 무아(無我)의 이치임을 명료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세계의 실상이 본래 무아임을 알았다면 착각의 미혹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그에 의한 업을 짓지 않게 되어 그 결과 연쇄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생사윤회의 고리가 단절됩니다. 생사의 고통이 이를 따라서 해탈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멸제'라고 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무명번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업도 역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세간원인의 소멸이며, 미혹과 악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의 과보 역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세간과보의 소멸입니다.

이처럼 고집이제의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소멸하여 생사가 영원히 다하고 열반의 안락을 끝까지 증득하는 이치가 바로 '멸제'인 것입니다.

④ 도제(道諦)

'도'는 고를 소멸하는 '도'인데, 이는 도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고통의 소멸로 인해 열반에 당도하는 도로라는 것입니다.

수행의 길은 매우 많지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에서 설해진 모든 내용들은 단지 '도'를 강론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요점은 팔정도(八正道)와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으로 요약되며, 이를 다시 간추리면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도법(道法)을 의지하고 수행해야만 고집이제를 끊고 고통을 소멸한 이후에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도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제'의 도로를 따르기 때문에 세간의 진상인 고통을 알아[知苦], 그 원인인 혹업을 끊으려고[斷集], 열반을 증득하는[證滅] 도를 닦는다[修道]는 것입니다. 이상의 멸도이제(滅道二諦)는 깨달음의 세계, 즉 출세간의 인과관계인 것입니다.

사제법문의 내용을 비유하면 '고'는 병환과 같고 '집'은 병이 일어나는 원인과 같으며 '멸'은 병이 치유된 것과 같고 '도'는 병을 치료하는 약과도 같습니다.

세간 생사의 고통에 염증이 일어난다면 사제법문의 이치를 올바르게 관찰하고 실천 수행해야만 해탈을 증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무선마이크 무료보시 합니다!
2008년 12월 ~ 2009년 1월 中 앰프, 스피커 설치 사찰에 한함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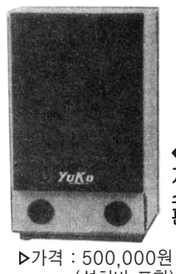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 책임 교육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소승이 지면으로 나마 합장하고 큰절을 올립니다. 이제 최면교육은 유마최면 연구소라는 명성이 스님들 사이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더욱 분발하여 책임교육·평생교육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소승은 초심을 잃지 않고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자기 최면 완성반 회원모집 ★ ▶ 수련기간 : 20회, 인원 10명
개인 맞춤식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지도! 무의식에서 삼생의 時, 空을 넘나 드십시오!

“업 지으면 언제나 받을 준비하고 감사하게 갚으세요”

정찬주 구도 소설 – 혜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 〈4〉

제1장 봉갑사 가는 길 4

법당으로 들어온 대연 거사는 혜암 스님 사리가 봉안된 보각 앞에서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었다. 바람이 부는지 법당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댕그랑 댕그랑 소리를 냈다. 풍경소리는 문득 대연 거사에게 해인사를 떠올리게 했다.

2001년 12월 30일. 그날 해인사 여행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대학의 전임강사 직을 버리고 며칠 동안 빈둥거리던 중에 혼자서 떠난 다분히 충동적인 여행이었다. 두 번째로 내려가는 해인사 행이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심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동안에 혜암 스님을 인터뷰하는 기자친구를 따라 갔었고.

대학을 떠나려 하자,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선배 교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인생의 분기점에 와 있구나 하는 직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2학기 동안 내내 고민하다가 겨울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사표를 던졌던 것이다.

그때 그의 가방 속에 든 물건은 읽다만 소설책 한 권, 칫솔 한 개가 전부였다. 승용차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 행선지는 해인사로 정했다. 2년 전, 기자친구와 함께 뵀던 혜암 스님의 한 마디가 줄곧 뇌리를 떠나지 않아서였다.

“업을 지어놓으면 무량겁을 지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받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빚 하나 갚을 시간이 됐다고 하면 나로서는 즐겁고 기쁠 때구나 하고 생각할 일밖에 없습니다. 내 빚 갚을 시간이구나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돌려야지 사람을 원망하고 또 자기가 당한 사고를 재앙으로만 생각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혜암 스님의 한 마디는 절절했다. 2년 전에 들은 얘기가 아니라 좀 전에 들었던 말처럼 늘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날 밤, 그는 젊은 원주스님에게 방을 배정받고는 해인사라는 절 이름을 나름대로 ‘불법의 바다(海)에 자신의 마음을 도장(印) 찍듯 바치는 절(寺)’이라고 해석하며 몸을 누였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전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니 문득 마음이 편안했다. 혜암 스님의 당부대로 자신의 고통을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원망하는 마음은 순간적이나마 사라졌다.

그래서인지 하룻밤을 단 한 순간도 뒤척이지 않고 깊은 잠을 잤다.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처음 맛보는 꿀맛 같은 숙면이었다. 절이 고향 집 같고, 할머니 품 같았다. 어린 시절 그는 할머니의 자장가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날 밤 가야산 솔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침이 돼 풍경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아침공양 시간이 서너 시간이 지나버린 뒤였다. 창호를 투과한 햇살이 물너울처럼 방바닥에 어른거렸다. 그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법당 마당으로 나갔다. 원주스님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참배객과 관광객들이 벌써 한두 명씩 짝을 지어 경내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해인사가 전혀 낯설지 않았다. 절을 떠나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곤 했다. 일주문 계단을 내려서면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왼편 비봉산 산자락에 박힌 원당암의 가람들이 홀연히 눈에 들어왔고 왠지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원당암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주차장으로 느릿느릿 걷는 동안 느닷없이 범종소리가 연달아 울렸다. 늦은 아침에 범종소리가 가야산 골짜기를 울린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었다. 매표소 쪽에서 바삐 걸어오던 한 스님에게 묻자, 스님은 ‘종정스님께서 열반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합장했다. 종정스님이라면 원당암의 혜암 스님을 가리켰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되돌아 올라갔다. 앞서가는 스님을 따라 걸으려 했지만 스님의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뒤쳐졌다. 아마도 스님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혜암 스님의 문도스님이 분명했다. 일주문에는 벌써 가사를 걸친 해인사 대중스님들이 노스님들 뒤에서 2열로 도열해 있었다. 원당암 미소굴에서 운구 될 혜암 스님의 법구를 맞이할 준비였다.

이윽고 혜암 스님의 법구가 일주문에 도착하자, 해인사 대중스님 모두가 앞서가는 법구를 뒤따라갔다. 그도 맨 끝에 서서 다시 경내로 올라갔다. 법구는 경내 청화당으로 안치됐고, 경내는 어느새 스님들로 북적거렸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더 이상 서 있지 못했다. 장례절차와 조문객들의 문상을 준비하는 스님들에게 오히려 불편한 걸림돌 같았다. 그제야 그는 혼자라는 고립감에 빠졌다. 2001년 12월 31일의 추위가 뼛속을 파고들었다. 청화당 마당의 언 모래들이 밟힐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가는 해의 칼바람이 목덜미를 얼게 했다.

서울로 올라온 그는 일주문에서 본 원당암을 잊지 못했다. 혜암 스님이 입적하시는 동안 왜 자신은 일주문에 서 있었고, 원당암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무엇을 인지하고서 그랬는지 불가사의했다. 그 일을 우연으로 돌리고, 그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자신이 무책임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는 일 년 동안 내내 그 기억을 떠올리다가 혜암 스님 1주기가 돼 다시 해인사를 내려갔다. 이번에는 여행이 아니었다. 입산 출가할 각오로 내려갔다. 오후 4시쯤 막상 원당암에 도착했을 때는 혜암 스님 1주기 행사가 다 끝나고 난 후였다. 원주실이 있는 요사채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뿐 다른 가람들은 썰렁했다.

그는 원주실로 들어가 원주스님에게 차를 대접받았다. 나중에 원주스님의 법명을 알았는데 그가 바로 각안 스님이었다. 각안 스님은 무슨 말 끝에선가 자신이 혜암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이야기했다. 혜암 스님 1주기를 보내면서 은사스님이 생각나 그런 것 같았다.

“저에게는 일하는 가운데 법문을 다해주셨습니다. 돌 하나 놓고 나무 한 그루 심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마음 씀(用心)을 이야기해 주셨지요. 잘못된 부분은 어떤 시간이 됐건 고쳐야 한다, 그 순간을 미루면 그만큼 나태함이 생긴다고 경책하셨습니다. 일하는 동안 옛날에 생활하시던 일화를 말씀하시면서 중놀이 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저는 출가 전에 행자생활이 힘든 해인사에서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봐야 군대보다 힘들겠냐 하는 생각을 했지요. 그러는 동안 아는 분에게 우리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스님이 깐깐한데 버텨내겠느냐고 걱정도 했지만 사전연락 없이 당시 선방에 있는 부방장실로 찾아갔지요. 뵙는 순간 큰스님이라 해서 뭔가 압도할 것 같았는데 왜소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유월 날씨가 더웠는지 우리스님께서는 장삼을 벗은 채 소매가 칠부 정도 되는 얇은 옷을 입고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떨어진 양말 뒤꿈치를 전구 알에 끼워서 꿰매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육십 대인데 아이 같은 천진한 모습이었지요. 처음 절할 때는 큰스님이라고 해서 겁이 났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저를 부방장실로 데리고 간 분과 한참 얘기하고 나더니 ‘저 처사는 누구요’ 하고 물었고, 그제야 그분이 ‘출가하려고 해서 큰스님께 소개시키려고 왔습니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우리스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행자생활을 하되 부방장 스님을 안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행자생활 끝내고 그때 내 상좌가 되거라. 행자생활도 하지 않고 무슨 얘기가 되겠느냐.’ 행자생활이 힘들어서 도망친 예도 빈번하고, 큰스님 상좌로 들어왔다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중이 생길까봐 배려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말을 꿰매시는 천진한 도인의 상(相) 속에서도 중노릇의 기본을 철저하게 강조하신 스님의 진면목을 그때 저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각안 스님에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부러움 같은 감정을 느끼며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던 것이다.

“스님, 저도 출가하고 싶습니다. 큰스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출가생활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래도 그는 출가의 결심을 꺾지 않았다. 해인사 종무소 내려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리라고 생각했다. 그가 일어서지 않을 듯하자, 각안 스님이 원주실 보관함에서 테이프를 십여 개 꺼내와 내밀었다.

“우리스님 법문 테이프입니다. 날마다 들어보시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바람에 그는 자신의 결심을 더 주장하지 못하고 싱겁게 원주실을 나와 해인사 종무소로 향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의 출가의지를 꺾게 한 노스님을 만난 것은 원당암의 가파른 길을 내려와 무생교(無生橋)를 막 건너갈 무렵이었다.

선풍도골(仙風道骨)의 노스님은 올라오는 중이었고, 그는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다. 노스님은 걸어오는 것이 힘든지 다리 난간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 무생교 밑으로는 바위 사이로 계곡물이 차갑게 흘렀다. 노스님이 그를 불렀다.

“출가하고 싶은가.”

노스님이 밑도 끝도 없이 던진 질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 내심 놀라면서도 짐짓 그렇지 않은 채 말했다.

“스님,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게. 젊은이는 출가하고 싶어 원당암에 온 것이야. 난 행색을 보면 알 수 있어. 내 밑으로 출가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어야지.”

그제야 그는 자신의 몰골을 돌아봤다. 구두는 먼지가 묻어 더러웠고, 며칠째 다림질을 하지 않은 바지는 구깃구깃했다. 수염도 깎지 않은 지 이틀이 지나 있었다.

“스님, 출가하고 싶습니다.”

“아닐세. 출가하지 않고 도인 되는 방법이 있어.”

“가르쳐주십시오.”

“지금 다시 원당암 미소굴로 올라가 혜암 스님의 영정 앞에서 맹세하게. 스님처럼 절대로 눕지 않고 장좌불와를 하겠다고. 출가하지 않더라도 장좌불와만 할 수 있다면 혜암 스님처럼 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네.”

“스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젊은이가 보다시피 나는 지금 여기 쉬고 있는 중이네.”

그때 그는 장좌불와만 한다면 도인이 된다는 말에 출가하려던 마음을 슬그머니 접어버렸다. 그는 그 길로 미소굴로 올라가 혜암 스님 앞에서 ‘절대로 방바닥에 허리를 눕히지 않겠습니다’고 맹세했다.

지금도 대연 거사가 장좌불와를 하는 것은 그때 그 노스님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대연 거사가 법당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각안 스님이 해인사로 떠나고 난 뒤였다. <계속>

> “출가 하지 않아도 장좌불와 수행하면 도인 됩니다”



그림 · 최문정

혜암 스님 원적 후 출가결심했던 추억 떠올려

선풍도골 노스님 한마디에 지금까지 장좌불와

“젊은이.”

“스님, 부르셨습니까.”



마음으로 마음보기



해심밀경
지운역 | 연꽃호수 펴냄 | 2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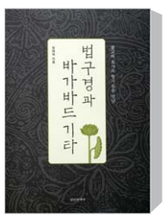
'세상의 일체사물은 오직 인간의 분별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미혹의 마음이 벌어지는 이유와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는 유식사상(唯識思想)을 다루기 시작한 불교 유가학파의 근본 경전인 <해심밀경>이 직역됐다. 한국불교전서 원측의 <해심밀경소>를 판본으로 한글대장경 <해심밀경> 원측소와 묘주역 <해심밀경>, 서대원역 <해심밀경>을 참조해 지운 스님(동화사 강주)이 직역한 번역서이다.

2004년부터 불교TV에서 <대승기신론>과 <해심밀경>을 강의해 온 스님은 대승의 수행과 단계를 체계화할 수 있는 단서로 현장 스님의 <해심밀경>과 신라시대의 유식학자인 원측 스님의 <해심밀경소>에 주목했다. 번역의 공덕이 후대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해심밀경>의 수행체계로 불교명상의 폄하와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다.

<해심밀경>은 미혹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과 생각을 떠난 궁극의 진리인 승의제를 제시한다.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있다고 집착하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유식만이 제시하는 수행법이다. 유식의 경계를 밝히고 유식의 관법과 행과(行果), 그리고 최고의 경지는 유무(有無)의 2가지 모습과 분별지를 떠나 있으며 아뢰야식의 나타남과 그 3가지 성품을 밝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근기가 다른 모든 수행자들이 다 같이 깨달음을 얻도록 은밀한 가르침을 풀이한 것으로 전해지는 <해심밀경>은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볼 수 있는지 그 실상을 헤아린다.

가연숙 기자



법구경과 바가바드기타 정태혁 지음 | 정신세계사 펴냄 | 2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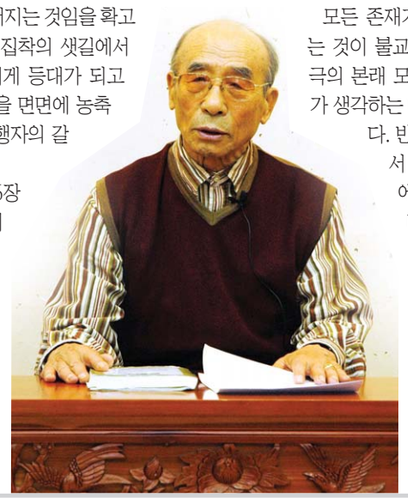
갈등 뛰어넘는 지혜…"그대에게 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되풀이 된 무수한 갈등이 역사라면 인류의 역사란 곧 인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끝없는 지평선을 향해 떠나는 배와 같은 것이 아닐까?'

불교의 지혜서(知慧書) <법구경>과 힌두교 요가 수행자가 부르는 삼매의 성가(聖歌) <바가바드기타(Bhagavadgita, 지존의 노래)>(이하 기타)가 심도 깊은 차원의 합일을 모색한다. 수천 년에 걸쳐 인도의 정신문화로 꽃 피운 성전이 한 진리의 두 얼굴로 논한 삼라만상의 '즉(卽)' 이다.

<법구경과 바가바드기타>는 1943년 월정사에서 지암 스님의 도제로 득도해 불교와 인도철학을 수학하고 요가와 아유르베다를 수행 연구해 온 향운 정태혁 박사(88)의 참구(參究)가 이뤄낸 또 하나의 결실이다.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진리를 설하신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경례하고, 깊은 삼매 속에 노래한 고대인도 요가 행자들에게 경배' 하는 저자의 경건함 속에서 부처님과 인도 성자의 참된 실상이 독자와 수행자들에게 바로 자리 잡히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을 엿본다.

저자는 깊은 성찰을 통한 믿음과 해탈의 길 위에서 두 경전을 조망한다. 위대한 종교의 가르침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몸으로 깨달아 얻어지는 것임을 확고히 다져간다. 허무와 집착의 샛길에서 방황하는 구도자들에게 등대가 되고자 하는 저자의 발원을 면면에 농축해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갈증을 해소해 준다.



<법구경>은 총 26장 423송의 시구로, <기타>는 총 18장 700송의 시구로 구성된 불교와 힌두교의 복음서다. 절대적인 평정 속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법의 가르침이 <법구경>이라면, <기타>는 절대적인 평정 속에서 마음을 일으키는 법으로 절대성 속의 상대성을 드러낸다.

진실의 문제에 관해 <법구경>과 <기타>는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모든 존재가 연기이며 무상하다는 것이 불교의 진리다. 만물은 궁극의 본래 모습을 나타낼 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반면 <기타>는 삶 속에서 죽음을 보고 죽음 속에서 삶을 보라고 말한다. 드러남에서 드러나지 않음을 발견하는 일, 그것이 곧 진실을 보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붓다는 선정을 닦으면 누구나 성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오직 너 자신을 믿고 법에 의지하라 말씀하셨다. 반면 <기타>는 나와 세계의 근본인 브라흐만을 알고, 그 마음을 브라흐만에게 돌려 전일(全一)하게 하는 요가의 관법을 통해 신과 내가 하나 되는 청정을 얻으라고 말한다. 불교는 자력으로 깨달음을 향해 가지만 법에 완전히 귀의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요가는 타력으로 신을 구하는 듯 보이지만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신에 다가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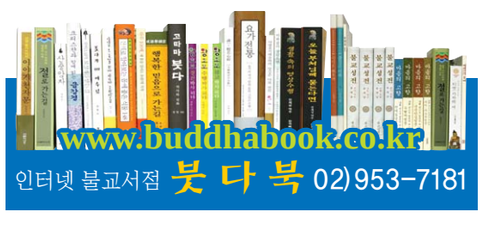
깨달음의 행복에 이르는 총 15부로 구성된 <법구경과 바가바드기타>는 자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집착을 버리고 넘어설 때 비로소 이르는 마음의 평화가 이르는 지점을 마치 잔잔히 흐르는 강물처럼 얘기한다. 종교는 인간의 갈등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길을 보여줘야 한다고 읊조린다. 새로운 차원의 길을 모색하는 지침, 그것이 바로 <법구경>과 <기타>의 공통 주제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5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6	인과경	현담	선
7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대행	한마음선원
8	스님도 군대 가나요	지장	클리어마인드
9	행복한 사람들	김천	하안연꽃
10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익숙한 것들도 낯설게 보자



사진과 카메라로 읽고 생각하기
대전문화예술교육연구회 펴냄 | 비매품

인간의 '식(識)' 은 영화 필름에 비유된다.

필름 한 컷이 지닌 찰나의 성질은 불교의 순간 개념과 다르지 않다. 허공을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 짓 1초속에는 24컷(Cut)의 찰나가 숨은 샘이다. <금강경>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는 실상문과 사진과 카메라가 담아낸 어둠상자 속의 잠상은 그 속성에서 많이 닮았다.

이런 측면에서 <사진과 카메라로 읽고 생각하기>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학습자가 적극적인 문화 생산자의 주체가 되는 길을 제안한다. 매체가 지닌 인문학적 사유 방식의 깊이를 심화하며 주입된 사회성이 아닌 자신이 직접 바라본 세계를 스스로 개척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기획자인 임민수 사진가는 사진과 카메라로 읽고 생각한다는 것이 '사유 작용의 실천' 이라고 설명한다. 사물을 사유하는 인식 주체의 수동성이 훨씬 풍요로운 창조적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한다. 현실을 익숙함에서 차별해 낯설게 보고 느끼도록 하는 창이 되는 사진과 카메라는 자아를 성찰하는 기반인 것이다. 이 책은 '2008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사진분야 운영지원사업' 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최로 발간된 결과 자료집이다.

가연숙 기자

조선시대 상류층을 재해석하다



세종대왕 가문의 500년 야망과 교육
이상주 저 | 어문학사 펴냄 | 1만4000원

리더십과 인간성으로 회자되는 세종대왕.

조선 최정예 엘리트 집단, 조선상류층의 역사이자 숨소리였던 세종대왕 직계 후손의 500년 역사가 밝혀진다. <세종대왕 가문의 500년 야망과 교육>은 20여 년 동안 신문기자로 활동해온 저자가 조선 시대 상류층을 재해석한 조선왕조사다.

파란 만장한 문중사 가운데 세종대왕의 여인 신빈 김 씨가 비구니였다는 사실에 주목해 본다. 임금 세종과 신분을 뛰어 넘는 세기의 로맨스를 펼친 그는 세종 사후에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됐다. 역대 왕들은 환속해 편히 살 것을 명했지만 세종을 잊지 못하고 "세상일을 잊고 대왕을 추모하며 살게 해 달라"며 평생을 절에서 살았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에 있던 자수궁(慈壽宮)은 현재 헐리고 없으나 한때 5000여 비구니가 거주한 최대의 승방으로 전해진다.

한 가문의 상처와 구부러진 내력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저자는 곧건, 곧지 않건 우리의 역사라고 말한다. 본받을 점은 계승하고 안타까운 점은 경계로 삼는 것이 요즘을 사는 이들의 몫일 것이라고 당부한다. 1만 9000명의 세종대왕 후손들이 만들어낸 밀성군 가문의 이야기가 조선의 역사로 면밀히 펼쳐진다.

가연숙 기자

'무자' 화두를 참구해야 깨달아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 : 몽산덕이
허흥식 지음 | 창비 펴냄 | 2만8000원

간화선이 풍미하던 13세기 고려 불교, 그 안에 원나라 임제종의 고승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1308) 스님' 이 있다. 그의 사상과 저술 활동은 고려 말과 조선 전기에 불교를 지키기 위한 전거였다. 성리학이 주도한 조선에서 불교의 기반이 된 고려 조계종과 함께 한 스님의 발자취가 한국 사상사에 미친 지대한 공헌으로 밝혀진다.

<고려에 남긴 휴휴암의 불빛>은 한국 역사학계에서 고려사와 중세사상사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허흥식 학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집필한 고려불교 연구서다. 몽산덕이 스님의 행적을 따라 중원과 고려의 불교가 맺은 관계를 규명하고 동아시아 사상교류의 재정립을 역설한다.

중국 강남지방에서 활약하던 스님은 모든 이론적 가르침을 부정하고 오로지 '무자(無字)' 화두를 참구하는 것만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태고보우 스님의 수행 원류를 몽산덕이 스님의 행적을 통한 임제종의 법맥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스님의 선교일치(禪敎一致)와 삼교일치(三敎一致)론 등 동아시아에서 자생한 유교와 도교에 대한 화두는 오늘날 종교와 사상의 보편성을 시사한다.

가연숙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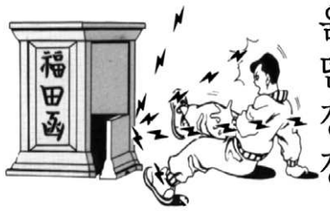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 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 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식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코끼리마차(Elephant Cart)'

2월 4~5일 용인 백남준아트센터 새로운 도약 예고

백남준의 축제 'NOW JUMP!' "백남준의 선물'

故 백남준(1932~2006)에게 '달'은 가장 오래된 TV였다. <월인천강지곡>에서 부처의 은혜를 상징했던 달이 그에게는 인류의 상상력이 물든 화면이었던 것. 백남준 작품의 '코끼리 마차(1999~2001)'는 전화기, 축음기, 오래된 텔레비전과 오디오 케이스, 그리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영상이 담겨진 모니터들이 가득 실려 있다. 노란 아디다스 우산을 쓴 부처님은 케이블로 묶은 코끼리마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려 한다. 백남준의 예술과 사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TV부처(1974)' 또한 자기성찰 같기도 하고 나르시시즘 혹은 상념에 빠진 듯 다양한 부처를 통해 내면을 응시한다.

분별과 분별 되는 것.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표상을 갖는다. 단순히 분별되는 것을 말하자면 실체화된 표상에 지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그와 같은 표상을 갖는 마음 뿐 이다. 그러한 마음의 표상을 미디어 예술로써 새로운 지평을 선보인 이가 백남준이다. 비디오의 속성은 불교의 선(禪)과 닮았다. 순간의 기록은 정념(正念)이자 업(業)의 습기(習氣)다. 미디어의 주사선이 그려낸 화상을 분해하면 그 구조는 상입상즉(相入相卽)한 화엄의 인드라망을 연상케 한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복합예술공간 백남준아트센터는 4개월간 선보여온 백남준페스티벌 'NOW JUMP!' 展 폐막을 2월 5일로 앞두고, 4·5일 양일간 경기문화재단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백남준의 선물-관점 이동과 시간성의 문제'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연다.

한국적인 정서와 보편적인 국제성을 동시에 가진 백남준의 예술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리고 있는 백남준페스티벌의 'NOW JUMP' 展은 예술적 시도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담는다. 백남준의 작업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를 통해 어떻게 백남준에 관련된 창조적 에너지를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전시는 총 5개 스테이션(정거장)으로 구성됐으며 각각 퍼포먼스와 담론 생산의 플랫폼으로 백남준의 예술상을 선보인다. 백남준 및 그와 친분을 맺었던 요셉 보이스와 존 케이지 등 예술가들에 관한 기록과 작품들에 관한 스케치를 비롯해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무후무한 전위적 퍼포먼스를 펼쳤던 백남준의 행위예술 이후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퍼포먼스를 조망한다. 더불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결 고리를 잇는 다양한 맥락의 작품이 어우러져 도시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드러내고, 예술의 사회적 공명을 꾀하기 위한 담론의 세계를 펼치면서 현재 미디어 아트 영역에서 주목한 젊은 예술가를 발굴해 그들의 작품을 전시 한다.

백남준 담론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 '백남준의 선물-관점 이동과 시간성의 문제'는 4일 경기문화재단에서, 5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각각 열리며 백남준페스티벌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한다. 세미나 첫날은 백남준 예술의 기존 맥락에 대한 관점 이동을 시도하는 다양한 발제자들의 발표로 시작한다. 바존브락(독일)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선택한 백남준의 실험을 확장한 맥락으로 기술과 예술 실천의 상관관계를 논한다. 둘째 날 세미나에서 시인이자 건축가인 함성호는 종교와 시학, 구축과 해체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백남준의 예술을 제시하며 '앞으로 백남준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관념적인 접근이 아닌 실행과 혁신을 강조한 백남준페스티벌의 타이틀 'NOW JUMP!', 백남준의 예술혼을 되살리고 그를 넘어 미래 예술로 도약하는 청사진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이번 행사는 예술의 실천이 제안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적 꿈과 정치적 가능성을 상상하게 한다. (031)201-8500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TV Buddha'

생활불교 법구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2008년 11월 28일 부터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8년 동지달부터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적색글씨에 해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당되는 분은 악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삼재입니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 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형통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 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 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 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 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특별선물 : 단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와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⓭ 노모의 만두이야기1

3대의 만두 빚기 열전 – 밥은 경험

설 명절, 팔순 노모의 마음은 설렌다. 당신의 음식에 열광하는 자식들의 모습이 흐뭇해 몸이 절로 마음을 따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아들 며느리가 네 쌍이요, 그에 따른 손자들도 수두룩하지만 명절음식 준비는 오롯이 노모의 몫이다. 팔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깔끔스러운 성격과 자식들의 수고로움을 덜고 싶은 모정을 누가 모를까마는 가끔은 안쓰럽다. 노모네 옆집에 사는 조카 미진이도 나이가 들수록 철이 제대로 들어 그런 외할머니가 짠한 모양이다. 할머니의 성화로 점심을 먹으러 놀러 와서, 내친 김에 할머니와 만두를 빚어보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인다. 이모체면에 그냥 지켜볼 수는 없는 일. "나도 오랜만에 만두나 빚어볼까" 하면서 거드는 시늉이라도 내어본다.



"오늘은 웬일들이여.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네."

철없고 게으른 늦둥이 딸과 갓난아기 때부터 손수 키워 애정이 각별한 손녀딸이 가세하니, 노모의 표정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든든함과 "니그들이 뭘 하겠냐"는 못미더움이 교차한다. 그래도 그러한 마음이 고마운 노모는 거실 한쪽에 신문과 보자기를 펼쳐 자리를 마련하고, 도마와 방망이, 쟁반, 칼 등의 도구들을 내온다. 그러한 도구들 중 오랜만의 해후로 유독 반가운 물건이 있으니, 바로 밀대용 방망이다. 작고 아담한 크기의 방망이는 나의 유년기를 함께 했을 만큼 오래된 살림도구다. 엄마가 밀가루반죽을 길쭉하게 뽑아 일정한 크기로 잘라 밀가루를 홀홀 뿌려주면 나는 그것을 자그마한 방망이로 부지런히 밀곤 했다. 내 나이보다 오래되었을 방망이의 나뭇결을 어루만져보는 사이, 찰진 밀가루반죽과 노모의 특기인 매콤한 만두 속이 등장한다.

"만두는 무엇보다 반죽을 잘 쳐야 빚기가 쉬운 거야."

"어떻게 하는데? 밀가루에 계란을 섞나?"

허구한 날 음식에 관한 이야기만 써댈 뿐 실전에는 도통 관심 없는 막내딸이 웬일로 질문을 다하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봐야 니가 하겠냐?"며 퉁을 놓고, 조카는 공감이라도 한 듯 옆에서 키득키득 웃기만 한다.

"물을 팔팔 끓여 밀가루에 넣고 반죽을 해야 하는 거야. 처음엔 뜨거우니까 주걱으로 밥을 푸는 것마냥 뒤적이면서 물 양을 맞추다가 나중엔 손으로 계속 치대는 거지. 너무 질어도 나쁘고 되도 빚기 힘드니까 요정도가 딱 맞아."

"밀던 사람이 밀어야 모양이 예쁘다"는 노모의 고집에 오늘은 역할이 바뀌었다. 노모가 만두피를 밀어주면 조카와 내가 만두를 빚기로 했다.

"손이 여럿이니까 쉽긴 쉽다. 혼자서 하면 만두피를 다 밀어놓고 싸야 하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만두속 만들 땐 속상해서 울었네."

그 사연인 즉은, 음식물 전용 탈수기를 사용하여 만두 속을 짜는데 국물이 흘러나오는 호수에 그릇을 받쳐놓은걸 깜빡했더란다.

"뻘건 김칫국물이 부엌 바닥에 쏟아져 한강수가 됐는데 한 시간도 더 치웠을 거야. 그거 치우면서 어찌나 속상한지 울었네 울었어. 누가 봤으면 저 노인네가 치매에 걸려 저런다고 했을 거야. 아니 정신을 잠깐만 놓아도 그러더라니까."

노모의 눈물겨운 사연에 미진이가 안쓰러운지, "할머니, 만두속 만들 때 숙모들 오라고해서 거들면서 비법이나 알아가라고 해요"라며 한마디를 거든다.

"요즘 사람들이야 사먹고 만다고 할 텐데, 뭐하러 떠들어. 그래도 네 엄마는 처녀 때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몰라. 김치 담는 것도 그렇고 옆에 앉아서 뭘 넣는지, 간은 어떻게 맞추는지 보면서 그렇게 배웠어."

한 배속에 나와서도 천양지차니 노모의 간적접인 훈계에 "아니 만두속은 어떻게 만드는 거유?"라며 화제를 슬쩍 전환해본다. 이론에라도 강하면 실전에 써먹을 날도 올 터. 일단은 글로 풀어볼 요량에 만두 속의 비법을 물으니, 이 할매가 눈치는 빨라 그 속을 금세 알아채버렸다.

"음식이 말로만 되나? 며칠 후에 또 맨들 거니까 그때 직접 보고 쓰던지.."

아무래도 노모의 덫에 확실히 걸려든 느낌이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이야기 ⑮



가혹한 자연조건에서 생산되는 가남향

지금까지 침향의 생성원리와 등급체계 그 효용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이제는 침향의 채취방법과 그 진품을 가리는 법 그리고 침향의 효능에 대해 말하겠다. 이 부분은 침향의 또 다른 부분인 가남향(伽南香)을 배제하고는 논의될 수 없기에 먼저 가남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침향과 가남향.

가남향은 침향과 같은 학명(Aquilaria Agallocha Roxb)을 사용한다. 같은 나무에서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남향은 침향과 또 다른 등급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침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대접받고 있다.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인삼과 산삼의 경우로 비교할 수가 있다. 인삼과 산삼의 학명이 같듯이 침향과 가남의 학명은 'AAR'로서 같다. 그러나 침향과 가남향이 생산되는 나무는 같으면서도 분명히 다른 나무이다. 혹자는 침향 중에서 최상등품이 가남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약간 설명이 부족한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인삼 중에서 최고는 산삼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인삼은 인삼으로, 또한 산삼은 산삼으로서의 선별기준이 있다. 결국 침향은 침향의 등급을 가지게 되고, 가남은 가남의 등급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가남향에 대해 '침향의 뿌리부분에서 생성된 것'이라는 주장이 정설처럼 굳어져 왔지만, 이 부분은 침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오는 오해라고 생각된다. 필자가 그간 침향의 산지인 베트남에서 직접 가남과 침향을 캐는 심마니들을 만나보고 또 실물을 확인하면서, 또한 능인향당 자체적인 분석과 실험내용 보고의 정황을 종합해 보건대, 침향과 가남은 여러 면에서 각자의 특이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 침향의 뿌리에서 가남이 생성된다는 것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자면 같은 100년 정도 된 자연산 침향나무의 둘레가 3m 정도라면 가남나무는 30cm도 안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가남나무의 생장이 극히 더딘 이유는 우선 가남은 식물이 살기에는 그 생존 환경이 극히 열악한 곳에서 자란다는 점이 침향과는 다르다.

이것은 베트남의 특이한 자연환경이 그 원인인데 독샘과 독무 그리고 늪지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칠종칠금(七縱七擒)으로 유명한 남만 정벌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가남나무가 자라는 독샘이나 늪은 온갖 독충이나 짐승들의 시체가 썩으면서 발효된 곳이다. 날마다 같은 시간이 되면 독무가 피어오르는 곳으로 인간은 물론 짐승조차 피하는 그 곳에 어쩌다가 침향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는 경우이다. (02)3663-6777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⓴ 건강의 근원은 소화와 배설1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건강한 신체 유지하기 위한 중요 포인트 '장'

#푸대접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장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기 찌뿌듯하며 각종 질병과 원인 모를 피곤함, 스트레스 등에 시달린다면 개선 방법으로 장청소와 해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장은 인체에 들어오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배설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으로 건강한 신체의 기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장은 각종 오염된 음식과 농약, 방부제등으로 뒤범벅된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들로 꽉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면역기능은 저하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해 흥분과 불안, 충동적 행동, 집중력 저하, 전신쇠약, 관절 통증 등 여러 가지 증세들로 이어질 수 있다.

#건강한 소화와 배설을 위한 방법

시달리는 장의 상태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 포인트는 바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배출하느냐의 소화와 배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쁜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소화와 배설을 하며 생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일단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 알고 먹자.

일단 자연의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적어도 이 음식이 변형시킨 음식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고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 적당히 조리한 음식은 진정한 치유제이다. 그리고 생선이나 곡류, 콩류, 견과류 등은 전체식이다.

반대로 유전자 변형 음식이나, 각종 정제된 음식, 온갖 색소들과 향료 등으로 범벅을 한 음식 등은 우리 장에 들어가 부패하고 독소만 내뿜어대는 쓰레기일 뿐이다. 그 독소들은 혈액으로 온 몸에 퍼지고 뇌와 신경조직들도 중독 시키며 정신적 저하나 피곤함은 물론 사람을 허약하고 멍하게 만든다. 혈액의 중독은 각종 장기의 부실을 초래하고 모든 인체의 기관과 세포들을 중독 시켜 사람을 늙고 병들게 만든다.

둘째, 오랫동안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습관에서 쌓여진 것을 체내에서 깨끗하게 배출하고 씻어내는 방법이다. 우리가 가끔 집안 대청소를 하듯이 그러한 청소를 우리 인체도 해야만 한다. 우리가 먹는 '건강하지 못한 음식'들은 장의 벽과 내장 기관에 쌓이게 되는데 부패하기 쉬운 균들이 득실거리는 장은 항상 음식물과 세균 가스 등으로 잠시도 쉴 새가 없이 시달리고 있다.

이런 장에 휴식을 선사하고 상쾌한 대청소를 배설로써 해야만 한다. 근본은 '휴식' '비워둠'의 묘미다. 쉴 새 없이 가동하고 있는 장에 휴식시간을 주면, 한결 상쾌하고 가뿐한 컨디션을 느낄 것이다.

#휴식과 비워둠의 묘미

휴식과 비워둠의 묘미를 맛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하루 두 끼 식사법이 있다. 현대인은 흔히 아침을 꼭 먹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건강은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 입고 있으며, 무엇으로라도 빈속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인스턴트 삼각 김밥이나 마가린이 범벅 된 길거리 토스트, 우유, 시리얼 등을 아침부터 마구 섭취하게 만든다.

이는 아침의 에너지를 전해주고 활력을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의 시작을 소진시키기 때문에 안 하니만 못한 짓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계속)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용성 학명 만공
한암 만암 만해 효봉
혜암 동산 경봉 고암

여시아문 02)2004-8237 | 016-217-4845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023-25-0007-617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4×4.4) 4만원, 1Box (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CBC108.TV 연합불교방송
•법문, 법회 촬영 •방송
•홈페이지 제작/네트워크구성
•DVD 제작 •이미지 사진 촬영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 천도재 · 점안법요식
사찰노래자랑 · 음악회 기획
www.CBC108.co.kr
02)837-2003/011-356-3427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이 짧은 몇 마디는 어둠에서 헤매이는 당신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정신병 등 우울증, 조울증, 간질, 자폐, 약을 먹어도 약효가 없는 분,병명이 바뀌는 분, 병원에서 불치의 선고를 받으신 분, 까닭 없이 불안한 분, 오랜 격리수용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 나무를 베고 목신의 고통을 받는 분 등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염불(명상)기도의 힘으로 치료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念佛子靈泉 당신에게 희망의 빛을 줄 것입니다.
010-3142-5766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 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염불,불공해드립니다
영남 전통 범음범패 소리로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각종 사찰행사
016-238-6215
선 연 화

본각사 일두스님의 수맥파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귀불교전통의식귀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효 -
010-4007-0178

역학 빙의 퇴마법전수
1.역학 실제감정위주로 1주일 비법전수
2.내용:명리학,주역,매화역수, 풍수지리,성명학
3.빙의 퇴마법 속성 비법전수
4.귀신들린병 퇴마 잘해드림
관음정사 도통스님
010-7443-3060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귀 금 명 사
원인불치병 · 산소처방
혼사지연 · 영통부적
시험각종비법
하루전 예약상담
농협 071-02-217956(이민혜)
010-4185-8853
010-2037-8857

퇴마심령기(氣)치유
빙의,신병,두통,치매,우울증
정신질환,알콜중독,환청,불면증등
•불안공포,악몽,위장병,우환,만성질환,부인병등
•각종치료나 천도재를 해도 효과 없는분
※나쁜기운을 빼면 팔자가 바뀝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보 살 선 방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도서관 추진위원회
010-7625-4455

불사금 발원
불사금으로 소승에게 1억원을 쾌척하실 불자님을 찾습니다
010-3116-1992

행 자 모 집
스님 되기를 원하는 분
수행하면서 공부하실 분
죽림선원
010-3047-0233

노후에 삶을 아름답게 함께하실 비구니스님 또는 공부하실분 모십니다
능력대로 시주금 받고 종신재
010-9367-5982

비어있는 사찰 관리하여 드립니다
비구입니다
011-850-0176

부전 기도스님 모십니다
011-840-4355
051)334-4009

암자를 같이 운영할 보살님을 모십니다
스님 시봉하면서 역학을 배울분
▷수원
011-9429-5786

평생 도반 경치좋고 아늑한 암자터를 소유하고 있는 오행,뜸,벌침,역학에 능한 병신생 비구승입니다
통나무 황토집을 지으려 합니다 조금만 협조하시고 함께 살 아가실보살님 인연 바랍니다
018-406-3073

"간화선" 배포
조계종의 필수 기본 교정서로서 전 종도에게 개인당 1권씩 배증해오던 보시판 "간화선"을 아직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알려드립니다.
부디 못 받아보신 스님 네는 전화나 팩스로 연락주시면 즉송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 불자로서 참선단체나 참선수행하시는 분도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나옹) 불교전도협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71
선찰대본산 범어사 내원 합장
TEL 051)508-6779
FAX 051)508-3163

불심이 돈독한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011-574-3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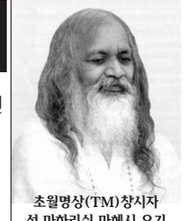
개원사에서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경험자)
016-400-0664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역 학 공 부
• 사주초급 : 1/7(수) 18:30 • 개강 : 정도형 선생
• 전문가반 : 매주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수료증 자격증
사주 전과정 45만원.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교육원 (02)2264-0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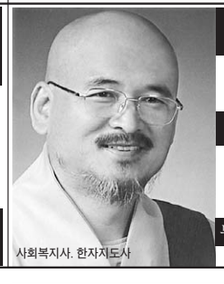
만 행 화

지압깔창 풍산동 99% • 가격 : 15,000원
발명특허원41435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초월명상(TM)창시자 성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견성 체험 / 쉽다, 빠르다 - 이미 세계 6백만 애용!
초 월 명 상 (TM)
"깨어있는 휴식이 곧 깨달음이다" - 능엄경
하버드 의대, 일본 노동성 등 600여 연구 효과입증
잠보다 3배 깊은 휴식 / 삼매경, 자아완성(깨달음)
두뇌의 질서성, 집중력, 창의력 증가 / 노화역전 / 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우울증 퇴치
〈지도자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www.초월명상.kr
한국초월명상센터 ☎ 02)598-3152 지방 010-7443-1296 (예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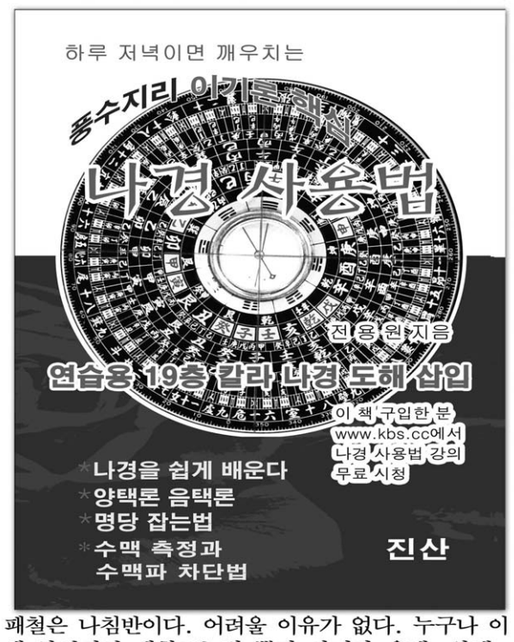

시 집 세번째 달마다 꼭 있고 밤새 울던 초생 / 희미하게 자고 깨면 구름
표 구 처서 지나 귀뚜라미 울고
매 · 난 가을 하늘 높아
사군자 가을 구름
시 인 포항시 흥해읍
한 글 016-478-5545
한 문 054)262-1270

대방등 대집경 개인지도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패철 보는 법



패철은 나침반이다.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패철보는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명당잡는법까지 하루밤에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만5천원 할인가 2만2천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 주문전화: 1688-1137
명당탐지기 관룡자 있음(할인가 66만원+각종 사은품)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효사 육임·CD 최종 완결판 출시·교환 안내
- 고도의 적중도와 효과성이 담보된 활인천역자 用 매우 쉬운 임상 활용 실기서

曉史六壬刪策 육임비법 정리 최종판
정가 250만원 · 교환 90만원 · 1권,6권,60권 · A5,A4,A3中 선택주문교환가능
◎ 시보 · 내정 · 형이상(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 침범여부 및 그 해소지침 · 연명(띠별)운세(귀인 · 직녹 · 상매승진 · 병재 · 관재 · 빈궁 · 불성 · 산기자 여부) 1년신수 · 육임사주감정활용편(대 · 세 · 월 · 일운 및 병 증세, 육친길흉 사상 등) 배우자 궁합 등... 名品출시 · 교환중!

- 원 터치 기능에 의한 간편성으로 기선제압이 제고된 상담용 CD 프로그램

曉史活人天役集 I II III 완결판
정가 450만원 · 교환 70만원 (출시중) 분개(分個) 판매 중
◎「효사활인천역집」에 종합 장착된 내용 및 분개 판매 CD 프로그램들
■ 효사육임산책 CD 250만원 ■ 효사숙사주 CD 70만원
■ 육임대계전서 CD 400만원 ■ 성명학 CD 50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CD 100만원 ■ 부적보감 CD 30만원
■ 육임길흉성부단정 CD 50만원 ■ 동의보감 CD 1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CD 50만원 ■ 매화역수 CD 30만원
■ 출산길일길시비법 CD 50만원 ■ 월영도 CD 30만원
위 의 CD프로그램들은 최근 최정련판 서책활용서로도 주문 판매하고 있습니다.

- 최종 개편 · 증보된 八版本 학습 · 활용 육임학 총서

曉史六壬講論 上 학습용 下 임상용
정가 45만원 · 교환 35만원 · 上권 25만원 · 下권 25만원
◎ 上권 : 육임학습에 한하여 더이상 의심이 없게함. 下권 : 임상실기서임

- 인생의 命 · 運 복분과 미래사가 한 눈에 보이도록 구성시킨 임상용

曉史六壬四柱鑑定法
정가 20만원 · 교환불가
◎ 본인 · 배우자 · 육친 · 대 · 세 · 월 · 일 운세 및 발현질병을 한 눈에 보고 판단하게 한 육임학에서만 가능한 육임 사주법! 학습 · 활용편으로 구성시켰습니다.

서울지역 02)833-8683 담당 정용철 | 한국육임학회 총재 고복자 효사 | 부산지역 051)908-8683 담당 진민경


사군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 (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 규격 5× 7cm 70,000원 /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위치 : 대구	●위치 : 부산	●위치 : 경기
●법당 : 20평	●법당 : 22평	●법당 : 30평
●요사 : 100평	●요사 : 15평	●요사 : 140평
●부지 : 700평	●부지 : 2,000평	●부지 : 2,500평
●가액 : 20억	●가액 : 4억5천만원	●가액 : 1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2700평
- 법당 약 50평,산신각
- 요사채 20평+10평+10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뉴타운 개발지역
- 양도가 9억

지리산 천왕봉 밑 마당 넓은 절
- 대지총평수 : 2100평
- 법당30평, 요사채 방8칸
- 주지실 30평 전통기와 양식
- 따뜻한 지리산 자락(정남향)
-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 양도가 : 6억 5천만원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3층건물중 2층
- 총 45평(방2,주방,화장실,욕실)
- 삼존불(시설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답사 후 결정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2208-4899
053)522-648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이천동
- 법당 12평
- 삼존불, 영가단, 신중단
- 마당 허공 약사여래불 거실, 방1, 부엌
- 역학 상담, 사찰운영 하실수 있는 스님 적합
- 전세금 3천 6백만원

053)475-8292
011-535-5709

사찰(터)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에서 5분거리
- 아늑하고 아름다운 바위와 산이 어우러진 영동에 최고의 위치, 상권을 가지고있고 영동을 지나가는 길목에 항상 차량통행이 많으며 사찰,토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입주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관리지역 : 평당 85만원평수300평 주변에는 국유림 약 2만여평
- 사찰 임대 구합니다

010-9468-4235
010-4046-6637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 평수 : 산 1500평, 가액 : 평당 25만원 절터, 토굴, 기도처로써 명당 터입니다.
- 옛날 전설이 있고 도인도사 할아버지가 몇 천년전에 도 공부를 하셨던 자리로써 입구에 약수터가 있고 청정도량으로써 원래는 본인이 토굴을 여러 동 지어 지인 들과 함께 수행하던것이 자금에 차질이 생겨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 본인 역시 독실한 불자로써 수행하시는 분께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봅니다

010-5501-3150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시 얼음골 근교
- 평수 : 약 1만평
- 명산 계곡절경, 경관수려
- 가액 : 8억

010-4876-5535
011-877-767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 중동역 3분거리
- 평수 : 약7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010-6332-911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 평수 : 24평 (법당, 방2, 거실 : 공양간)
- 보증금 : 1500만원,월65만원 시설비 : 상담후 절충
- 즉시법회가능, 모든 시설 완비

010-2082-8497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울산
- 대지 : 318㎡
- 법당 176㎡(58평)
- 요사채 386㎡(128평)
- 가액 : 15억원

010-4752-8822

부산 대사찰

- 한옥법당1동, 한옥요사3동 명부전1동,산신각1동,종각1 화장실2동,창고 2동,석불, 약사여래불 15층, 용왕당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절내 주차시설 15대기능 심야보일러 사용
- 대지 780평, 가액16억

051)862-0108
011-563-1545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의 중심지
- 4층건물중 3층
- 평수 : 54평
- 법당 1개, 방 4개 시설 특 A급
- 전세3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품비 확인후 절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개인사정상

055)365-3562
010-2553-8827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융자 3500만원 포함)

011-452-837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전철역 2~3분거리 산밑 앞이 트임
- 대지 350평, 방2,주방,욕실,거실
- 주차 여러대 완비. 텃밭 용이
- 전세 : 2,000만원
- 위치 : 서울 은평구
- 전세 : 3,000만원
- 공부하는 비구니 스님에 한함

011-9128-206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 법당 삼존불
- 보증금 5백만원 년 3백만

010-9349-551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역 2분거리
- 최근 개원, 사정상 급매
- 상가 3층 중 2층 50평
- 법당,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 시설특A, 냉난방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5천만원

010-3116-1992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평수 56평, 법당, 방 3,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0-6739-6426

평생토굴분양

자격 참선수행에 득력한자로서 마음껏 공부하다 죽을 각오가 정리 되신분

- 분양가 : 3천만원 (1인 1실 방 93개 선착순)
- 대상 : 비구, 비구니, 거사님, 보살님, 종단불문
- 위치 : 서울시 정릉 4동 북한산입구 남향 명당혈 버스종점 5분거리
- 혜택 : 숙식,난방,수도,공과금 모두 지원해드림(공부만 하면됨)
- 자가용 소지자는 절대분양못함

02)914-4235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37-658번지 (인천 도심포교 최고요충지)
- 인연있는 스님기다립니다
- 법당 20평,방大1,방小2개, 부엌, 화장실2,심야보일러실1개
- 시유지 600평사용 가능
- 가액:1억 5천만원

032)428-0523
011-891-293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시 율하역 5분거리
- 평수 : 3층 건물중 2층 60평
- 법당1, 방3, 주방, 욕실
- 보증금 3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시설일체

053)965-8793

고급 단독주택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 가족에게

- 위치 : 전주 시내 중심 단독빌라,아파트 밀집지역
- 단독주택 대지 65평
- 건평 35평, 큰방2, 작은방2 거실, 욕실, 화장실 2 구조 현대식 아파트 형
- 특징 : 집안 잔디 나무 꽃 있음
- 가액 : 1억 4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 총 2123평 (종교부지165평)
-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양도가 : 2억 3천

010-5430-3963

포교원 (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상가 :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259-678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성북 길음동 전철역 바로 앞 2층
- 평수 : 37평(실평수)
- 점안식 안했음.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산신탱화
- 방2개,공양간,욕실,시설완벽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별도 2500만원

010-2665-239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내
- 대지 80평, 법당 15평
- 요사채 방 4개,주방 2, 거실 1,욕실 1
- 가액 : 2억 3천만원 (절충가능)
- 전세, 월세 가능함
- 주인직접
- 시설비 없음, 몸만 오시면 됨

011-792-896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가액 : 보증금+임대시설포함 1000만원 월 20만원
- 입주즉시 법회가능

010-2643-7582

사 찰 안 내

- 위치:전북 김제시 순동 127-1 (전주, 군산, 익산 20분거리)
- 대지 : 416평, 요사채 약 50평 (옛날구옥 : 문화재급) 2층 벽돌기와집(총 60평) 1층 40평 법당 20평, 2층 20평
- 경관이 수려하고 조경수 좋은 정원있음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63)547-8895
016-9231-5355

포교당(급)안내

- 인천시 계양구(지하철역 3분거리)
- 4층 건물 중 4층 40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용신탱화, 각종 호신불 모든시설 갖춰져있음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011-223-7757

사 찰 안 내

- 위치 : 송파 하남방향 20분거리 야산 및 대도로변 유원지 입구
- 대지 133평, 건평 70평
- 2층 대웅전, 1층 요사채
- 동불, 산신각, 무허가 건물(약40평)
- 마당 1000평이상 사용하고 있음
- 가액 : 8억 9천만원

016-286-5108

포 교 원 안 내

- 부산 북구 최고의 위치 지하철 바로 앞, 대로변
- 평수 : 70평 6층건물중 6층 옥상이용 주차편리
- 보증금 : 6000만원(조정가능) 월세(조정가능)
- 불교대학 운영중

011-704-142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 평수 : 54평
- 거실,방2칸, 공양간,사무실大, 법당
- 아미타불, 소불(小佛) : 50분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 건강문제로 급 양도

011-238-39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37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진주에서 30분 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용왕당 각 1평, 요사 3채 75평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11-9571-1710

사찰(급) 안내

- 위치 : 보문동
- 대지 : 160평 법당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대원정사 극락원
- 총대지 378평, 법당목조단청32평, 산신당 용왕당,종각, 칠층석탑,석조약사여래입불상
- 요사채 30평,반지하 100평
- 성산일출봉이 보이며 관광일 주도로변에 위치
- 급 양도가 : 3억 3천

064)702-9982
011-858-8892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관음사
- 주 지 : 설 산 (이현포)
- 주 소 : 경남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126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8일

해동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천지는 나와 한 뿌리, 만물은 나와 한 몸”

<27> 선사(禪師) 문하의 거사들(8)

남전 선사 속가제자 육긍, 마조 선사 문하 방온과 비견
육긍 거사 외호자 아닌 ‘함께’ 道 논하고 깨치는 입장

마조도일(馬祖道一) 선사 문하에는 뛰어난 제자들이 많았다. <조당집> 권14에는 “마조 선사 문하에서 직접 법을 계승한 88인이 세상에 출현했으며, 은둔자까지 더한다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기술했다. <경덕전등록>과 <고존숙어록>에서는 입실(入室)제자 수를 139인으로 적었다. 이어 “그들은 모두 각각 한 지방 종주(宗主)가 됐고 교화하기에 다함이 없었다”라고 전한다. 또한 <송고승전> 권11에서는 “천하에 불법(佛法)이 극히 성행해 홍주종[洪府]을 넘는 바가 없었다. 문하에 수많은 현성(賢聖)이 어깨를 겨루고, 득도(得道)한 자가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말해 당시 천하에 홍주종이 널리 유행했음을 밝혔다. 가속(賈餗) 거사가 보력(寶歷) 원년(825)에 찬술한 <대비선사비명(大悲禪師碑銘)>에서는 “조계 대사 입적 후, 법을 이은 신회(神會)와 회양(懷讓)이 또한 두 종(宗)을 이루었다”(<전당문> 권732)라고 해 남종선 주류를 하택종과 홍주종으로 보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토록 남악계를 하택종과 비견될 정도로 크게 일으킨 이가 바로 마조 선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문하에 수많은 선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삼대사(三大士)’로 칭해지는 백장회해(百丈懷海), 남전보원(南泉普願), 서당지장(西堂智藏)의 걸출한 선사들이다. 이들 세 선사 문하에는 문인과 사대부 출신의 걸출한 거사들이 무리를 이루었지만, 그 가운데 마조 선사 문하의 방 거사(龐居士)와 비견될 거사는 바로 육긍(陸亙; 764~834) 거사이다.

육긍 거사는 남전보원 선사의 유명한 속가제자로서, 흔히 ‘육긍대부(陸亙大夫)’로 칭해진다. 거사의 자(字)는 경산(景山)이고, 오군(吳郡; 현재 江蘇省 蘇州)사람이다. 관직은 정주(鄭州), 선주(宣州), 월주(越州) 등 여러 주의 자사를 역임했고, 선감호부시랑(戶部侍郎), 어사대부(御史大夫)에 이르렀다.

<송고승전>에 따르면, 보원 선사는 정원(貞元) 11년(795), 지양(池陽)의 남전산(南泉山)에 선사(禪寺)를 짓고서 30여 년간 하산하지 않고서 주석했다. 태화(太和) 초년(827), 선주자사 시절의 육긍 거사는 전지양태수 모(某)씨와 호군(護軍) 류공(劉公)과 함께 ‘속진(俗塵)에서 벗어나 사방(四方)의 법안(法眼)을 열고자’ 남전 선사를 청해 ‘북면(北面; 극도의 존중을 의미)해 제자의 예(禮)’를 갖추고 스승으로 섬겼다. 그 후, 2년이 채 안돼 ‘분주하게 달려온 고관대작[軺衣]의 자식들이 수백 명이 넘었다’고 한다. 보원 선사는 30여 년간 일반대중에게 교화를 하지 않다가 육긍 거사의 청으로 일반대중들에게 교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 교화가 대단히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남전 선사와 사제의 인연을 맺은 육긍 거사는 선사가 입적 시(태화 8년(834) 12월 25일)까지 수시로 참문했다. 그에 따라 <조당집> <경덕전등록> 등에 거사와 관련된 여러 공안(公案)이 실려 있다. 이러한 공안들은 다시 여러 공안집에 전재돼 있고, 또한 다양한 선사들의 어록에 인용됐다.

<조당집> 권18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육긍 거사는 친히 남전 선사의 심계(心戒)를 받았다. 육긍 대부가 남전 선사에게 “제자의 집에 한 조각의 돌이 있는데, 혹 앉기도 하고 디디기도 하는데, 지금 부처님 모습을 새기려고 합니다. 여전히 앉아도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선사는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거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다시 물었고 선사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문답은 집착을 부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해되는 공안의 하나다.

육긍 거사와 남전 선사 사이에 가장 유명한 공안이 <경덕전등록> 권8에 나타난다. 거사가 선사에게 말했다. “승조(僧肇) 대사는 참으로 기괴(奇怪)합니다. ‘천지는 나와 한 뿌리이며 만물은 나와 한 몸[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一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사는 정원의 목련을 가리키며, “대부. 요즘 사람들은 이 꽃 한 송이의 꽃을 마치 꿈과 같이 보고 있네”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언급한 승조 대사의 “천지는 나와 한 뿌리이며 만물은 나와 한 몸”이라는 구절은 바로 <조론(肇論)>의 <열반무명론(涅槃無名論)>에 나오는 말이다. 그것은 또한 <장자>의 <제물론(齊物論)>에 보이는 “천지는 나와 함께 태어났고 만물도 나와 함께 하나가 된다[天地與我竝生, 而萬物與我爲一]”는 구절에서 연원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중국선은 사상적으로 불성론을 근거로 삼아 ‘반야’의 논리로 구성됐다고 할 수 있다. 불성론에 있어서는 유가(儒家)의 인성(人性)·심성(心性)론과 결합됐고, ‘반야’의 구체적인 사상적 운용에 있어서는 노장(老莊), 특히 <장자>의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육긍 거사와 남전 선사 문답에는 조사선과 관련된 사상사의 역정을 거쳐야 제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서 육긍 거사가 ‘기괴’하다고 한 것은 진짜 기괴한 것이 아니라 더 없는 찬탄인 것이다. 남전 선사가 ‘꿈’과 같이 본다고 한 것은 거사가 아직 꿈속에 있음을 질타하는 말이다. 여전히 승조류의 논리로서만 볼 뿐이지, 그 자취조차도 벗어나 평상심으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라고 하겠다. 이후 이 문답은 ‘육긍천지동근(陸亘天地同根)’ ‘남전일주화(南泉一株花)’ ‘남전목단(南泉牡丹)’ 등의 명칭으로 선사들이 즐겨 참구하는 화두로 전해졌다.



그림 · 김홍인

거사와 남전 화상 문답 가운데 <경덕전등록> 권10에 실린 공안이 있다.

어느 날 육긍 대부가 남전 선사에게 물었다. “옛사람이 병 속에 거위새끼를 넣고 키웠습니다. 거위가 점차 크게 자라나 병에서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거위를 죽이거나 병을 깨트리지 않고 어떻게 그 거위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선사가 “대부!”라고 불렀다. 거사가 대답하자 선사는 “나왔구나!”라고 말했다. 육긍 대부는 이 말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 공안은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김성동의 <만다라>라는 소설에서 소개돼 잘 알려진 화두이다. 여기에서 설정한 ‘병’과 ‘새’의 두 가지는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없는 모두 소중한 대등가치이다. 이는 크게는 ‘진(眞)’과 ‘속(俗)’, 작게는 우리 삶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대등가치의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한 일상적으로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만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둘 다 취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 앞의 공안에서 말한 ‘천지는 나와 한 뿌리이며 만물은 나와 한 몸’이라면 당연히 풀릴 것이다. 결국 이 화두는 철저하게 ‘진속원융(眞俗圓融)’의 ‘실상무상(實相無相)’한 궁극적 진리를 체득하라는 것이고, 마조-남전의 홍주종 계통의 선에서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른바 “조작(造作), 시비(是非), 취사(取捨), 단상(斷常), 범(凡)·성(聖)이 없는[無]” 평상심을 체득했다는 마음도 없이 완전히 체득하라는 말이다.

<경덕전등록> 권10에는 이 공안에 이어서 남전 선사가 입적할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남전 선사가 원적(圓寂)했을 때 문상 온 육긍 대부가 울지 않자, 원주(院主)가 물었다. “대부는 어째서 선사가 입적했는데 울지를 않습니까?” 육긍 대부가 “원주가 도를 얻으면 바로 울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원주는 대답이 없었다.

이 공안은 또한 여러 어록과 <거사분등록>의 육긍 거사의 전기에 조금씩 가감돼 실려 있다. <벽암록>과 <거사분등록> 등에서는 다음과 같다.

육긍 거사가 문상을 하러 절에 들어오자마자 도리어 “하하!”하고 크게 웃었기 때문에 원주가 “어째서 울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거사는 “도를 얻으면 바로 울겠습니다”라고 답하자 원주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거사는 “하늘이 푸르고 푸르구나![蒼天, 蒼天] 선사(先師)가 세상을 떠나신지 아득하구나”라고 말했다.

이러한 차별은 편찬자의 사상적 성향에 따라 나타난 것이고, 그 의미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어쨌거나 생사를 넘나드는 선의 세계에서 문상의 형식은 다양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마조 선사 문하의 방온 거사와 함께 육긍 거사는 선종에 있어서 전형적인 거사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거사들의 행적으로부터 선종 거사의 독특한 지위와 역할이 엿보인다. 이전의 사대부 거사들이 주로 재시(財施)와 외호를 담당했다면, 방온 거사와 육긍 거사는 ‘함께’ 도를 논하고 깨우치는 입장이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38기 氣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1주 수련 만으로 누구나 기치유사가 될 수 있다.

▶ 現 서울 불교대학교 대학원 교수 (現 한국 기치유 연구회 회장)로 활동 중인 윤한흥 교수님 직접 지도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11주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 **수련일자 :** 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4:30(11주과정)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문 의 :** 02-3482-5032, 3482-5065 한국기치유연구회

기힐링 센터
교대센터 : 02-3482-5032 / 부산센터 : 051-645-5068
고양센터 : 031-972-7585 / 분당센터 : 031-718-2718
대구센터 : 053-652-2202 / 노원센터 : 02-930-3327

문의 www.gihealing.com 02-3482-5032,5065 한국 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은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대개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에만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이라면 두 사람은 똑 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필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제거하고 본인의 사주(四柱)와 띠(年支)에 맞추어 짓게 한 것이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야 비로소 좋은 이름을 얻게 된다. 주역(周易)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을 하였다.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吉名)인지, 흉명(凶名)인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大邱에서 많은 후학(後學)들에게 작명법(作名法)을 강의하고 있으며, 본서(本書)가 참다운 작명(作名)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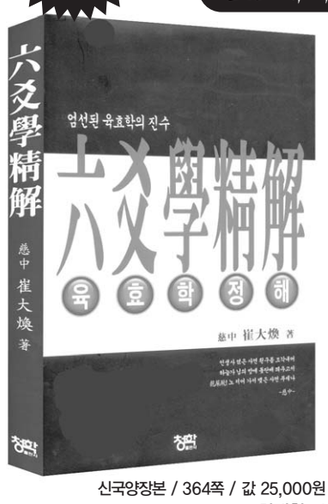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역리작명법(易理作名法) 382쪽 (정가 : 30,000원)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姓名學會 會長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주문전화 : 053)324-2468 / 326-4585

六爻學精解
육 효 학 정 해

신출귀몰 화제의 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엄선된 육효학의 진수!

초보에서 완성까지!



신국양장본 / 364쪽 / 값 25,000원
동방대학원대학교 육효학 전문가 과정 교수 최대환 저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목차부터 배우기 쉽도록 배열이 잘 되어 있으며 육효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본 학문을 연구하거나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3시까지 〈육효학정해〉 저자 직강!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02-929-46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청학출판사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운명을 바 꿔 주 는 “기도의 비밀”

한 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훼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기도의 비밀이 자신의 인생과 가족평생의 길흉화복을 좌우합니다. 관음정사에 오시면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웃음보살 불등거사 〈32〉

구성 : 김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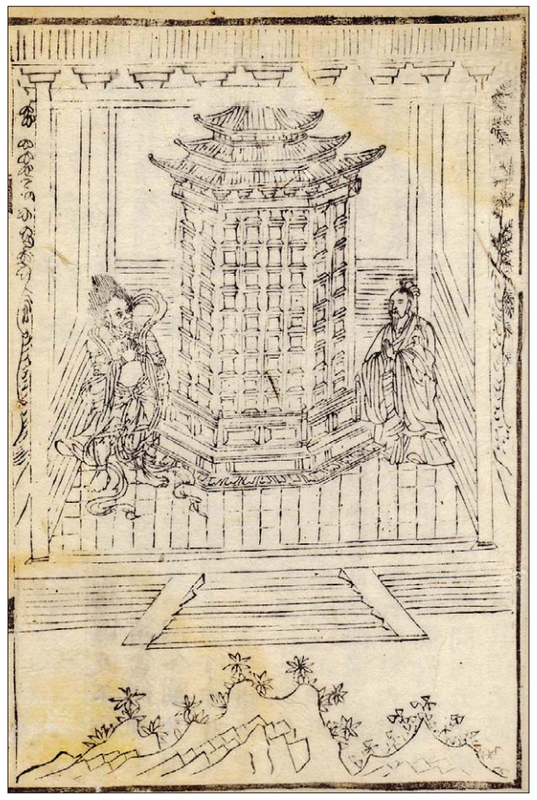


불과 물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람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떤 사람이 불과 찬물이 필요해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불 위에 두었다. 한참 후에 가보니 불은 전부 꺼졌고 찬물은 데워졌다. 결국 불과 찬물 두 가지를 모두 잃어버렸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부처님 법안에 들어가 도를 구하다가 다시 그 처자와 권속들을 생각하고, 세상일과 다섯 가지 탐욕 때문에, 그 공덕과 계율을 잃어버린다.

옛 판화의 세계

윤장대를 돌려 송경공덕을 짓다 법장연기(法藏緣起)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법장연기(法藏緣起)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양(梁)나라 때 동양 부대사가 문자를 모르거나 여가가 없어 불경을 독송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쌍림도량을 세워 전륜장을 설치하고 윤장대를 만든 연기를 나타내고 있다. 동양 부대사는 497년 무주에서 출생하였다. 성은 부(傅)이며 이름은 흡(翕), 자는 현풍(玄風)이다. 부대사라는 별칭 이외에 쌍림 대사(雙林 大師), 동양 거사(東陽 居士)라고도 했으며, 24세에 숭두타에게 출가해 송산에 숨어 살며 수행했다. 쌍림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거침없는 수행으로 출가자와 재가자들로부터 존경 받았다. 특히 양무제를 귀의시켜 중국 불교 발전에 기여했고, 말년에는 종산 정림사에 머무르다 569년 입적했다. 본문을 보면 부대사가 윤장대를 만든 연유를 알 수 있다. "양나라 때 동양 부대사는 세상 사람들이 연고가 많아 송경할 여가가 없고 또한 문자를 모르는 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마침내 쌍림도량을 세워 전륜장을 창설하고 그곳에 경전을 안치하고 서원을 세워 말했다. '나의 윤장에 오르는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사람의 몸을 잃지 않게 하고 능히 신심이 있는 사람은 윤장을 한 번 밀어 한 바퀴만 돌리면 그 공덕이 경을 외우는 것과 바로 평등하고 다를 것이 없게 하소서.' 이 서원을 통해 만들어진 윤장대는 많은 나라에 전해져 불자들의 송경공덕을 도왔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는 유물로 남은 수준이나 티베트에서는 아직도 신앙 활동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티베트 사람들이 손에 들고 돌리거나 사찰에 주변에서 돌리는 마니차가 바로 윤장대 특성을 그대로 보여 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윤장대로 장경을 돌리면 부처님의 법이 시방세계에 널리 퍼지고 지세를 고르게 해 난리가 없어지며 비바람이 순조로워져 풍년이 들고, 한 번 돌리면 공부하는 이는 시험에 붙고 병고에 시달리는 자는 병이 회복되고 박복한 자는 다복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윤장대를 돌렸다. 한국에는 용문사 윤장대가 보물 제684호로 지정돼 있다. 옛 선인들이 꽃 피웠던 불교문화들이 유물로만 보호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로 자리매김해 메마른 우리의 신앙 활동에 한줄기 단비가 되는 꿈을 꾼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병(病) 1

거 뉘신가?
내 육신에 몰래 스며들어
집 짓는 자

내 뼈를 뽑아
서까래를 엮고

내 살을 이겨
벽을 바르나 보다.

–임보/시집 <가시연꽃>에서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영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EO	청 주
이존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사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무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사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사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사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영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사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융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무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사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지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 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설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업직	서 울
한경업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장효근	1975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충 북
정경택	1970년생	172	대 졸	회사원	충 북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설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무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사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설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사원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무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사원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무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사원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설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사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사업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영리사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무원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영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육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사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사원	전 북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준공무원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천 안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졸	농업	북 구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사원	울 산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영업	전 북
박정은	1972년생	168	고 졸	학원강사	충 북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사원	북 구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육직	울 산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서 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무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충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회사원	경 기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사원	전 남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사원	울 주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사원	충 북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무원	서 울
김왕회	1971년생	162	고 졸	회사원	충 북
고선식	1969년생	170	고 졸	사업	충 북
강석일	1971년생	170	고 졸	회사원	서 울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경	충 북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사원	논 산
이용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서 울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천 안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산 구
배종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울 산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조리사	서 울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사원	북 구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약사	충 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사원	경 북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부 산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대 전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 사	충 북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 융	서 울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천 안
이공희	1972년생	165	고 졸	회사원	전 주
안민수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경기도
고석범	1974년생	162	대 졸	회사원	전 북
오귀석	1958년생	170	고 졸	군 인	북 구
이진용	195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주 울
안명규	1977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여인석	1971년생	183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여인재	1973년생	176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박홍철	1974년생	170	고 졸	회사원	주 구
임재환	1970년생	173	고 졸	부동산	대 구
최우준	1971년생	167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정태	1957년생	162	대 졸	회사원	경기도
성민수	1976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곽태성	1958년생	172	대중퇴	공무원	주 주
정현제	1965년생	174	대 졸	제과점	청 서
김호준	1970년생	166	고 졸	버스기사	울 울
이기종	1971년생	175	대학재	회사원	서 울
최성욱	1973년생	190	대 졸	도예가	경기도
조성준	1975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 울
원병대	1971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병진	1975년생	163	대 졸	회사원	서 울
김지경	1970년생	168	고 졸	회사원	울 구
김정준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울 안
박경하	1952년생	177	대 졸	무역업	울 안
전준석	1957년생	167	고 졸	회사원	천 안
박천호	1975년생	168	대 졸	회사원	북 남
김 천	1974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 서
김병준	1973년생	170	대 졸	자영업	서 울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오영일	195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강태욱	1975년생	169	고 졸	자영업	서 울
김용진	1968년생	160	대 졸	자영업	인 천
이경술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업	경기도
심명길	1971년생	170	대 졸	자영업	경기도
이연재	1974년생	169	대 졸	회 사	서 울
배덕열	1976년생	168	대 졸	자영업	경기도
배복열	1967년생	165	고 졸	자영업	경기도
최병덕	1968년생	170	고 졸	자영업	경기도
장보배	1973년생	176	고 졸	회 사	아산시
유돈석	1971년생	167	고 졸	회 사	서 울
유정환	1974년생	162	고 졸	회 사	대 전
김광범	1970년생	183	전문대	무원	서 울
조경정	1945년생	171	대졸자	영업	경기도
한 균	1963년생	174	고 졸	업원	서 울
소무영	1961년생	175	전문대	원원	경기도
지상훈	1971년생	180	고 졸	원원	서 울
이종필	1974년생	174	고 졸	원원	충 북
남상복	1967년생	175	전문대	원원	김해시
최치원	1976년생	165	대학원	원원	대 전
김성진	1979년생	171	고 졸	원원	울산시
백선기	1976년생	167	대학원	원원	서 울
김창일	1973년생	180	대 졸	사	경 북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전 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 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우리가 사는 모든 거를 닥치는 대로 멸해버리고 사세요!

굳이 촛불을 켜는 이유

문 올해 처음으로 선원에서 거행하는 촛불재에 참석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신선하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왠지 모르게 생전 처음으로 느껴지는 장엄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뭔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촛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 우리는 올해다 내년이다 하지만 본래 이 진리의 자리에서는 올해도 없고 내년도 없고 과거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이 찰나찰나 과거로 돌아가고 찰나찰나 미래로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현실에 우리가 지금 촛불을 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사는 것이 모든 거를, 닥치는 대로 과거를 멸해 버리고 미래도 현재에서 자꾸 융성시키고 증장시키면서 꽃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는 거라 이겁니다,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촛불 하나를 들어도 이건 범연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촛불 하나가 과거도 비출 뿐 아니라 미래도 비춰 줍니다. 그런데다가 과거와 미래를 한데 합쳐서 현실에 놓고선 두루 비추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서 촛불 하나라고 해서, 사람이 하나를 들었다고 해서 이거 촛불을 업신여겨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밝음이니까. 방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잖으면 배우질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하고 가난치 않고 그거를 떠나서 우리 마음의 밝음을 찾음으로써 바로 마음이 가난치 않게 되고 아주 안정되고 언제나 방황하지 않게 되고 진득해지고 점잖아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전자에 내가 지었던 것도 전부 녹아져 버리는 까닭에 우리 현실에도 살기가 무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환이 있고 병고가 있고 그런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를 앞세우지 마시고 내 마음의 그 주인공으로부터 밝음을, 그 빛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과거의 업보나 가환이나 그런 모든 것을 녹여 버리게끔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밝아짐으로써 스스로서 생활이 곤궁해지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공부인연 심어주고 싶어

문 누구나 느끼는 거겠지만 이 마음공부를 하다 보면 환희심이 나서 가까이 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도 공부 인연을 심어 주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됩니다. 괜히 더 삐죽거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바깥 인연들은 더 쉬운데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답 이 공부하는 데는 가까운 사람 공부시키기가 정말 어렵구나! 참 어렵구나! 하는 걸 누구나 느끼실 겁니다. 먼 데 사람을 시킬 수는 있어도 가깝게 있는 사람을 공부시키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정말 아주 절실히 느끼실 거예요, 아주! 내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전부 날탱이예요, 날탱이! 외려 남들은 먼 데서도 오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달아나가요! 그러니 글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일일이 "야, 저 먼 데 사람도 이렇게 오는데, 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왜 참석을 안 하느냐?" 이래도 그게 욕심질이라. 그러니 그걸 어떡하겠소? 오히려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마는 조사들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게 있거든요. 아주 가깝다고 하는 사람을 제도 못하는 이유가 그 집안에서 하나가 만약에 삐죽 나왔다면 그 아래 것들은 다 그냥 아주 망가뜨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가 삐죽 나온 거를 증오하고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지, 받아들인다면 같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너는 그렇게 살면서, 너는 그렇게 하면서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안 해 주느냐.' 이건 도대체 이유가 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해서 올라와야 할 텐데, 그걸 길을 인도하고 이렇게 올라오라고 아무리 그렇게 일러 줘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덤벙 '내 대신 좀 먹어 주면 내가 배가 부를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더 외려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에 모였을 때는, 이 바다로 물이 모였을 때는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 있어요. 그러나 이 물이 흘러갔을 때는 다 각각 헤어지고 또 모였다 흩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모다 자식이다 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육으로 볼 때는 부모와 자식이지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기 앞만 보고 열심히 정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밝아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가족도 더불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문 얼마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많이 다쳐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불교에 관심이 많아 불법의 이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득을 했다고 여겼는데 막상 내 몸이 불편하게 되니 괜히 짜증도 나고 신경질적이 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정말 내 몸과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스님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답 우리 수행자들은 그런 이치를 알아도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 보지 않고는 그 도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애기가 되라. 아는 거와 모르는 거를 다 그 주인공에 일임시키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거길 믿고 거기에 감사하고, 들이고 내는 것도 거기다 들이고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는 동시에 내 이 육의 기능은 모든 것을 거기에서, 즉 말하자면 감독이 되는 거죠, 모든 게. 기능의 감독자로서 전부 응용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인체 안에서 모든 생리적인 작용을 하는 거를 다 관리인으로서 하다가 보면 바로 참 제작자가 되는 거죠. 배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배역은 이 안에서 생리적인 작용을 하는, 즉 말하자면 곤충이 다 나한테는 호법신장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팔만 사천 털구멍도 업보가 되려면 그 털구멍 하나에 한 생의 업보가 된다 하지마는, 그것이 호법신이 된다면 일분일초도 안 돼서 자기는 항상 다니면서 자길 보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그렇게 그 주인공에 모든 걸 몰락 일임시켜 버리고 잠재해 있는 자기 실상이 지금 현재 의식과 계합이 된다면 그렇게 좋은 보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으로써 일체 만법을 자기 응용대로 참, 하늘과 땅을 상응하면서, 모든 일체 유생무생을 다 상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둘로 보질 않고 하나로서 다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 안에 들어 있는 곤충의 생명이나 내 큰 생명이나 둘이 아니죠,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겁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겁을 내기 때문에 일임해도 진짜 되질 않지, 겁을 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믿는 게 되거든요. 진짜 자기 이 육신마저도 주인공에다가 내버리는 격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던져라 던져라 하는 거죠. 몰락 던져라. 던지면 건져진다.

그러니 업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와 부가 둘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악과 선이 둘이 아니고 이게 전부 해말갛게 이렇게, 연기가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에너지가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구름이 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들이. 생각 내기 이전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거를 조절을 하는 거는, 빼 쓰고 잠그고 하는 거는 마음, 바로 지금 내는 마음, 이거죠. 그것을 조절하려면 나도 물질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그림자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참나에게 모든 걸 일임하는 거죠. '네가 형성시켰고 네가 움죽거리게 했고 네가 생각나게 하는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 하고 탁 맡겨 버리세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도 거기다 요구를 하고요. 감사하는 것도 전체니까, 전체가 돌아가는 거니까 감사해도 거기 하나만 감사하면 전체가 다 감사를 주고받고 하는 것도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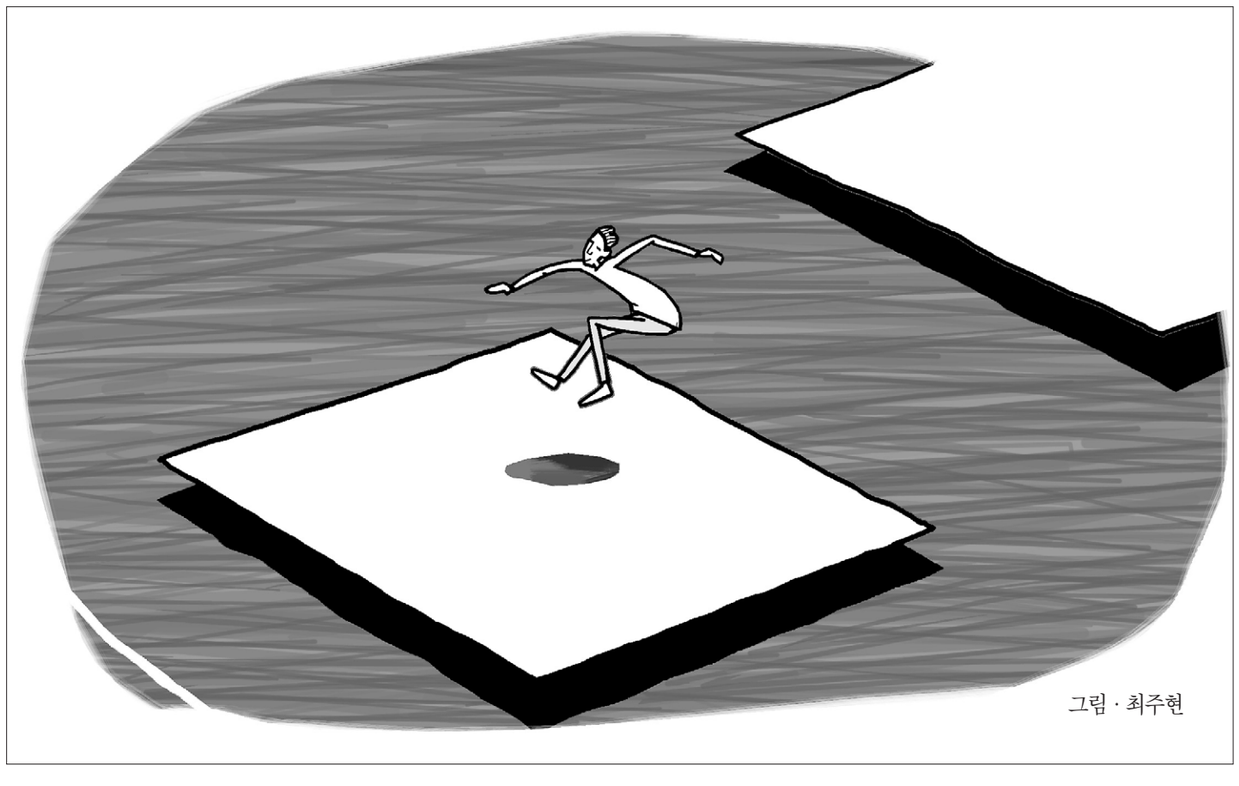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6면으로 계속

정규 제1기 학인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기남부종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설 **경기불교대학 정규 제1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수과목 :**

	14시~16시	16시~18시	18시~20시
화요일	**컴퓨터 강좌** ◇기본사용법 ◇종무관리 ◇인터넷강좌 ◇홈페이지제작,관리		태고종사 기본교리 법회설법
금요일	**내전** ◇사미과목 ◇사집과목 ◇사교과목	**의식** ◇사물다루는법 ◇상용의식 ◇범패	명리학 육임

◆ **모집대상 :**
① 한국불교태고종 및 타종단 스님
② 불심이 돈독한 재가불자

◆ **교육기간 :** 2년 (정규반 1년, 연구반 1년)

◆ **전 형 :** 면접 ◆ **수 강 료 :** 월 10만원

◆ **접수기한 : 2009년 2월 20일**

◆ **접수방법 :** 전화하시면 입학원서, 세부사항을 보내드립니다.

※연 락 처 :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262 원광사
☎ 031)353-2877 / 전송 031)353-2854

한국불교태고종 설립인가제2009-1호 **경기불교대학**
학장 임경순(보광) 부학장 이정석(보명)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나의 체질을 알아야 맞는음식.맞는과일.맞는차를 알고 먹어야 내 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고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병들게 만든다면 체질을 알고 먹는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간 얼굴생김새.목소리 체형.살갗을 만져보고 연구노력하여 스스로 터득하여 얻어낸좋은분을 만나서 체질을 알고 병을 고쳐보세요.체질을 알아야 맞는 처방으로 병도 고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연구 · 노력하여 터득한분을 만나보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행운이열립니다.지금바로 전화주세요!

무료로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특혜를 드립니다

연락처 011-9373-3778

삼보 귀의 하옵고
각 종단 대덕스님, 종도스님 및 불자님들께

현대불교 경남남부지사를 한 해동안 보살펴 주심에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기축년 새해엔 건강하시고 모든 소원 성취하시옵고 기축년 한해에도 경남남부지사를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현대불교 경남남부지사장 청운 합장

기사제보, 구독, 광고 등
접수 받습니다

문의 055)746-9778
055)867-0776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무 량 암
주지 혜천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 3가 876-3
TEL 053)356-4115

매봉산 금 주 사
주지 화광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3리 1442
TEL 054)976-3799 (옷밭마을)

buddhanews.com

자기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포기해서 일임시켜라!

☞25면에서 계속

우주간 법계에서도 다 상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것이 이렇다 이것이 이렇다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팔만대장경이 이 세상 돌아가는 진리인데, 어디서 또 찾겠습니까? 항상 날마다 보고 있는데. 불교가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불교가 생활이고 생활이 불교고 종교가 생활이니까. 내가 근본이고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바로 화두고 나라는 존재가 있기에 모든 존재가 있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모든 존재가 어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 자신의 모두를 갖다가 포기하고, 포기하되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포기해서 일임시켜라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형성시킨 거니까 기계를 하나 만들어 놨다면 기계 만든 사람이 더 잘 고치지 기계 안 만든 사람이 더 잘 고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이 기계라면 기계 만든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린 재밌는 공부 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병 증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도 벌써 '아이쿠, 이건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는데….' 하면 벌써 그건 그렇게 빠른 게 아닙니다. 딱 벌써 이거 그냥…. 병원에서도 전체 10%라면 3% 밖에는 자기가 책정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깐 7%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개를 꺄우뚱꺄우뚱하다가 자기가 의사로서의, 박사로서의 체면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병이다 이러곤 내놓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다면 우리같이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무슨 병이다 그러더라도 '아이, 그까짓 거….' 이렇게 하지만 딴 사람이 어디 그럽니까? '아이구, 이 병 걸렸으니 인제 큰일났구나! 시한부 인생이로구나!' 하고선 낙담을 하고 마음으로써 그렇게 될 때 그 병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병이. 막바로 그 병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악성이다 이러더라도 '이거는 주인공이 다 해 놓은 거니까 악성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한다면 그냥 악성이고 뭐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 좀 할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공부시키느라고 몸도 일부러 그냥 아프게도 허고 일부러 집안을 발칵 뒤집어도 놓고 이런다고요. 그러니 그 재료를 갖고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과연 그게 기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문 사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제 친구 하나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는 친구 맘 같지 않아나 봅니다. 글쎄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하는데 과연 그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것도 자기가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기적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땐 "참 너, 기적이구나!" 이러겠지만 내가 볼 때는 전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되는 것만 주인공이 한 거고, 되지 않는 거는 '아이구, 주인공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다 그 근본을 믿고, 현재의 내 몸뚱이 '자(子)'는 내 근본 '부(父)'를 항상 믿으면, 그 부는 '항상 잘되는 거 안되는 것도 다 부가 하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한다면 안됐다가도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잘되게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를
> 앞세우지 마시고
> 내 마음의
> 그 주인공으로부터 밝음을,
> 그 빛으로 인해서
>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것이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실험이라고 하기보다도 숙제입니다, 그게. 잘되는 것만 하나님이 해 주고 잘 안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해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오산이고 상당히 그건 빗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그 주인공이 하는 거고, 되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당신이 해 달라'고 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당신이 이렇게 하게 해서 감사하다'고 감사함을 청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부와 자가 둘이 아니게끔 융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선 그걸 자기를 깨달아서 찾았다고 하는 거고, 찾아 가지고도 수없이 실험을 해서 그것을 자기가 포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믿으라는데 자기는 안 믿고 만날 딴 데를 쳐다보고 믿고 딴 데를 생각하고 있고 그저 이름을 생각하고 있고, 말을 생각하고 있고…. 허공에다 그냥 그 이름만 가지고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백천 날 해 보세요, 그게 되나. 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신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을 두고선 남의 신을 청하느라고, 남의 신이 대답하나요?

보세요. 생활들 하면서 남더러 나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 부모, 내 동기, 내 집안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도와주지, 바깥의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줍디까? 무슨 큰 일이 나면 안에 들어와서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이렇게 통과를 해 가지고, 토의를 해 가지고 이거 돈이 들 거면 돈이 들고 잘되게 할 거면 잘되게 하고 이러지 아니, 저 바깥의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고 합디까? 안으로 해요, 안으로! 조금 널리 생각하면 한 가정이지만 더 좁힌다면 나예요, 나! 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신이 제가끔 다 바로 어머니의 신, 여러분의 신 각각 있지만, 신은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데 돌아가고 있으니까 마음은 마음대로 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극하게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사랑 안 해요. 내가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한쪽이 기울어지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내기 이전 그 무한의 포괄된 부의 마음, 그 부의 마음과 지금 현재 내 의식 자체의 마음과 둘이 아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중요함을 아셔야 돼요.

마음의 여의주를 얻으려면

문 스님, 이 마음도리 알게 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출가를 해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허락하질 않아 그냥 이렇게 스님 법문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이 많은 건가요? 반드시 금생에 이 마음의 여의주를 얻어 자유자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마음의 여의주를 얻을 수 있겠는지요?

답 자주 했던 얘깁니다만 예전에 내가 상원사에 있을 당시에 천도를 시키면 항상 시식을 지냈습니다. 큰 돌이 이렇게 쭉 놓여 있는데 거기다가 그 밥이나 시식음식을 놓으면 까치나 새나 뱀이나 두꺼비나 올라오기 어려운데도 다 올라와서 고개를 쳐들고 다 먹었습니다, 염불소리를 듣고. 그럴 때에 그냥 머리들을 이렇게 들고 모두 먹었는데 그 뱀 종류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이듬해에, 삼 년이 지나고 보니까 고개를 들고 먹으러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돌 밑을 보니까 전부 허물을 벗은 겁니다. 전부 껍데기를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다못해 벌레들, 날아다니는 짐승들도 이 마음의 공부를 하는 짐승들이 있다 이 소립니다. 독사도 여러 질입니다. 독사가 새끼를 낳아 놓고 새끼한테 자기의 몸을 바치면서 새끼들이 클 때까지 그 몸을 먹고 자라게 하는가 하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끼들을 뚝뚝 떨어뜨려 낳습니다, 잡아먹힐까 봐. 그러면서 내가 잡아먹히면 이 무명도 벗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독사들처럼, 공부하는 독사들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무심히 들어 넘길 게 아닙니다. 우린 살아생전에 무명을 벗길 수도 있고 무명을 쐬울 수 있는 그런 원력도 있어야 벗길 수 있는 원력이 있는 거지, 무명을 쐬울 수 있는 원력이 없다면 벗길 수 있는 원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자재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여의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게 모든 것을, 나를 죽이고 다 그 평등공법을 알고, 이 자비를 알고,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줄 알고, 나라는 것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열쇠가 주어지지, 그리고 여의주가 주어지지, 아무나 주어져서 그냥 톡톡 때려서 모두 잘못되게 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이런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여의주도 방편의 이름이지마는 여의주 아닌 여의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열쇠라고 해도

> 과거의 업보나 가환이나
> 그런 모든 것을
> 녹여 버리게끔 해줄 수 있다면
> 여러분 스스로 밝아짐으로써
> 스스로서 생활이
> 곤궁해지지지도 않게 됩니다

됩니다. 아무나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그거는 못 얻는다 하더라도 선덕을 쌓아서 선업을 짓는다면, 그저 착하게 생각하고 그저 남과 나를 위해서 모두 선하게 착한 마음을 갖고 자꾸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다면 그냥 선덕이 돼서 공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서 잘 이렇게 세세생생에 잘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끝내는 여의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문 얼마 전부터 절에 인연이 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저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그런 모습을 어려서부터 봐 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만 늘어 갔습니다. 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인연에 얽히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죄가 있다고 의식을 하고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하고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한 찰나죠!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졌다면 그대로 그냥 될 것이고, 죄가 없으니깐 모두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한다면 그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죄가 있다고 누가 말을 해 놨는진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지으려 하면 안 지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공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한 사이가 없어요, 죄를 지은 사이가 없어요. 왜냐? 자동차가 말입니다, 부딪쳐서 찌그러졌는데 그 차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습니까? 어때요? 기름이 없으면 차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가면 차가 잘못해서 안 가는 겁니까? 어디가 고장 났으면 차가 잘못해서 고장 났습니까? 이 모습은 차와 같아서 자기가 한 사이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하고도 내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그건 나쁜 일 한 게 그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시련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련이 오지 않도록 그저 편안하게 요량 있게, 좀 현명하고 어디든지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가 있다 없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는 대로 관하시면서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꾸 관하세요.

어떠한 부당한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엊그저께 회사를 잃고 어떤 남자가 울고 있는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더군요. 취직을 하려 해도 취직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관하고 살면 다 되는 수가 있다고 그냥 그렇게 보냈지 뭐를 어떡합니까? 뭐 이 도리를 금방 알려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랬더니 편지로 전후사를 써서 보냈더군요. 난데없이 어느 친구를 오다가다 길에서 만나서 그 친구로 인해서 취직을 했다고요. 이것이 모두가 조그만 일 같지만 어떤 집들은 자손들이 서너 명씩 몸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한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사는 겁니까, 그게?

하여간에 그런 도리 저런 도리 다 자기만이 할 수 있으며 또 구원을 청하는 것도 사람이 하기에 달렸죠. 마음을 같이 이렇게 내 주면 빠르고 혼자 하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어려울 테죠. 그러니깐 될 수 있으면 스님들한테 관하는 걸 요량 있게 배우고 또 가정 얘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어려워서 그런다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뭐.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는 인생 살아나가는 것이 물 흘러 내려가듯 하니까 그냥 찰나찰나 화해서 자꾸 나투어서 그냥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에 죄를 지었다, 어느 때에 잘못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가게 되는 것은, '과거 나'와 '현재 나'가 둘 아니게 통해서 해 나간다면 정신계로나 물질계로나 외려 남을 사랑하고, 음으로나 양으로나 남을 이익하게 보시하고 이렇게 나가지, 그렇게 나쁜 일을 안 하게 돼 있죠. 저절로 안 하게 됩니다.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전문과정(4개월)
◆ 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104위),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유원숭,요잡작법
◆ 사 물 :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 특 강 : 괘불이운,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달림(다비),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서울범패 2기생 : 교육과정 1년
※ 영남범패 1기생 : 교육과정 6개월(고급반)

1.사물다루는법 : 도량석,조석예불,각단예불,각청(불공)시식
2.천도의식 : 49재,시련,대령,관욕,신중작법,상단권공,시식
3.각종바라작법(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4.서울범패개강일 : 3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
5.영남범패개강일 : 3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매주 수 · 금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6.자 격 : 승 · 속 관계없음
7.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8.수업료 : 매월 10만원 교재비별도

접수연락처 전화 054)762-5888 / 팩스 054)762-5889
휴대전화 011-819-7464 총무국장(지공스님)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늘리세요



발 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랗거나 갈라진 굳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아픔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절수행,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벗벗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험생,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졸음 피로 완전 해소

[호락호락팬티, 와선삼매요, 보석연꽃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무릎보호대)]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버락 후세인 오바마 주니어

2009년 미국은 영어 세 단어의 결합인 주문(呪文)과도 같은 'Yes, We Can(네, 우리는 할 수 있어요)'에 환호하며 새 시대에 대한 기대와 그 출발에 들떠 있다.

1월 20일 취임한 미국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내놓은 일종의 집단 '주문'에는 이밖에도 'Change(변화, 또는 바꾸자 일까?)' 'We Are One(우리는 하나)' 등이 있으며 지금 미국인들에게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문'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구호를 여기서 구태여 '주문'이라 표현해 보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어쩌면 '주문'의 필요성에 의해 탄생했고, 동물들과 다른 인간의 욕망이나 감성 또는 감정의 발달 그 모두가 언어의 도움을 받아 그 가지를 쳐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렬한 기대를 품게 하는 오바마의 이런 구호는 구호이기 이전에 '주문'에 가깝다.

덧붙인다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줄 아는, 유능한 부흥목사와도 같은 능란하고 현란한 웅변술이 그의 구호를 집단 '주문'으로 승격시켰을 수도 있다. 아니면 1930년대 경제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몰려 휘청거리는, 그래서 누구나 기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 된 이 시대가 그의 정치적 구호를 '주문'으로 바꾸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낙관과 희망은 필수의 영양제이며,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이 같은 '주문' 역시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당장 오바마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내 걸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변화'의 가능성 역시 아직 인종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사회에서 미국인 스스로가 흑인을 그들의 대통령으로 뽑았고, 대다수가 이를 받아들였다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환호에 휩싸인 그의 '주문'들이 언제까지 박수 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가 당면한 최우선의 과제,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그 지상 과제에 대해 취임 당일 뉴욕증시는 4%라는 큰 폭의 하락으로 현실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 주었다.

현실은 기원과 기대만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며, 어떤 마술을 쓴다 해서 험악한 물길을 되돌려 놓을 수도 없다.

그가 내 놓은 핵심공약들 대부분도 적지 않은 걸림돌로 해서 성사까지는 갈 길이 멀다.

미국 밖을 내다보아도 그야말로 웃을 일이 거의 없다. 이라크 철군, 진행 중이나 마찬가지인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여기에 북한의 핵도 빠지지 않는다.

모든 문제의 해결에 인내하는 시간을 길게 잡아야할 것이지만 이럴 경우 국민들의 인내심은 얇아 곧 한계에 이른다. 그 한계는 'Yes, We Can'의 주력(呪力)이 한꺼번에 빠지는 순간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 해서 그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싶지 않으며 이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풀 네임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 주니어'다. '버락'은 케냐에서 쓰는 스와힐리어로 '신의 축복을 받은'이라는 뜻이라 한다. 중간 이름 '후세인'은 이슬람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대표적 이름 가운데 하나다. 그의 이름은 이처럼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 흑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의미만큼이나 '후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에도 의미가 적지 않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기독교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 그는 기독교인이며 또한 미국의 전통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통령을 받아들인 미국사회는 종교적 분포로 보아서도 기독교 원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집권 시기 안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일신교 형제 종교들의 지겹고 터무니없는 갈등으로 해서 지구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기를 바라고 싶다.

'동서양 종교는 서로의 거울이 돼 마주 봄으로써 스스로를 좀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던 가톨릭 신부 토머스 머튼의 한 마디를 함께 덧붙이면서….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표준 '금강경' 발간의 의미

조계종이 <표준 금강경>을 펴냈다. 한문과 한글이 함께 편집된 독송용과 주석본 두 권이 우리시대 <금강경>의 표준을 이룬 것이다. 1월 20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봉정 법회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2000만 종도들이 이 표준본을 지남으로 삼아서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지금까지 발간된 <금강경> 가운데 가장 완벽한 주석본임을 강조했고 교육원장 청화 스님도 종단의 정체성을 밝히고 종풍을 드날리는 계기를 삼게 됐다고 말했다.

<금강경>은 역대로 선과 교를 초월해 연구되고 읽혀 온 대표적인 경전이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표준본이 만들어진 것은 여러 스님과 학자들이 각자의 견해대로 해석해 온 것을 종합해 우리 시대에 가장 접합되는 견해를 세웠다는 의미다. 경전이란 시대를 따라 해석 하는 바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흐름을 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을 강조한 <금강경>이 종단의 원력으로 제작된 것은 교학적 연구와 간경수행 독송기도 등을 일관된 견해로 이끌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표준'이라는 다소 제한적 성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금강경의 정신'에 부합되느냐는 반문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반문이야말로 '표준 금강경'의 가치를 시대와 풍속에 따라 새롭게 변화 발전시키는 힘이 될 수도 있다.

당대의 이름 높은 학승과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룬 이 불사가 우리시대의 정신을 올곧게 이끌어 가는 힘이 되길 빌어마지 않는다.

신도수 뻥튀기 이제 그만

도대체 한국의 불자는 몇 명이나 될까? 발표되는 자료마다 수치가 다르다. 누가 봐도 믿기 어려운 수치가 발표되고 있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2008 한국의 종교현황>에는 불자의 수가 무려 3985만명이나 된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인구의 두 배에 해당하는 종교인구 수를 발표하고 있어 어이가 없다. 각각의 종파들이 설문에 응하면서 신도수를 터무니없이 부풀렸다는 얘기다.

불교의 경우 최근 10년 만에 100여 개의 종단이 설립됐고 주로 이들 종단이 신도수를 높게 응답함으로써 전체 인구수에 육박하는 불자의 수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신뢰성 없는 수치는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발표돼 왔다. 그러나 불자의 수를 높게 발표하는 것이 자랑은 아닐 것이다. 믿어 줄 사람도 없지만 당장 불자임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사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같이 터무니없는 수치를 대하는 사람들은 종단 안을 향해서 '과연 신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교육과 신행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신도수를 눈짐작으로 발표하는가? 하는 의심도 받게 된다. 뻥튀기 된 신도 수는 종단의 행정 시스템과 정신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다.

신도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통계자료에 관례적으로 뻥튀기를 하는 속사정을 묵인한 채 '2000만 불자'를 외치는 허망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망신스럽다.

"행복한 보살 삶 살아가세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100 참회와 감사로 회향합니다

100회를 함께 회향하면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들을 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99회를 부처님전에 마지 올리는 마음으로 바친다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라며 알려주신 스님의 회향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성삼보에 귀의합니다.

100회 회향하며 108번의 깊은 참회 올립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산비탈에서 '禪의 황금시대'를 가열하다

선종 초기 스님들 수행지도 하던 도량 추정

해인사 창건한 순응 스님 창건… 홍각 선사 부도 기단석만 남아

산사태로 매몰된 후 한 번도 중창된 적 없어

❸ 선림원지, 절반으로도 넘치는 축복

"산은 험하고 계곡은 맑아 수려한데, 인적 드문 산촌마을엔 스산한 정적이 감돈다. 비포장도로 흙먼지 날리는 길은 멀고멀기만 하며, 가파른 비탈을 넘어가는 버스의 엔진소리마저 숨이 차는데 거기엔 묵어갈 여관도 없다."

선림원지(禪林院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황이리)를 답사한 유홍준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1권(1993년 초판 발행)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세월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 세상에 있어 시간의 흐름은 문물의 발달을 뜻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선림원지로 이르는 길은 '하늘 아래 끝동네'로 통하던 산간벽지였지만 지금은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길(56번국도)이 잘 포장돼 있고 선림원지가 위치한 계곡, 그러니까 미천(米川)골 안쪽의 자연휴양림은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 핸들만 잘 잡고 안내 멘트를 따라가면 어느 유적지나 쉽게 닿을 수 있는 시절, 이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짧은 겨울 해를 아끼며 옛 절터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저마다 고상한 이름표를 달고 방금 화장을 마친 것 같은 얼굴을 자랑하는 펜션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러니 "거기엔 묵어갈 여관도 없다"던 막막한 탄식은 이제 옛날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오후 3시쯤에 도착한 선림원지는 이미 산그늘에 묻혀 있습니다. 계곡의 양 옆을 버티고 선 산자락이 웅장한 만큼 고도가 낮은 겨울 해는 빨리 넘어갑니다. 얼음이 두껍게 덮인 길, 운전대를 힘껏 잡고 속도를 최대한 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땐 걸어가야 하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산그늘에 묻힌 계곡이 왠지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선림원지는 폭이 넓지 않고 길쭉하게 계곡을 따라 누어있습니다. 미리 알고 가지 않으면, 혹은 길 위로 난 계단을 올라 풍채 좋은 남정네처럼 서 있는 삼층석탑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저 그런 화전(火田)자리로 생각할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불처럼 눈이 덮여 있는 옛 절터는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맞은편 민박을 겸하는 농가가 없다면 더 없이 쓸쓸한 유물(遺物)의 공간일 것입니다.

쌓인 눈의 두께가 만만치 않아 장화로 갈아 신고 절터에 오릅니다. 건장한 몸으로 반겨주는 3층 석탑에 허리를 굽혀 3배를 올린 뒤 바쁜 걸음으로 하반신만 남은 부도를 향합니다. 멀리서 보면, 키가 낮은 사각의 훨제 보호난간 안에 돌로 빚은 장구를 새워둔 것 같은 형상. 바로 홍각(弘覺 생몰연대 미상)선사의 부도입니다. 원래 절터에서 뒷산으로 50m 쯤 올라간 곳이 제자리지만, 여기저기 흩어진 부재들을 모아 1965년 11월에 현재의 자리에 복원해 둔 것이라 합니다.

높이 1.2m, 반만 남은 부도를 망연(茫然)하게 바라봅니다. 상반신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을 되새김질 하다가 눈의 초점을 모아 봅니다. 사각의 지대석 위에 팔각 측면석이 단단하게 얹혀 있습니다. 측면석의 각 면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사자상이 새겨져 있고 그 위에 여덟 개의 연꽃잎을 두른 연화대석이 8각의 괴대를 받치고 있습니다. 비교적 높아 보이는 괴대 위에 구름을 헤치고 노니는 세 마리의 용이 아주 현란하게 조각된 중대석이 있습니다. 부도의 역사상 중대석에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구름과 용의 조각을 바라보는 동안 숨이 막혀 옵니다.

석공이 오늘 아침에 마지막 망치를 내려놓은 듯 선명한 구름과 생동하는 용들이 "반만 남은 이 부도는 이미 형상을 떠나 있노라" 하고 '무설설(無說說)'의 법문을 들려주는 듯합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생생한 중대석의 조각이라면 그 위의 탑신과 옥개석 그리고 상륜부는 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유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후손은 선대의 스승들에게 한없이 큰 죄를 지었고, 후대의 자손들에게도 고개 들지 못할 민망한 죄인입니다.

원적에 든 선사의 사리 한 줌을 안장한 부도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사람의 숨통을 막을 지경이라면 거기에는 분명, 땅을 덮고 남으며 하늘을 가리고도 모자람이 있을 만치 놀라운 가르침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입을 열어 말하되 아무도 듣지 못하고, 입을 닫고 있어도 철철 넘쳐 나는 진공묘유(眞空妙有), 그 큰 울림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로 살고 있음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장엄한 통일신라와 고려 초기의 부도들이 화려함의 극치였다면 후대로 내려갈수록 모양이 단순해져 장엄함을 잃게 됩니다. 한 시대의 불교 위상이 부도로도 표현되는 것이고 보면, 오늘날의 부도들도 오늘날의 불교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1200년 전에 살았던 홍각 선사의 부도가 절반의 몸으로도 천지를 뒤흔드는 법문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❶ 홍각 선사 부도의 중대석 운룡 조각.
❷ 기단석만 남은 부도.
❸ 복원된 홍각 선사 탑비.
❹ 조각이 선명한 이수.

봄에 오면 좀 다를까? 그 아득한 폐허의 공간에서 문득 봄 풍경을 그려봅니다. 숨구멍 열리는 땅을 비집고 풀잎들이 고개를 내밀어 푸른 융단을 펼쳐놓고 우짖는 새소리가 천상을 장엄하는 봄날이라면, 천년 넘게 잊어졌던 절터에서도 생명의 활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겨울날의 오후 선림원지에 서 있자니 나그네는 벌거숭이가 된 느낌입니다.

선림원(禪林院)은 그 이름에 그 존재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선 수행의 구도자들이 저자로 향한 발길을 거두고 외진 도량에 모여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새벽별을 보고자 오롯이 수행에만 몰두하던 곳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이 도량은 수선(修禪)을 지표로 한 운수(雲水)들이 머물던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짐작은 1985년부터 1년에 걸친 발굴작업에 의해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 발굴조사단의 보고와 광복직후 이 절터에서 출토된 신라 범종의 명문, 역시 이 절터에 흩어져 있던 홍각(弘覺)선사 비편(碑片) 등을 종합해 보면 선림원이 어떤 도량이었는지 윤곽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선림원은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順應) 스님이 804년에 창건했습니다. 화엄종 계열의 순응 스님이지만, 그가 지은 선림원은 선종의 도량으로 변화했고 그 중심에 홍각 선사가 있었습니다. 선림원은 통일신라의 화엄종에서 지은 절이 구산선문이 꿈틀대던 시절인연을 따라 선종 사찰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절의 이름이 '사(寺)'가 아닌 '원(院)'인 것은 화엄종의 스님들이 선종으로 이적하면서 필요하게 된 선을 중점적으로 닦는 '수련원'의 역할을 했음을 추론케 합니다. 이 산비탈에서 '선의 황금시대'가 가열(加熱)되고 있었던 겁니다.

홍각 선사는 구체적인 행장이 전해지지 않지만, 선림원지에 있던 비편 등을 통해 '일찍부터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불경을 깊이 연구했으며 수행의 깊이를 더해갔던 봉림사문(鳳林寺門)의 선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찾아와 법을 묻는 이가 많았던 말년에 선림원에 머물다 886년에 입적했고 선림원에는 선사의 부도와 비의 귀부와 이수가 남아 있습니다. 깨어져 빈 터에 뒹굴던 비편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150여 글자가 판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에 새긴 글자들이 왕희지의 글자를 집자한 것이라 '높으신 분'들의 탁본 행렬이 꾸준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노역에 시달려야 했던 민초들이 탑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빗돌에 들인 옛 사람의 정성이 후대에는 민폐가 되었다니 세상인심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선림원지에는 판독 가능한 글자들만 새긴 채 비신을 복원해 격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쌀 씻은 물이 냇물을 허옇게 했다(米川)던 선림원지에는 진전사지의 삼층석탑과 닮은 삼층석탑(보물 제444호)과 홍각 선사의 부도(보물 제447호), 기상이 넘치는 귀부와 용 조각이 산뜻한 이수(보물 제446호), 귀꽃이 아름다운 석등(보물 제445호), 금당터, 조사당터 등이 천년 넘는 세월의 구멍을 메우고 있습니다.

절은 창건 후 오래 견디지 못한 채 어느 해에 산사태에 매몰돼 폐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세기 이후의 유물은 한 점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석조물들의 상태가 그토록 선명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광복직후에 이 터에서 출토됐던 신라범종의 경우,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평창 월정사로 옮겼다가 한국전쟁 당시 월정사가 불에 탈 때 함께 녹아 버리고 그 유해의 일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유홍준은 "차라리 발견되지 않고 땅속에 묻혀 있었더라면 이 시대에 얼마나 큰 대접을 받았을까"하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눈 덮인 땅에 풀이 돋고
새 우짖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
나도 언젠가
풀로 돋아 눈비를 맞고
눈비로 내려 풀뿌리에 스며들 것을

산그늘이 두께를 더해 가는 선림원지를 뒤로하고 돌아서니 문득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홍각 선사에게 바칩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